



2021년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동학연구소 학술대회

동학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진행 : 원영상 (원광대)

개회식	12:30-13:00	등록 및 접수
	13:00-13:30	[개회사] 박맹수 (원광대 총장) [환영사] 김성종 (아시아인문재단 이사장)

진행 : 정성미 (원광대)

제1부 미래를 여는 새로운 역사

제1부 미래를 여는 새로운 역사	13:30-14:00	[기조강연] 동학과 새로운 미래	박맹수 (원광대 총장)
	14:00-14:30	[제1주제] 동학농민혁명의 문명사적 의의	김봉곤 (원광대)
	14:30-15:00	[제2주제] 동학농민혁명과 지역화합 및 민족통일	신진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15:00-15:30	[제3주제] 동학농민혁명과 한국사회의 미래가치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5:30-15:40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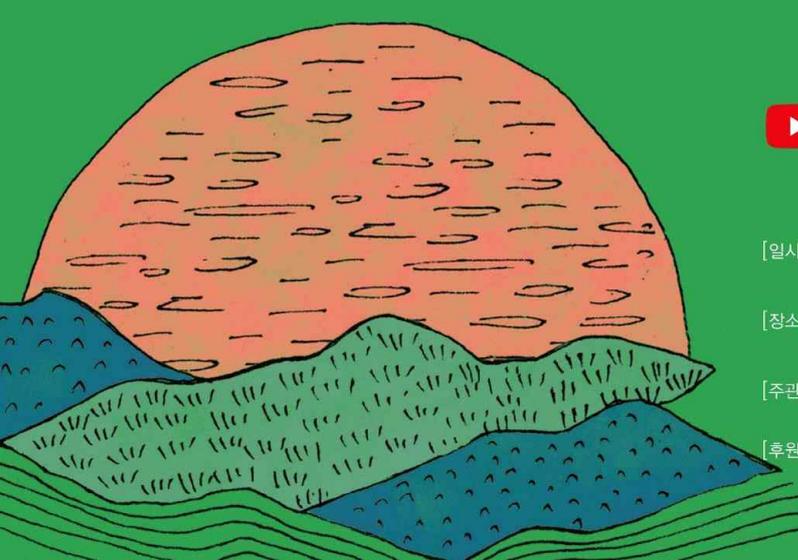
진행 : 이주연 (원광대)

제2부 생명과 살림, 그리고 평화

제2부 생명과 살림, 그리고 평화	15:40-16:10	[제4주제] 동학의 생명사상과 한살림	임채도 (모심과살림연구소)
	16:10-16:40	[제5주제] 동학농민혁명과 생명평화 : 우는 사람들과 상처입는 자연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최은희 (동학소설가, 시민운동가)
	16:40-17:10	[제6주제] '다시개벽'의 지구사적 의미	조성환, 허남진 (원광대)

17:10-17:20 휴식

17:20-18:00 종합토론 및 향후과제 좌장 : 신순철 (전 원광학원 이사장)



 YouTube '원불교사상연구원' 채널 생중계

[일시] 2021. 5. 7(금) 13:00~18:00

[장소]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 2층 세미나실

[주관]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동학연구소

[후원] 원광대학교, 아시아인문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1년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동학연구소 학술대회

동학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구분	시간	내용		진행
개회식	12:30 - 13:00	등록 및 접수		
	13:00 - 13:30	개회사	_ 박맹수 원광대 총장	원영상 원광대
환영사		_ 김성중 (재) 아시아인문재단 이사장		
제1부 미래를 여는 새로운 역사	13:30 - 14:00	기조강연	동학과 새로운 미래 _ 박맹수 원광대 총장	정성미 원광대
	14:00 - 14:30	제1주제	동학농민혁명의 문명사적 의의 _ 김봉곤 원광대	
	14:30 - 15:00	제2주제	동학농민혁명과 지역화합 및 민족통일 _ 신진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15:00 - 15:30	제3주제	동학농민혁명과 한국사회의 미래가치 _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5:30 - 15:40	휴식		
제2부 생명과 살림, 그리고 평화	15:40 - 16:10	제4주제	동학의 생명사상과 한살림 _ 임채도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주연 원광대
	16:10 - 16:40	제5주제	동학농민혁명과 생명평화 : 우는 사람들과 상처입는 자연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_ 최은희 작가, 동학시정감시단	
	16:40 - 17:10	제6주제	'다시개벽'의 지구사적 의미 _ 조성환, 허남진 원광대	
	17:10 - 17:20	휴식		
	17:20 - 18:00	종합토론 및 향후과제	좌장 : _ 신순철 전 원광학원 이사장	

【개회사】

동학연구소, 사람이 하늘 되는 길을 향하여



안녕하십니까. 원광대 총장 박맹수입니다.

오늘 ‘동학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 발제자로 참여해주신 분들과,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저희 원광대는 1946년 개교한 이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는 슬로건 하에 지성과 덕성을 갖춘 16만 여명의 인재를 양성하여 참문명세계 건설에 이바지 해왔습니다.

잘 아시듯이 19세기 후반 우리나라 조선은 안으로 5백년 지배체제가 흔들리고 있었고 밖으로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에 국권이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한줄기 희망이었던 것은 ‘사람이 하늘’ 임을 선언하고 등장한 동학과, 새로운 세상 개벽세상을 꿈꾸고 실현하고자 하였던 수많은 민초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 의해 이 땅에서는 새로운 도의의 시대,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의 시대,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모든 존재를 하늘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평화와 생명의 시대, 인간의 영성과 우주의 기화가 합일되는 개벽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속에서 배태된 정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과 세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부패와 타락이 아닌 도의의 새 세상이 전개되고, 지역이 화합하고 민족이 통일되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의 생명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다시개벽의 지구사적 의미를 새롭게 쓰는 일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은 저희 원불교사상연구원 산하의 동학연구소가 첫 번째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저희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생명평화 운동의 중심지였던 전라도 지역에 동학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가 전무한 실정임을 안타깝게 여기고, 동학연구소 설립을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는 동학연구소 창립을 갈망한 많은 분들의 성원과 저희 연구원의 뒷받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 사회와 환영사, 발표 및 토론을 맡아주신 주신 분들은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저희 연구소 설립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전 원광학원 신순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사다망함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와 주신 김성중 아시아인문재단 이사장님, 임채도 모심과살림연구소장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병규 부장님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신진희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의 열망에 힘입어 동학연구소가 하루 빨리 설립되어 동학 연구와 동학정신의 함양뿐만 아니라 새 시대를 열어가는 개혁 운동의 센터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개회사가 거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7일

원광대학교 총장 박맹수 모심

【환영사】

동학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문명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동학연구소가 비로소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발표하고 토론하는 여러분께서 오심즉여심으로 수운선생의 뜻을 한바탕 풀어내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역사로서의 동학을, 생명과 살림과 평화의 동학을 은근히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미래와 문명, 통일과 한국사회, 생명과 한살림, 평화와 다시개벽 등 벽찬 주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맹수 총장님을 비롯하여 동학연구소의 뜻깊은 책임을 맡으신 원불교 사상연구원과 함께 동학으로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살림의 문을 열어나가는 이 자리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손을 모아 나섰습니다.

앞날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선 바탕을 알아채는 일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남의 것을 배우는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깊은 뿌리로부터 피워 올린 꽃과 열매야 다시개벽을 잉태하여 미래를 한껏 열어낼 수 있습니다. 동학에 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듯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동학연구의 크고 새로운 연구의 틀이 밝게 드러나고 새 문명을 열어 나갈 길이 트이기를 고대합니다. 샷된 기운이야 용천검 드는 칼로 시호시호 한바탕 쫓아내고 넉지시 우리의 손과 마음으로 새 문명을 열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문명사적 의미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동학연구소가 내보이는 뜻을 불연기연 헤아리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성과 공경의 마음으로 동학연구소가 열어 갈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면서 학술대회를 준비한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7일

(재) 아시아인문재단 이사장 김성중

2021년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동학연구소 학술대회

동학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차 례

개회사	박맹수.....	4
환영사	김성종.....	6
[기조강연] 동학과 새로운 미래	박맹수.....	9
[주제발표1] 동학농민혁명의 문명사적 의의	김봉곤.....	17
[주제발표2] 동학농민혁명과 지역화합 및 민족통일	신진희.....	33
[주제발표3] 동학농민혁명과 한국사회의 미래가치	이병규.....	53
[주제발표4] 동학의 생명사상과 한살림	임채도.....	75
[주제발표5] 동학농민혁명과 생명평화 : 우는 사람들과 상처입는 자연 그리고 고통받는 동물들	최은희.....	89
[주제발표6] ‘다시개벽’의 지구사적 의미	조성환·허남진.....	131

[기조강연]

동학과 새로운 미래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차 례

- I. 머리말
- II. 생명사상으로서 동학
- III. 살림의 혁명으로서 동학혁명
- IV. 살림의 군대로서 동학군
- V. 맺음말

I. 머리말

오늘, 「동학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글로벌 개벽대학’ 원광대학교 개교 75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21세기 생명사상으로 널리 주목받고 있는 동학(東學) 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함께, 그리고 그 동학의 사상과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일어난 19세기 세계사에서 최대 규모의 변혁운동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드러났던 ‘개벽(開闢)’의 지향들(살림의 혁명)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원광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바야흐로 지금 우리 시대는 ‘동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동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구체적 실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계사적 차원에서 그 증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주지하듯, 작년(2020) 12월말 중국 우한에서 비롯된 코로나19 팬데믹에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세계적 대유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에 의한 생태계 파괴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자본주의는 지금 전 지구적 차원의 생태계 위기, 기후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막다른 한계에 왔다는 것도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코

로나19 팬데믹은 ‘천지만물 막비시천주(天地萬物 莫非侍天主)’의 가르침을 제시했던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의 가르침이 그에 대한 대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로 눈을 돌려 보기로 하지요. 지난 4월초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 심혈을 기울여 역주작업을 한 성과를 『동경대전』1권(나는 코리안이다), 2권(우리가 하느님이다)으로 출간했습니다. 지금 인문서 베스트셀러로 널리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사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하여 창작과 비평사에서 지금 한국사상선집 전 30권을 펴내기로 기획을 하고, 그 30권 가운데 제 16권부터 20권까지에 근대한국 ‘개벽종교’ 창시자와 그 계승자를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동학에서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까지 모두 망라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학계에서는 종래 개화파와 척사파 중심의 한국 근현대 사상사 이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그간 무관심했거나 소홀히 생각했던 ‘개벽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최근의 한국 학계의 변화에 우리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점도 언급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원불교사상연구원은 2016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근대문명 수용과정에 나타난 한국종교의 공공성 재구축’이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그 성과는 현재, 『**근대한국 개벽종교를 공공하다**』(2018), 『**근대한국 개벽사상을 실천하다**』(2019), 『**근대한국 개벽운동을 다시 읽다**』(2020), 『**근대 한국종교, 세계와 만나다**』(2021) 등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나라 안과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감히 ‘동학의 시대’ 도래를 예시하는 생생한 증좌들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동학의 시대’ 도래에 대비한 새로운 학문운동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글로벌 개벽대학’ 원광대학교가 그 중심에 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머지않아 발족을 보게 될 ‘동학연구소’(가칭)가 원불교사상연구원과 함께 그 중차대한 소임을 기꺼이 수행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 세 가지로 기조강연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째, 1860년에 수운 최제우 선생에 의해 성립된 동학(東學)을 자본주의에 의해 초래된 전 지구적 위기,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를 극복할 대안사상 즉 ‘**생명사상으로서 동학**’이라는 관점에서 저의 생각의 일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동학의 ‘다시 개벽’ 사상과 ‘보국안민’ 사상 등을 그 혁명이념으로 삼아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하 동학혁명)을 민초들의 생명과 생업, 생활을 살리려고 일어난 ‘**살림의 혁명**’이었음을 1차 사료를 통해 실증함으로써 혁명이란 ‘**생명을 보듬어 안는 것**’이라는 관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셋째, 저의 오랜 연구 축적의 결과입니다만, 1894년에 우리나라 조선의 인구는 1,052만 명 정도(당시 일본 도쿄에서 간행되고 있던 국민신문 특과원 보고 참조)였으며, 그 가운데 많게는 3분의 1, 적어도 4분의 1의 조선 민중이 동학군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으로 ‘출병’한 일본군에 의해 최소한 3만 명 이상의 동학군이 학살됩니다. 동학군과 전투에서 전사하는 일본군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1:30,000의 비밀, 한국방송 취재파일 참조) 왜 이

런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살림의 군대로서 동학군’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I. 생명사상으로서 동학

먼저, 동학 성립의 역사적 배경을 밝힘으로써 동학이 왜 ‘생명사상’으로 주목되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립니다. 동학 창시자 수운 최제우 선생(1824-1864)이 태어나 사상형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뇌(구도)하면서 동학을 성립시키기까지의 시대는 바깥으로 ‘서세동점’의 시대였습니다. 이른바 서학(종교로서 서학, 정치경제체제로서 서학 및 과학기술로서 서학 등 세 가지의 차원이 혼재된 것이 당시 서학이다)의 전면적 충격에 의해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백성들이 커다란 위기에 노출된 시대였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이른바 ‘삼정문란’이라 하여 조선왕조 5백년간의 지배체제가 뿌리에서 흔들림으로써 피지배 민초들의 생명, 생업, 생활이 전면적으로 위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같은 ‘이중적 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생명과 생업, 생활의 위기에 직면한 민중들이 그 이중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봉기하는 이른바 ‘민란의 시대’였습니다. ‘민란의 시대’를 달리 표현한다면, 민중의식의 성장 곧 역사의 객체로만 취급받아왔던 민중들이 스스로 각성함으로써 역사의 주체로 일어서는 시대가 바로 수운 선생이 동학을 성립시킨 시대의 특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운 선생에 의해 성립된 동학사상의 핵심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동학사상의 핵심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학의 핵심사상은 『동경대전』에 집약되어 있으며, 그 『동경대전』의 핵심은 「논학문」 편에 집약되어 있고, 「논학문」의 핵심은 다시 ‘21자 주문설’에서 드러나며, ‘21자 주문’은 다시 ‘시’(侍) 한 글자로 집약 됩니다” 라고요. ‘시’의 뜻을 수운 선생은 ‘내유신령 외유기화 일세지인 각지불이’(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라고 하신 말씀을 빌려 이해하면, “안으로 신령함이 있고 밖으로 기화함이 있음을 세상 모든 사람이 제각각 알아서 옮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 나름대로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동학에서 강조하는 ‘시’란, 내 안의 영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그 확립된 영성으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른바 개인의 영성과 사회 혁명의 창조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시’를 실천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다시 ‘한살림’에서 말하는 모심과 살림이 됩니다. 동학은 바로 그런 사상이요, 철학입니다. 모심과 살림의 사상이요 철학이 바로 동학사상의 핵심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Ⅲ. 살림의 혁명으로서 동학혁명

잘 알고 계시듯이, 동학혁명은 거의 1세기 이상 ‘란’(亂)으로, ‘폭동’으로 취급당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동학혁명은 오랜 기간 지배층에 의해 억압당하고 왜곡 당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동학의 도인(신자)이나 일반 민중들 역시 오랜 기간 ‘비도’나 ‘폭도’ 취급을 당함으로써 지난 1세기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삶을 살아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가장 근본 원인은 생명사상으로서 동학에 대한 무지, 그리고 그 생명사상에 근거하여 죽어가는 민초들을 살리기 위하여 일어났던 살림의 혁명으로서 동학혁명, 다시 말해 생명을 보듬어 안아 살리려 했던 동학혁명의 본질이 혁명 실패로 인해 왜곡되고 은폐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동학혁명이 살림의 혁명이었음을 원(原) 사료를 예로 들어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894년 음력 3월 20일경, 당시 전라도 무장현(지금의 전북 고창군 공음면)에서 전봉준 장군이 조선 전체의 폐정개혁을 목표로 전면 봉기하면서 포고했던 <무장포고문>의 내용을 예로 들어 보고자 합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 바, 근본이 깎이면 나라 역시 쇠잔해 지는 법이다. 그러니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輔國安民) 방책을 생각하지 않고 시골에 집이나 지어 그저 오직 저 혼자만 온전할 방책만 도모하고 한갓 벼슬자리나 도둑질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어찌 올바른 도리라 하겠는가. 우리 동학농민군들은 비록 시골에 사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이 땅에서 나는 것을 입고 사는 까닭에 나라의 위태로움을 차마 앉아서 볼 수 없어서 팔도가 마음을 함께 하고 억조(億兆) 창생들과 서로 상의하여 오늘의 이 의로운 깃발을 들어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 잡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 것을 죽음으로써 맹세하노니, 오늘의 이 광경은 비록 크게 놀랄 만한 일이겠으나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각자 자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여 다 함께 태평성대를 축원하고 다 함께 임금님의 덕화를 입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노라.

위의 인용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내용. 곧 ‘보국안민’이라는 대의입니다. 동학혁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보국안민’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운 선생의 「포덕문」(1861)에서부터 시작하여 동학혁명의 대의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동학혁명이 구체적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내용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폐정개혁 27개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살림의 혁명으로서 동학혁명의 면모를 확인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지하듯이, 제1차 동학혁명은 1894년 음력 3월 21일 ‘무장기포’ 단계부터 ‘전주화약(全州和約)’이 성립되어 동학군이 전주성으로부터 자진 철수하는 음력 5월 8일경까지 전개되었습니다. 이 1차 혁명 단계에서 전봉준 등 동학군 지도부는 ‘포고문’(布告文), ‘격문’(檄文), ‘원정’(原情) 등의 형태로 조선왕조 통치체제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문건을 기획 있을 때마다 제출하였

으며, 그 같은 혁신적 요구는 ‘전주화약’ 당시 초토사 홍계훈에게 ‘폐정개혁 27개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폐정개혁안을 통해 동학군 지도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혁신을 요구한 내용은 부패한 집권자(執權者)의 교체 바로 그것(민씨정권 타도)이었습니다. 즉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안민(安民)’이라는 유가적 통치의 이상(理想)을 저버린 민씨(閔氏) 정권을 타도하고, 민심(民心)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던 대원군(大院君)을 추대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학군 지도부는 민씨 정권에 빌붙어 아첨을 하며 ‘안민’과는 달리 학민(虐民) 행위를 일삼고 있던 조정(朝廷)의 관리와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의 숙청을 통한 정도(政道)의 일신, 즉 민중들의 생명과 생업,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집권자로의 교체 및 ‘안민’책의 구체적 실천을 요구하였습니다. 요컨대, 폐정개혁의 요구는 민초들의 생명, 생업, 생활에 대한 ‘살림의 혁명’으로서의 동학혁명의 지향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IV. 살림의 군대로서 동학군

서언에서 일본군에 의해 학살당한 동학군은 3만 명 이상, 동학군에 의해 전사한 일본군은 단 1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났던 것일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동학군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일어난 ‘살림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살림의 군대’, 동학군의 참 모습을 전하는 원 사료가 일본 외무성 산하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조선국 동학당 동정에 관한 제국공사관 보고일건>이라는 문서파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문서 파일은 제가 1997년에 일본 현지에 가서 처음으로 발굴한 동학혁명 관련 문서입니다. 그 문서 파일 속에 들어 있는 <동학당에 관한 속보>(주한 임시대리공사 스기무라 후카시 발, 제 63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동학군 대장이 각 부대장에게 명령을 내려 약속하기를, 1) 우리 동학군은 매번 적과 맞서 싸울 때에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싸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주)을 으뜸의 공으로 삼고, 2)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상대방의 목숨만은 해치지 아니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3) 매양 행진하며 지나갈 때에는 절대로 민가에 폐를 끼치지 아니하며, 4) 효자와 충신과 우애와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사는 동네 십리 안에는 절대로 주둔하지 말라고 하었다고 합니다.

위에 번역하여 소개한 내용에 붙어 있는 번호는 임의로 제가 붙인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 곧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동학군의 도덕성, 자기규율성이 가히 세계적 수준입니다.

다. 이게 무슨 반란군이며, 폭도입니까. ‘살림의 군대로서 동학군’ 다운 모습, 일찍이 김지하 시인이 <은적암기행>에서 동학군의 도덕성, 자기규율성의 탁월함을 ‘인즉천이니 사인여천하라’는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의 가르침으로 무장되고 수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던 그대로가 바로 동학혁명 당시 동학군의 진면목입니다.

‘살림의 군대로서 동학군’의 진면목은 동학혁명 당시 재야 지식인으로서 동학혁명에 비판적이었던 매천 황현(梅泉黃玹, 1855-1910) 선생마저도 감동시킨 바 있습니다. 10여년 전, 「매천 황현의 동학농민군 인식」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매천 선생의 동학혁명 견문기 「오하기문(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매천 선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학군의 벌은 매우 인간적이다. 특히 사람 죽이는 것을 대단히 꺼려 한다”라고요.

동학군의 처벌법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1880년대 중반부터 1892년까지 해월 선생을 중심으로 한 동학 지도부의 동향을 담고 있는 자료에 『해월문집』이라는 원 사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원불교상연구원 공부모임에서 함께 강독했던 바로 그 사료입니다. 그 사료 속에 죄를 지은 도인에 대한 동학의 처벌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순행-주찰-안접-효유-시벌”로써 처벌하기까지 다섯 단계가 있었습니다.

‘순행’이란 지도자가 죄를 또는 잘못을 저지른 도인(신자)을 살피기 위해 현지(현장)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찰’이란 현지에 가서 전후좌우 사정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안접’이란 불안에 떨고 있는 당사자가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하게 하는 것, 곧 현대적 의미의 심리치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유’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당사자가 죄를 뉘우치도록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네 단계를 모두 거치고 난 뒤에 비로소 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시벌’입니다. 그런데 그 ‘시벌’이 또한 기가 막힙니다. 죄를 지은 도인이 그 지도자인 접주와 함께 해월(법헌) 선생이나 대접주가 주재하는 곳(도소)으로 올라와 접주와 함께 ‘쌍벌죄’의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은 다름 아니라 대단히 강도 높은 동학 교리강습을 15일간 받거나, 아니면 49일 기도수련을 함께 이수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처벌법 아닌가요? 갑오년 동학군 대다수는 이렇게 동학의 살림사상으로, 살림의 처벌법으로 무장한 ‘살림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동학군의 전술전략은 가능한 한 많이 모여서 먼전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북이나 팽과리를 치면서 큰 함성을 질러 상대가 기가 질려 도망가게 하는, 지극히 생명살림적인 전술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학군과 일본군 희생자 비율 1:30,000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바야흐로 나라 안팎에서 도래하고 있는 ‘동학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

가? 그 방향 모색을 위하여 첫째 생명사상으로서 동학, 둘째 살림의 혁명으로서 동학혁명, 셋째 살림의 군대로서 동학군이라는 주제로 원 사료 중심으로 간단하게 개관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개벽대학 원광대학교를 생명운동의 전진기지로 삼아, 코로나 재앙, 기후재앙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구 전체 생명 살림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나아가시는데 작은 ‘지남(指南)’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1]

동학농민혁명의 문명사적 의의

김봉곤

원광대학교 연구교수

차 례

- I. 머리말
- II. 동학의 생명사상
- III.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생명운동
- IV. 동학농민군의 집강소 활동과 생명운동
- V. 맺음말

I. 머리말

1894년 전개된 동학농민군의 그 활동과 의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난(亂), 운동, 전쟁, 혁명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조선왕조 체제하에서는 왕조체제에 대항하고 관군과 맞서 싸웠다고 하여 동학난으로 규정되었고, 왕조체제가 끝난 뒤에는 동학농민군들이 지배층의 탐학과 착취,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였다는 점이 부각되어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 또는 1894년 농민전쟁, 동학혁명, 동학운동 등 다양하게 불리어졌다. 이러한 용어의 다양함은 1894년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농민전쟁이나 혁명이나 아니면 운동으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측면과 동학과 농민전쟁의 관련 여부나 정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다.¹⁾ 이러한 논의와 함께 오늘날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인해 시민혁명이 완수됨으로써 국가에서는 시원이 되는 이 사건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여 2019년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하였다.

1)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 동학(사상)과 농민전쟁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림, 142쪽.

박맹수는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대해 혁명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박맹수는 동학의 교조 최제우에 의해 제창되고 최시형 등에 의해서 계승되어간 동학에 대해서 다시개혁의 문명의 혁명, ‘東學(동학)’의 주체적이고 근대적인 종교·사상혁명, 보국안민의 정치혁명, 시천주의 사회혁명, 유무상자(有無相資)의 경제혁명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혁명성이 1894년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측면에서 조선왕조의 폐정을 폭력을 써서라도 개혁함으로써 안민(安民)을 달성하기 위해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임을 주장하였다.²⁾

본고에서는 이러한 박맹수의 분석에 힘입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문명사적 의의를 생명운동의 중심으로 밝히고자 밝히고자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제폭구민(除暴救民)과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제폭구민은 글자 그대로 ‘폭력을 없애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고, 보국안민은 ‘나라의 국정을 돕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는 뜻이며, 광제창생은 ‘널리 창생을 구제한다’는 의미이다. 광제창생의 경우는 ‘제폭구민’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제폭구민과 보국안민 두 가지를 동학농민혁명의 이념으로 해도 될 것이다.

폭력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폭력은 위력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타인이나 다른 집단에 가하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과 개인, 남자와 여자, 자본가와 노동자, 신분, 계급, 국가, 인간과 자연 간에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제폭구민은 이러한 각종 폭력, 모든 존재들의 생존조건을 위협하는 반생명적 요소인 폭력을 제거하여 생명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보국안민에서 보국은 나라의 국정을 돕는다는 의미이므로, 세도정치와 외세의 간섭으로 왜곡되어진 정치질서를 바로잡아서 인도와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를 실현시키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국안민은 국정을 도와 정치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백성을 살리고 편안하게 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폭구민이나 보국안민은 모두 반생명적 요소를 타파하고 생명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제도로 바꾸어 궁극적으로 생명평화의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이 동학농민군의 1차와 봉기와 2차 봉기 때 나타난 제반 활동을 반생명적 요소의 타파와 도의의 실천³⁾에 입각한 생명운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는 선학들의 업적과 동학농민혁명 당시 격문과 폐정개혁안, 집강소의 활동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박맹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왜 혁명인가」, 『생명의 눈으로 보는 동학』, 모시는 사람들, 2015, 228-241쪽.

3) 윤석산에 의하면 동학은 19세기 중엽 조선의 총체적인 윤리적 타락의 위기를 극복하고 천리와 천명에 순응하는 후천의 새로운 문명시대를 이루고자 하였다고 한다(윤석산, 「동학 창도의 문명사적 의미」, 『한국언어문화』26, 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338쪽). 본고 역시 이러한 윤석산의 관점을 계승하여 1894년 동학농민혁명 역시 도의의 실현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II. 동학의 생명사상

동학의 생명사상은 수운 최제우가 제시한 시천주(侍天主) 13자 주문과 해월 최시형의 이천 식천(以天食天) 설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수운은 『동경대전(東經大全)』 「논학문(論學文)」에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시」 라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요
 「주」 라는 것은 존칭해서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긴다는 것이요
 「조화」 라는 것은 무위이화요
 「정」 이라는 것은 그 덕에 합하고 그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요
 「영세」 라는 것은 사람의 평생이요
 「불망」 이라는 것은 생각을 보존한다는 뜻이요
 「만사」 라는 것은 수가 많은 것이요
 「지」 라는 것은 그 도를 알아서 그 지혜를 받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덕을 밝고 밝게 하여 늘 생각하며 잊지 아니하면 지극히 지기에 화하여 지극한 성인에 이르느니라.⁴⁾

즉 13자 주문은 ‘한울님을 모시니 무위이화의 덕에 합일된다. 평생토록 간직하고 모든 것에 그 지혜를 받는다’는 뜻으로서, 그 덕을 밝게 하고 늘 잊지 아니하면 지기(至氣)로 화하여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김정설은 「논학문」에서 수운이 풀이한 侍와 定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⁵⁾ 侍자의 어의는 불교에서의 나무(歸依, 歸命, 歸信), 기독교의 신앙과는 달리, ‘內有神靈, 外有氣化라고 하였으니, 內는 ‘神의 內’인 동시에 ‘人의 內’이며, 外는 ‘人의 外’인 동시에 ‘神의 外’인 것이다. 천주가 內고 사람이 外이거나 인간이 內고 천주가 外인 것이 아니라, 我(나)의 內가 곧 天의 內이며 天의 外가 곧 我的 外(밖)에 삼라의 만상이 곧 천주의 氣化란 것이다. 그러므로 천주의 신령을 떠나서 나(我)의 신령이 따로 있거나 천주의 氣化를 떠나서 我的 氣

4) 『東經大全』 「論學文」,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主者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造化者 無爲而化也 定者 合其德定其心也 永世者 人之平生也 不忘者 存想之意也 萬事者 數之多也 知者 知其道而受其知也故 明明其德 念念不忘則 至化至氣 至於至聖” 『천도교』 경전, 천덕송, 「논학문」 (<http://www.chondogyo.or.kr/niabbs4>) 참조. 번역은 천도교 측의 표준해석을 따랐다. 박맹수의 경우는 侍를 「모심(시)」 이라고 풀이하고 各知不移의 뜻을 온 세상 사람들이 각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옮기지 못할 것임을 안다는 뜻이다. 또한 ‘無爲而化’의 뜻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定」 은 하늘의 덕에 합일하여 하늘같은 마음을 정한다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하였다. 박맹수, 『동경대전』. 15-16쪽 참조.

5) 김정설, 「崔濟愚論」, 『風流精神』, 1987, 94-95쪽.

化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⁶⁾ 후인들이 말한 人乃天이란 의미도 이러한 뜻이다. 다시 말하면 天人一體, 神我一體 이것이 수운의 신관으로서 기독교의 外在神觀과는 상이한 것이다.

그러나 천과 인이 각각 다른 것이므로 人의 수행없이는 天人妙습의 경지에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자면 侍가 없어선는 안 될 말씀이다. 모시되 부모로서 섬겨야(稱其尊而與父母同事) 한다는 것이다. 모시되 至孝로써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加被라든가 섭리라든가 하는 인격의 지적 성격과는 판관으로 그 대신 조화라 하였다. 조화는 의지와는 아주 다른 원리로서 하염이 없이 절로 된다는 것이니, 이 하염이 없이 절로 되는 그것만이 천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화라는 것은 무위이화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운의 시천주 사상은 2세교주 해월의 「以天食天」 설법에서 생명사상으로 전개된다.

내 恒常 말할 때에 物物天이요 事事天이라 하였나니, 萬若 이 理致를 是認한다면 物物이 다 以天食天 아님이 없을지니, 以天食天은 어찌 생각하면 理에 相습치 않음과 같으나, 그러나 이것은 人心의 偏見으로 보는 말이요, 萬一 한울 全體로 본다 하면 한울이 한울 全體를 키우기 爲하여 同質이 된 자는 相互扶助로써 서로 氣化를 이루게 하고, 異質이 된 者는 以天食天으로써 서로 氣化를 통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한울은 一面에서 同質의 氣化로 種屬을 養케 하고 一面에서 異質의 氣化로써 種屬과 種屬의 連帶의 成長發展을 圖謀하는 것이니, 總히 말하면 以天食天은 곧 한울의 氣化作用으로 볼 수 있는 데, 大神師께서 侍字를 解義할 때에 內有神靈이라 함은 한울을 이룸이요, 外有氣化라 함은 以天食天을 말한 것이니 至妙한 天地의 妙法이 도무지 氣化에 있느니라.

「이천식천」은 해월의 설법에서 나오는 말이다. 모든 존재가 한울 아닌 것이 없으므로 우리가 먹는 것은 한울을 먹는 것이다. 한울이 한울 전체를 키우기 위해 동질적인 것은 상호부조로서 氣化가 일어나고, 이질적인 것은 以天食天으로써 氣化를 통하게 하는 것이다. 즉 기화작용을 통해 인간에게 내재한 신령을 기르는 것이다.

김태창은 물질개벽에서 정신개벽으로의 전환을 한 차원 높여서 생명개벽으로까지 넓히고 심화시켜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교토포럼에서의 공공하는 철학의 주안점이 이성의 차원에서 감성의 차원으로, 감성의 차원에서 의지의 차원으로, 의지의 차원에서 영성의 차원으로 발전, 승화

6) 김정설에 의하면 우주의 속(內, 공간적이 아닌 것)은 곧 神靈이요, 우주의 겉(外, 공간적이며 또 시간성도 가진 것)은 氣化라는 것이니, 신령은 곧 천주의 主性으로서 우주의 속이 되는 것이요, 기화는 곧 조화로서 造化之跡을 표현한 것이니 우주의 겉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즉 天地氣象이 밖으로 보이는 조화 지적 즉 기화란 말이라는 것이다. 신령은 겉으로 보이는 기화의 본체가 되는 우주의 속, 기화는 속에 든 신령의 大用이 되는 우주의 겉이다. 수운은 천인일기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그 속은 신령이요, 그 겉은 기화이다. 이는 내성적 체험으로써 悟得한 경계이기 때문에 일즉일체 일체즉일의 묘리를 확신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내유신령 외유기화는 그의 우주관이자 인생관이며 수행관의 원칙이 되는 것이다. 천인이 일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이 자각해서 진실로 誠敬信으로써 侍天主를 할 때는 內로 神靈과 外로 氣化의 天人이 妙습을 할 터이니, 이러한 천인묘합경계에선 언묵동정이 한가지로 천의 所爲에 합할 것이다. 이상은 수운 우주관의 대략이라 하겠다. 김정설, 『풍류정신』, 98쪽.

되어 왔는데, 영성은 그것이 생명력이었다는 것이다. 영성은 개별적 생명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서의 우주적, 근원적 생명력이며, 각 언어마다 영성, 영혼, 혼, 얼, 넋 등의 여러 표현 양식이 있다는 것이다.⁷⁾ 이에 김태창은 우주생명과 개체생명의 상호작용, 즉 우주적, 근원적 생명에너지와 대지적, 생태적 생명 에너지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온 생명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⁸⁾

이병철은 생명을 다양성, 관계성, 순환성, 영성, 자기 영속성으로 설명한다. 생명은 어느 것 하나같이 않는 평등한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며, 생명은 유기적이고 연기적인 생명의 상호작용에 의해 존재하며, 생명은 생명계 안에서 서로의 생명을 주고받는 순환고리에서 살아가며, 생명을 가진 존재는 본질적인 큰 생명을 모시는 영성과 합일되어 자기 영속성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다.⁹⁾ 생명운동은 거룩한 생명(하늘, 신성)이 드러난 이러한 개체생명을 하늘로써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천식천 역시 생명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행위인 밥 모심으로 이해한다.¹⁰⁾ 생명운동은 생명에 대한 각성을 통하여 내 안에 거룩한 생명이 계시는 것처럼 다른 존재, 다른 생명에 내재된 하늘을 깨닫고 모시기,¹¹⁾ 모두가 한 생명임을 알고 그렇게 살기, 그런 세상 만들기가 생활 수행이고 생활수행이 곧 생명운동인 것이다.¹²⁾

이처럼 이천식천으로 이루어지는 외유기화는 생명의 평등성과 관계성, 순환성, 영성, 자기 영속성을 유지하고 영속시키는 생명력의 근원이고, 생명과 생명이 하나로 합일되는 우주적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그러한 점에서 동학창도가 생명활동을 건강하고 왕성하게 하는 외유기화의 조건으로서 경제혁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박맹수에 의하면 동학창도의 배경에는 삼정문란과 외세의 경제적 침탈로 인한 민중의 곤궁한 삶을 경제적 차원에서 구제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동학은 창도 초기부터 입도하는 도인들에게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경제적으로 서로 돕는 유무상자(有無相資)를 강력하게 권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술장사와 백정들이 다투어 동학에 뛰어들었다.¹³⁾ 이러한 유무상자의 전통은 후일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 민중 전체의 경제적 처지를 혁명적으로 개혁하려는 경제혁

7) 김태창, 「물질개벽에서 정신개벽으로, 정신개벽에서 생명개벽으로」, 『종교, 생명의 대전환과 큰 적공』, 원광대원불교사상연구원, 모시는 사람들, 2016, 209쪽.

8) 김태창, 같은 글, 206쪽.

9) 이병철, 「내가 걸어온 길에서의 생명운동」, 『종교, 생명의 대전환과 큰 적공』, 원광대원불교사상연구원, 모시는 사람들, 2016, 279-280쪽.

10) 이병철, 281쪽.

11) 황종원은 以天食天의 食을 먹는다는 食(식)이 아닌 먹인다는 사(食)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최시형이 말한 ‘以氣食氣 以天食天 以天奉天’(『海月神師法說』, 『靈符呪文』)에 대해서, “기운으로써 기운을 먹이고, 하늘로써 하늘을 먹이며, 하늘로써 하늘을 받들자”라는 뜻으로 보자는 것이다. 예컨대 하늘같은 포도가 그 기운을 내어주어 하늘같은 인간을 먹인다는 것이다. 즉 하늘같은 포도가 그 기운으로 하늘같은 인간을 받들고 하늘같은 인간을 화생하는 일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황종원, 「최시형의 생태학적 사유와 평화」, 『유교사상문화연구』74, 2018, 12, 62쪽.

12) 이병철, 282쪽.

13) 박맹수, 『생명의 눈으로 보는 동학』, 모시는 사람들, 2015, 232쪽.

명의 중요원리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⁴⁾

또한 동학에서 제시하는 보국안민이나 제폭구민 역시 생명사상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을 제거하여 생명을 원활하게 하는 것 역시 생명운동의 실천이라고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운은 동학창도 당시 보국안민이 필요한 도리를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이러므로 우리 나라는 악질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또한 상해의 운수요,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순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라. 보국 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 ¹⁵⁾

그는 악질이 세상에 가득차서 백성들이 편안할 날이 없고, 서양이 쳐들어와 천하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여, 중국이 망하면 결국 우리나라도 순망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악질로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되면 보국안민의 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하여, 생명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서 생명의 터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향후 동학농민혁명에서 동학농민군이 공정하고 활발한 생명운동을 방해하고 착취하는 반생명적 요소를 타파하고 백성들의 생명활동을 원활하게 하였고, 다시 일본군이 쳐들어와 국토를 유린하자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를 하여 생명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반제국주의 항쟁을 전개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Ⅲ.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생명운동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堂山)에 집결하여 부패한 봉건정부를 공격하면서부터 시작한다. 이들 동학농민군은 3월 16일 무장에서 봉기를 준비한 후, 3월 20일 무장포고문(茂長布告文)을 선포하고 전면봉기하게 된다. 이 무장포고문의 내용은 첫째, 신하된 자들이 녹봉과 지위를 도적질하고 임금의 총명을 가려 언로를 막으니, 조정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없고 지방에는 침탈하는 관리가 대부분이어서 백성들의 마음도 날로 변해간다는 것,¹⁶⁾ 둘째, 백성들이 생업에 즐겨 종사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보호하고 베풀어줄 방책이 없기 때문에 원성이 이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¹⁷⁾

14) 박명수, 같은 글, 233쪽.

15) 『東經大全』 「布德文」, “是故 我國 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 傷害之數也 西洋 戰勝攻取 無事不成而 天下盡滅 亦不無唇亡之歎 輔國安民 計將安出”

16) 『隨錄』, 「茂長縣贍上東學人布告文」, “今之爲臣 不思報國 徒竊祿位 掩蔽聰明 阿意諂容 忠諫之士 謂之妖言 正直之人 謂之匪徒 內無輔國之才 外多瘡民之官”

17) 人民之心 日益渝變 入無樂生之業 出無保施之策 虐政日肆 怨聲相續 君臣之義 父子之倫 上下之分 遂壞而無遺矣

셋째, 관리들의 사리사욕으로 과거 시험장이 물건 파는 시장이 되고, 수령방백들이 국가에 들어가야 할 재화를 사사로이 차지하여 부채가 갈수록 쌓여가는 데도 값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 백성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¹⁸⁾ 넷째,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이므로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어서 보국안민의 도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의엄치를 잃어버린 사대부들의 탐학과 불법으로 자행된 반생명적인 폭력을 제거하여 나라의 근본이 되는 백성들의 삶과 인륜도덕을 구하겠다는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의 주체로 백성들이 우뚝 서겠다는 뜻을 표방한 것이다.¹⁹⁾ 이러한 무장포고문은 외유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밤, 즉 천지자연의 재화가 유한한데,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탐학과 불법이 자행되면, 결과적으로 국가와 백성들이 빈궁하고 인륜도덕이 무너지는 반생명적 현실을 타파하겠다는 것으로서,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내유신령과 외유기화가 합일된 건강한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이후 동학농민혁명은 무장포고문의 내용대로 천덕과 공도의 회복, 분배 정의의 회복을 통해서 건강한 생명질서를 되찾고자 하는 운동이 전개된다.

동학농민군은 무장 포고문을 반포한 이후 고부, 백산 등지로 진군하면서 동학농민군의 행동강령인 4대 명의를와 12개조 군율의 행동방침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재물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둘째, 충효를 둘 다 온전히 하여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셋째, 왜 오랑캐를 축출하여 없애고 성인의 도를 맑게 한다.

넷째, 병사를 몰아 서울에 들어가서 권세 있고 귀한 자들을 모두 없애 버리고, 기강을 크게 떨쳐 명분을 바르게 세워 성인의 가르침에 따른다.²⁰⁾

4대 명의를는 무장포고문에서 제시한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의 도를 제시한 것인데, 사람과 재물을 상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과 충효를 다하고 왜적을 물리치고 권귀를 몰아내고 기강을 수립하라고 하여 생명의 온전한 질서를 회복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이 4대 명의에 제시된 생명을 존중하고 공도를 통해 온전한 생명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다음 기사를 통해 분명해진다.

18) 自公卿以下至方伯守令不念國家之危殆徒竊肥己潤家之計 鈴[銓]選之門視以生貨之路應試之場舉作交易之市 許多貨賂 不納王庫 反先私藏 國有積累之債 不念圖報 驕侈淫昵 無所畏忌 八路魚肉 萬民塗炭 守宰貪虐 良有以也 奈之何 民不窮且困也

19) 民爲國本本削則國殘 不念輔國安民之方策 外設鄉第 惟謀獨全之方徒竊祿位豈可理哉 吾徒 雖草野遺民 食君土服君衣不可坐視國家之危亡八路同心億兆詢議以輔國安民爲死生之誓今日之光景 雖屬驚駭切勿恐動各安其業 共祝昇平日月咸休聖化千萬幸甚

20) 鄭喬, 『大韓季年史』上, 國史編纂委員會, 서울, 1971, 74쪽, “揭以四個名義. 一曰不殺人不殺物, 二曰忠孝雙全濟世安民, 三曰逐滅倭夷澄清聖道, 四曰驅兵入京盡滅權貴, 大振紀綱立定名分, 以從聖訓”

1) 茂長·井邑·靈光·長興·泰仁·玉果 등지에 주둔해 있는 동학도들은 ①매일 陣法을 연습하고 ②밤이면 經文을 독송하였다. 이 6읍 사람은 각각 5·6,000명 정도씩 되는데 무장은 가장 많다. 이 밖에 각 읍에는 50리마다 義旗를 세워 놓았으며, 1,000여 명이 내려가지 않는다. 만일 적과 對陣하였을 때 ③먼저 하얀 布帳을 저으면 관군이 발사한 大砲·小砲 및 銃彈과 鐵丸이 하얀 포장 밖으로 빗발치듯 떨어진다고 한다. 이 장애물 때문에 관군은 언제나 패배를 당한다고 하니 매우 이상한 일이다.²¹⁾
 2) 東道大將은 각 부대장에게 명령을 내려 약속하기를, “①언제나 적을 대할 때는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가장 큰 공으로 삼겠다. ②비록 부득이 싸우더라도 절대 인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러므로 ③언제나 행군할 때는 절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④孝悌忠信한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으면, 그 10리 안에는 주둔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하였다.²²⁾

1)은 동학군들이 ①매일 진법을 익히면서 ②밤에는 경문을 독송하였는데, ③적군이 발사한 총탄이 포장 밖에 떨어지게 되어 매번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문을 독송했다는 것은 동경대전의 시천주 주문을 외움으로써, 동학농민군이 내적인 신령과 외적인 기화가 합일되는 영적인 군대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관군들은 이러한 영적인 군대의 위용에 사기가 저하되어, 백포를 휘두르면 총알이 그 밑에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2)는 동도대장 즉 전봉준이 각 읍의 부대장들에게 전쟁 때나 행군할 때 절대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전쟁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기 위함에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들의 살상이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효제충신의 마을에는 10 밖에 머물게 함으로써, 인륜질서를 중시하여 온전한 생명의 실현을 위한 공도 회복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4대 명의 외에도 동학농민군은 12조의 군율을 제시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지하감옥에 집어넣어야겠다고 하여 동학농민군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12개조 군율은 다음과 같다.

- ① 행복한 사람은 사랑으로 대할 것.
- ② 곤궁한 사람은 구제할 것.
- ③ 탐관은 쫓아낼 것.
- ④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공경하고 복종할 것.
- ⑤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줄 것.
- ⑥ 간교한 사람은 저지시킬 것.
- ⑦ 도주하는 사람은 쫓지 말 것.
- ⑧ 가난한 사람은 賑恤할 것.
- ⑨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제거할 것.

21) 『駐韓日本公使館記錄』1권, 「東學黨ニ關スル續報」, “一 京捕盜廳機校偵探記, 茂長井邑露光長興泰仁玉果屯聚之徒 毎日操鍊陣法 每夜誦讀經文 此六邑人可量爲五十六千名式 茂長尤多 此外各邑五十里許式 各立義旗 不下千餘名 若對陣相敵之時 先揮白布帳 則官軍多發大小砲銃彈鐵丸 紛紛落地於白布之外 以此官軍 每每見敗 甚怪甚怪

22) 같은 글, “東道大將下令於各部隊長約束 曰每於對敵之時 兵不血刃而勝者爲首功 雖不得已戰功 勿傷命爲貴 每於行陣所過之時 功勿害人之物 孝悌忠信人所居村十里內 勿爲屯住”

- ⑩ 반역자는 曉諭할 것.
- ⑪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줄 것.
- ⑫ 不孝한 사람은 처벌할 것.²³⁾

이 열두개 조 군율은 동학농민군이 무장포고문에 나오는 ‘제폭구민’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한 자는 사랑으로 대하고, 곤궁한 사람은 구제하고, 순종한 자는 공경하고 복종하며, 굶주린 사람은 먹을 것을 주고, 도주하는 사람은 쫓지 말고, 가난한 사람은 진휼하도록 하여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할 것과 ‘탐관은 쫓아내고, 간교한 사람은 저지시키고, 충성스럽지 못한 자는 제거하고, 반역자는 효유하도록 하여’ 반생명적 요소를 일체 타파하여 건강한 생명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것이다. .

IV. 동학농민군의 집강소 활동과 생명운동

동학농민군은 전주 점령 이후 청,일 양군이 조선에 진격해옴에 따라, 국토가 전장으로 화할 것을 우려하여 철군할 계획을 하였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초토사 홍계훈에게 폐정개혁안 27개조를 조정에 상주할 것과 동학농민군의 신변보장을 조건으로 철군의 명분으로 삼았는데, 이를 홍계훈이 수용함에 따라 전라관찰사 김학진과 전주화약을 맺고 철군하였다.

먼저 폐정개혁안 27개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대원군의 복권과 국권을 농단하는 중앙 권귀의 척결, 지방수령의 횡포 금지와 탐관오리의 파면과 같은 정치적 요구²⁴⁾ ② 전세, 군포, 환곡 등 삼정과 각종 잡세 징수의 개혁, 오래된 사채의 징수금지와 같은 경제적 요구²⁵⁾ ③보부상, 외국상인, 매관상인 등의 부당한 상행위 및 미곡 무역 금지,²⁶⁾ ④부패한 지방 아전의 처

23) 같은 글, “十二條軍號 降者愛對, 困者救濟, 貪官逐之, 順者敬服, 飢者饋之, 姦猾息之, 走者勿逐, 貧者賑恤, 不忠除之, 逆者曉諭, 病者給藥, 不孝刑之, 右條吾儕之根本若違令者囚之地獄云”

24) ①대원군을 국정에 간여토록 함으로써 민심을 바라는 바대로 할 것 ②* 위로 임금을 옹폐하고 관작을 팔아 국권을 조롱하는 자들을 아울러 축출할 것 ③ 탐관오리들을 아울러 파면시켜 내쫓을 것 ④ 관장이 된 자는 해경(海境)내에 입장(入葬)할 수 없으며 또 논을 거래하지 말 것 ⑤ 각 고을에 원이 내려와 백성이 산지(山地)에 근표(勤標)하고 투장(偷葬)하지 말 것

25) ① 국결(國結)을 더하지 말 것 ②도내 환전(還錢)은 구(舊)감사가 거두어 갔으니 민간에 다시 징수하지 말 것 ③ 동포전(洞布錢)은 매호(每戶) 봄 가을로 2량(兩)씩 정할 것 ④전세(田稅)는 전례에 따를 것 ⑤ 연호(煙戶) 잡역을 줄여 없앨 것 ⑥ 포구의 어염세(魚鹽稅)는 혁파할 것 ⑦ 보세(淤稅)와 관답(官畓)은 시행하지 말 것 ⑧ 각읍시정(市井) 각 물건에의 분전수세(分錢收稅)와 도고명색(都賈名色)을 혁파할 것 ⑨ 백지(白地) 징세와 사전(私田) 진결(陳結)을 거두지 말 것 ⑩ 진고(賑庫)를 혁파할 것 ⑪ 경영병저리료미(京營兵邸吏料米)는 과거의 예에 따라 삭감할 것

26) ① 대동미를 상납한 기간에 각 포구 잠상(潛商,)의 미곡 무역을 금할 것 ② 각국 상인들이 포구에서 장사하고 있으니 도성(都城) 시장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아 무 곳에서나 함부로 행상하는 일을 금하도록 할 것 ③ 보부상인들의 작폐(作弊)를 금할 것

별과 공전한 아전의 선발, 관수품의 매입 27) ⑤전운소, 균전어사, 전보국 등 폐단을 일으키는 각종 기관의 폐지 28) ⑥ 동학교도의 신원²⁹⁾ 등인데, 가장 많은 요구는 ②부당한 조세징수금지 등의 경제적 요구가 11개 조항에 이르며,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각종 기관의 철폐, 보부상, 외국상인, 매관상인의 부당한 상행위나 미곡무역 금지, 탐관오리나 아전들의 횡포 금지 등 농민들의 생존조건을 위협하는 반생명적 요소를 타파하고자 한 것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전라관찰사 김학진과 다음과 같은 전주협약을 맺고 5월 8일 경 전주에서 철수하게 된다.

1. 농민군은 전주성을 다시 관군에게 비워준다.
2. 농민군은 해산하여 본업으로 돌아간다.
3. 관군은 해산하는 농민군을 추격하여 체포하지 않는다.
4.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여 동학교도와 농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킨다.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내어주는 대신 동학농민군은 안전한 철수를 보장받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집강소를 설치하여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후 전라도 53개 주에는 관아에 집강소가 설치되고, 동학도들이 지방행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하기에 이른다. 전주에는 집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大都所)를 두어 전봉준이 수천 명의 동학교도들을 거느리고 금구(金溝)·원평(院坪) 등지를 근거로 하여 전라우도를 호령하였고, 김개남(金開南)은 수만의 동학교도를 거느리고 남원을 근거로 하여 전라좌도를 호령하였다. 각 고을에서는 동학교도가 각 고을(邑)의 집강이 되어 지방의 치안질서는 그들에 의해 유지되기에 이르렀다. 집강소의 장(長)에는 집강 1인을 두고, 지방의 행정기관과 같은 분장 아래 서기·성찰(省察)·집사(執事)·동몽(童蒙) 등의 임원을 두어 행정사무를 맡아 보게 하였다.³⁰⁾ 군수나 현령·현감은 이름뿐으로 형식상 자리에 지나지 않았으며, 서리들은 모두 동학에 입적해야만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 집강소에서는 동학농민군이 제출한 폐정개혁안과 신분해방운동을 중심으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오지영은 『동학사』에서 폐정개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① 도인과 정부 사이에는 宿嫌을 蕩滌하고 庶政을 협력할 것

27) ①각읍 아전 자리를 돈으로 임명하지 말고 쓸 만한 사람을 택할 것 ② 각읍 이속들이 천금(千金)을 축냈으면 그 자를 처형하고 친족에게 징수치 말 것 ③ 각읍 관아에 필요로 하는 물종(物種)은 시가(時價)에 따라 사서 쓰도록 할 것

28) ① 전운소(轉運所)를 혁파(革罷)할 것 ② 균전어사(均田御史)를 혁파할 것 ③ 전보국(電報局)이 민간에 대해 폐해가 크니 혁파할 것

29) 동학교도를 무고히 살육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동학과 관련돼 가두어진 이는 일일이 신원할 것

30)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3, 209-213쪽

- ②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査得하여 일일 엄징할 것
- ③ 횡포한 부호배는 엄징할 것
- ④ 불량한 유림과 양반배는 懲罰할 것
- ⑤ 노비문서는 燒祛할 것
- ⑥ 七班賤人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 頭上에 平涼笠은 탈거할 것
- ⑦ 청춘과부는 개가를 허락할 것
- ⑧ 무명잡세는 一竝勿施할 것
- ⑨ 관리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 ⑩ 왜와 간통한자는 엄징할 것
- ⑪ 공사채를 물론하고 이왕의 것을 모두 勿施할 것
- ⑫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할 것

집강소 시기에 동학도인과 정부가 상호협력한다는 원칙적 조항 이외에 신분해방에 관한 것이 양반제도 폐지, 노비제도 폐지, 천민제도(신랑역천, 칠반천인) 폐지, 과부개가 금지제도 폐지, 관리채용의 지역, 신분을 타파한 인재의 등용 등 여섯 개 항목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신분해방의 폐지는 공평한 생명활동을 왜곡시켰던 봉건신분제도를 폐지시키려고 했던 동학농민군의 강력한 의지와 목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³¹⁾

이 시기에는 탐학한 지방수령이나 양반, 아전들이 동학농민군에 의해 철저히 징계를 받았다. 고부민란의 단서를 제공한 전운사(轉運使) 조필영(趙弼永)은 함열에서 집강소의 농민군에 생포되어 조필영이 토색한 수천금을 함께 꺼내놓고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으며, 밤에는 발가벗기어 돼지우리에 가두었다. 조필영이 옥구현감으로 있었던 아들 조병중의 도움으로 집강소를 탈출하자, 분개한 농민들은 아버지의 선정비를 세운 적이 있는 조병중을 잡아다가 주리를 틀고 내보냈으므로 조병중도 관아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또한 김개남의 농민군은 탐학한 관리인 순천부사 이수홍(李秀弘)과 고부군수 양성환(梁性煥)에게 곤장을 쳐서 징계하였다.³²⁾ 이처럼 동학농민군들이 탐관오리를 징계하였기 탐관오리의 작폐가 철저히 소멸하였다. 또한 집강소에서는 철저히 신분해방을 단행하였는데, 매천 황현은 다음과 같이 그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적당(동학농민군)은 모두 천인 노예이므로 양반, 사족을 가장 증오하였다. 그래서 양반을 나타내는 뽕쪽관을 쓴 자를 만나면 곧 바로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도 역시 양반인가’하고 관을 벗기어 빼앗아 버리거나 또는 그 관을 자기가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양반을 욕주었다.

무릇 집안의 노비로서 도적들을 따르는 자는 물론이요, 비록 도적들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 지라도 모두 지극히 천한 자가 주인을 위협 강제하여 노비문건을 불사르고 良人이 됨을 강제로 승인케 하거나 또는 그 주인을 결박하여 주리를 틀고 곤장과 매를 치기도 하였다. 이에 노비를 가진 자들은 소리만 듣고도 노비문권을 불살라서 그 화를 덜었다. 노비로서 삼가는 자가 불사르지 말기를 원

31)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214쪽.

32) 같은 책, 216쪽

하는 경우에도 기염이 널리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어서 주인이 이를 두려워하였다.

혹은 노비와 사족의 주인이 함께 도적을 따르는 경우에도 서로 接長이라 칭하면서 그들의 법을 따랐다. 백정, 재인 등속의 무리도 역시 평민, 사족과 평등하게 같이 예를 했으므로 사람들이 더욱 치를 떨었다. 33)

집강소에서는 양반신분제도를 부정하고 노비해방을 단행하여 양반이나 노비를 동등하게 대우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수 백년 동안 왜곡된 신분구조를 타파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공정한 생명질서를 이루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전라도의 집강소 활동은 멀리 영남에까지 미치었다. 1894년 8월 1일 경남 고성에서는 아전들의 포효으로 민란이 발생하였는데, 고성군수 오횡묵(吳弘默)은 『고성총쇄록(固城叢鎖錄)』을 남겨서 그 사건의 전후 과정을 일기로 남기었다. 오횡묵은 민란의 원인이 수천냥에 달하는 공전을 아전들이 무리하게 거두는 과정에서 소요가 일어났음을 알고 아전들을 엄하게 다스려 민란을 해소시켰다. 이 때 8월 6일에는 하동의 동학도 최학봉이 고성군 관아에 찾아와 군수와 민란의 원인을 조사하게 된다.34) 최학봉은 고성군수 오횡묵에게 같이 물었다.

“하동에 사는 최학봉인데 남원 전봉준 접소(全捧準接所)의 공문을 가지고 각 고을의 정치를 염탐하고 살피는 일을 하기 위해 6월 그믐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고을을 두루 다니는 차에 들으니 고성에도 민간 소요가 있었다 하므로 급히 찾아 왔습니다. 지금 원님을 보니 나이와 덕망이 함께 노숙하시니 다스리는 체통을 통달하신 듯 하온데 어찌해서 민간 소요의 지경에 이르시었습니까?”

하는 것이다. 이에 오횡묵은

“참으로 실수한 일이 없으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대저 염탐이란 반드시 마을 사이의 여론에서 들어야 바야흐로 실제의 정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본인에게 직접 물으니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자기의 허물은 알지 못하는 것이니 바깥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도인의 선물이 나로 하여금 허물을 고치게 하는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여 동학도가 직접와서 묻는 것은 염탐하는 도리에 맞지 않고, 한 번 들은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허물을 묻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공문의 존재에 대해서 물었다.

33) 『오하기문』 2필 97쪽. “賊黨皆賤人奴隸 故最惡兩班士族 遇着鬚冠者 輒詬 曰汝亦兩班乎 奪而裂之 或自戴之 橫行市里 以辱之 凡人家奴婢從賊者 勿論 雖不從賊 皆句賊劫主燒口券 勒使從良 或縛其主而 周牢棍笞之 於是 有奴婢者 望風燒券 以紓其禍 其淳謹 或願勿燒然氣焰廣張 主益畏之 或士族而奴主俱從賊者 互稱 接長以從其法 屠漢才人之屬亦與平民士族抗禮 人尤切齒 孫化中在右道聚屠漢才人驛夫治匠僧徒平日最賤之流 別設 一接 獐悍無前人 尤畏之”

34) 이하 고성군의 내용은 오횡묵 저(이성우 국역), 『固城叢鎖錄』, 固城文化院 2007, 1894.8월 기사 참조.

도인께서는 공문을 가지고 두루 다닌다고 하니 매우 의혹스럽습니다. 남원부에 무슨 새로 만들어진 接所라도 있는 것입니까. 한번 그 공문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도인은 공문을 내보이니 공문에 대저 수령들의 정치와 민간토호들을 염탐 사찰하는 일과 이달 15일에 영남의 각 접소들은 모두 의령 백곡촌에서 모여 사찰한 바 폐단을 다시 시정하자는 등의 말이였다. 당시 영남에서는 전봉준이 작성한 공문을 가지고 동학도인들이 수령과 민간토호를 염탐하였으며, 각 접소에서의 폐단을 의령 백곡촌에서 도인들이 모여 폐단을 시정할 대책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오횡목은

“印章을 부쳐야 공문이라 하는 것인데, 이 문서에는 인장이 없으니 이는 通文이라 해야 하고 공문이라 함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연의 뜻이 부패한 풍속을 떨치고 무너진 기강을 정돈하는 바램이 있으니 그렇다면 나와 같이 민간 소요를 만난 사람은 장차 모두 모이는 날 퇴출을 당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지금 도인을 만났으니 우선 도력을 베풀어 사람을 방황하는 속에서 구제하고 나갈 길을 보여주어 논죄하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삭감해 주게 한다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공문에 인장이 없는 것을 탓하였으나, 동학도인에게 8월 15일 의령 백곡촌에서 수령들의 죄상을 논할 때 삭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동학도인은

염탐 사찰하는 사람은 마땅히 원님을 뵙자는 청을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바깥에서 탐문해보니 오로지 지난날의 쌓인 폐단에서 연유하였으며, 이 현명한 원님이 개혁하는 계획에는 원님의 잘못은 조금도 없기에 뵙자고 한 것입니다.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고을에 부임한 후로 인자한 정사와 은혜로운 덕책이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의 입에 퍼져 있으니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모든 우리 도인들의 약속은 혹시라도 잘 다스리는 수령을 만나면 반드시 술을 권하면서 치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들어와 뵙는 것입니다. 서로 대해보니 풍채에 나타나고 여론에서 들어본 즉 참으로 백성을 기르는 산부처이십니다.

하여 동학도인들이 지방행정의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오횡목이 어진 정사를 펼치고 덕을 베풀자 오횡목이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이후 고성군에는 8월 16일 함안 신당의 이을정과 금구에 사는 한현교라는 두 명의 동학도인이 찾아와서 민간인 소송의 잘못을 따진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때 오횡목이 오히려 선정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고 한현교는 동학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저 우리 도인들은 지금 보국안민으로 책임을 삼고, 수령들의 잘잘못과 토호들의 황포도 사찰하고 격려함도 그 중에 포함됩니다. 근일에 들으니 이 고을에도 민간 소요의 사실이 있다해서 실상을 탐사학 폐단을 교정하고자 한편으로는 ”포를 일으키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시켜 수사하니, 최도

인이 한번 다녀온 후로 어진 소문과 성대한 치적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인들이 각처에서 두목이 된 자들도 모두 영감의 당한 바는 횡포에서 온 것이지 애초에 폐단이 없었음을 알고 있으며, 또한 각처의 도인들이 영감에게 감동이 있는 것은 근일에 영문에서 동학을 섬멸하라는 공문이 있었는데, 영감도 관례에 따라 전령하면서 그 사연에 “동학이니 도인이니 하는데 학 또는 도 글자가 매우 좋은데 어찌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도인이라고 명칭하는 사람이 경내에 들어오거든 반 이상 알 수 있다. 자취가 허망하면서 도인이라고 빙자하고 침공하는 일만 자행하여 타이름을 듣지 않은 연후에 잡아 올리고, 도인의 명칭에 부족함이 없는 자는 반드시 관대하고 보호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하는데 과연 맞습니까.”라고 하니, 내(오형묵)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도인들이 보국안민의 책임을 삼고 수령의 잘못과 토호들의 횡포를 시찰하였는데, 오형묵은 폐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인을 존대하고 높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인이라고 하여 침공하는 일만 저지른 자는 타이르되 말을 듣지 않으면 잡아 올렸다는 것이다. 집강소 도인들의 횡포에 대해서 이미 전봉준이 7월 6일 전라도 관찰사 김학진을 대면한 자리에서 집강소의 엄정한 운영을 약속하고 각 처의 집강소에 통지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 우리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오로지 백성들을 위하여 폐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므로 저 교묘하게 속이고 못된 짓을 하는 무리들이 함부로 설치며 백성들을 괴롭히고 마을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비록 하찮은 의혹이나 잘못이라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라. 이들은 바로 덕을 배반하고 선을 해치는 무리들 뿐이니 각 읍의 집강들은 명확히 살피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³⁵⁾

동학도인의 활동은 오로지 백성들을 위하여 폐해를 없애는 것인데, 그 틈을 타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인의 경우는 철저히 조사하여 응징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집강소는 운영 과정에서도 부패한 도인들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지나친 권력 남용으로 부패할 수 있는 요소를 척결하고, 공도에 입각한 생명운동의 실천에 노력하였던 것이다.

V. 맺음말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던 생명운동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기에 일본군을 앞세운 관군의 토벌로 왜곡되어간다.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다는 명분하에 한반도에 불법 상륙하여 경북궁을 점령하고, 조선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친일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청군을 몰아내고 국토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생명의 터전이었던 국토가 더 이상 유린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일본군,

35) 황현, 『오하기문』2필, 7월 6일조.

관군, 양반 민보군 등에 의해 철저히 학살되고 그 이념이 부정됨으로써 이 땅에 공정하고 평등한 도의의 실천속에 영적인 생명력을 넘치게 하고자 하였던 생명운동이 왜곡되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학동민혁명의 생명의 이념은 부패와 타락이 아닌 도의의 시대,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시대,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모든 존재를 하늘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시대, 인간의 영성과 우주의 기화가 합일되는 개벽의 시대를 열게 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이후 1919년 3.1운동,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10월 촛불혁명으로 계승되었으며, 오늘날 민주공화국 체제하에서 시민사회가 활짝 꽃을 피워 다양한 방면에서 생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정치, 인권, 여성, 통일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자유롭고 억눌림없는 생명의 소통과 실현이 개인과 사회,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 전 지구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주제발표 2]

동학농민혁명과 지역화합 및 민족통일

신진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사

차 례

- I. 머리말
- II. 지역을 넘나들었던 동학농민군 지도부
 - 1. 출신지와 활동지가 다른 동학농민군 지도자들
 - 2. 각 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한 접주들
- III. 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 (지역별 분류)
 - 1. 2곳 이상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 2. 지역별 분류
- IV. 맺음말 : 지역화합과 민족통일

I. 머리말

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탈산업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장기간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형성된 사회 하층계급이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사회분리가 고착화되어 감에 따라 갈등을 넘어 사회통합을 이끌어 갈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각에 따라 사회통합기구가 생겨났는데, 대표적으로 DCLG(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가 그것이다.¹⁾ 지역 갈등은 차이보다 상호 교류가 중요하고, 지역사회가 교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

인류는 역사상 갈등에서 비롯한 수많은 분열과 대립을 겪었고 이를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도약의 바탕을 마련해 왔다. 동학·동학농민혁명 역시 마찬가지다. 동학은 수많은 분열

1)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pcnc11/220987707292>).

과 대립이라는 대내외적인 문제로 혼란한 상황에서 儒·佛·仙을 통합하여 새로운 사상으로 도약하였다. 따라서 현재 관련 연구도 생명사상 등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²⁾

이러한 연구 외에도 각 지역 동학농민군과 이들을 진압했던 세력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군현 단위로 활동한 동학농민군과 그 진압 세력에 대한 연구이다.³⁾ 군현 단위에서 분열과 대립, 그리고 해결과정을 살필 수 있다. 군현 단위를 중심으로 동학농민군과 그 진압세력을 연구하여 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이나 진압세력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었다. 하지만 군현 단위 내에서의 활동으로만 파악하고 군현 단위, 특히 道 단위를 넘나들었던 동학농민군들의 활동을 살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나아가 이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화합의 역사적 사례를 도출하여 민족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주제인 「동학농민혁명과 지역화합 및 민족통일」은 동학농민혁명 속에 나타난 지역화합의 사례를 자세히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민족통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동학농민혁명 속 지역화합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⁴⁾ 이에 따라 군현 단위를 넘어 道 단위를 넘나들었던 동학농민군 지도부의 인물들과 참여자들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들의 광범위한 활동 범위는

-
- 2) 동학사상을 새롭게 해석한 연구는 다양하다. 최근 연구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극훈, 「동학의 유토 피아적 개혁사상」, 『동학학보』56, 동학학회, 2020; 김영철, 「동학사상에 내재된 네오휴머니티」, 『동학학보』56, 동학학회, 2020; 신진식, 「살림공동체 사상에 대한 試論: 동학의 살림사상을 중심으로」, 『공자학』41, 한국공자학회, 2020; 조극훈, 「동학의 생명사상과 실천윤리」, 『동학학보』54, 동학학회, 2020; 한경희, 「김지하 생명시에 나타난 동학사상: 『유묵과 은둔』을 중심으로」, 『동학학보』53, 동학학회, 2019; 최민자, 「포스트 물질주의 과학과 동학의 사상적 근친성에 대한 연구」, 『동학학보』53, 동학학회, 2019; 황묘희, 「여주 동학인 흥병기의 동학사상 실현과 민족운동의 전개」, 『동학학보』53, 동학학회, 2019; 조극훈, 「동학의 민주 평화 통일 사상과 여주의 정신」, 『동학학보』53, 동학학회, 2019; 김성실, 「동학의 평화사상에 관한 일고찰」, 『대구경북연구』18, 2019; 안효성, 「동학의 토착적 근대성과 생명평화사상」,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81,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9; 방범호, 「东学思想的再思考: 东西方思想的“融合”与“超越”」, 『동학학보』52, 동학학회, 2019; 박길수, 「동학·천도교의 개혁사상과 개혁운동: 의암 손병희의 인물 개혁론과 현대적 계승을 중심으로」, 『한국종교』46,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9 등 다수.
- 3) 임형진, 「옥천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청산기포’의 의의」, 『동학학보』56, 2020; 성강현, 「옥천지역의 동학의 전파와 확산」, 『동학학보』56, 2020; 정을경, 「옥천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진압군 활동: 『갑오군정실기』 기록을 중심으로」, 『동학학보』56, 2020; 김중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특징」, 『동학학보』51, 2019; 김중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특징」, 『동학학보』51, 2019; 조규태, 「원주지역의 동학 포교와 원주 출신 동학인의 동학농민운동」, 『동학학보』49, 2018; 이병규, 「원주지역 동학농민군과 의병」, 『동학학보』49, 2018; 흥동현, 「강진지역 동학농민전쟁의 지역적 특성과 『경세유표』 전래설」, 『역사와실학』67, 2018; 이영호, 「충청남도 서남부 지역의 東學餘黨과 서양종교」, 『역사와 담론』88, 2018; 김양식, 「조선·일본군의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 연구」, 『군사』103, 2017; 흥동현, 「고흥지역의 민족운동과 1894년 동학농민전쟁」, 『남도문화연구』35, 2018; 조성운, 「부안지역의 동학농민운동과 백산대회」, 『역사와실학』61, 2016; 흥동현, 「1894년 강진지역 동학농민전쟁과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다산과 현대』8, 2016; 채길순, 「김천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동학학보』41, 2016; 조규태,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김산·개령·지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41, 2016;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 등 다수.
- 4) 동학과 통일을 주제어로 검색을 하면, 임형진, 「동학사상과 민족통일운동의 방향」, 『동학학보』36, 2015; 임형진, 「동학과 민족통일이념」, 『동학학보』6, 2013; 임형진, 「동학의 민족통일론 연구: 동귀일체 통일론」, 『동학학보』20, 2010 등이 연구물로 찾아진다.

교유관계와 포접제 등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⁵⁾ 다만 얼마나 되는 인물들이 군현, 道를 넘나들면서 활동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현 단위가 아니라 도 단위로 동학농민군이 넘나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 이 작업에 도움을 받은 웹사이트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홈페이지(<http://www.1894.or.kr>)이다. 여기에는 동학의 주요인물인 최제우, 최시형, 손병희, 박인호 등을 소개하고, 동학농민혁명 5대 장군으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최경선을 소개하였다. 그 뒤를 이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86명을 소개하였다(2021년 1월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이름, 참여내용, 참여지역, 출생과 사망 연월일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들 참여자 3,686명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강원도 76명, 경기도 97명, 경상도 232명, 전라도 2,131명, 충청도 1,199명, 평안도 2명, 함경도 1명, 황해도 113명, 미상 12명 등이다. 이를 합산하면 3,863명인데, 참여자 수보다 177명 더 많다. 이는 2곳 이상의 도에서 활동한 인물이 중복 합산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곧 도를 넘나들었던 인물의 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작업을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인물들의 활동지역을 확인하였다. 이 작업에서 176명이나 되는 인물들이 도를 넘나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 설명하겠지만 3도를 넘나들면서 활동한 인물이 있어서 177명이 아니라 176명으로 합산되었다.

다음으로 도를 넘나든 동학농민군이 지도부에 속하였는지 직접 활동에 나섰던 참여자였는지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동학농민군 가운데 출신도와 활동도가 다른 경우도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작업이지만 동학농민군의 지역교류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직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데이터이므로 한 번 짚은 정리해야 할 작업일 듯하다.

II. 지역을 넘나들었던 동학농민군 지도부

1. 출신지와 활동지가 다른 동학농민군 지도자들

동학농민군 지도부의 인물들은 출신지역과 활동지역이 서로 다르기도 했다. 전라도 출신 **김**

5) 포접제에 관련된 연구는 이희근, 「1894년 동학교단의 포접제」, 『사학지』30, 단국사학회, 1997; 이병민, 「종교지식의 관점에서 본 동학의 성격과 영향력 연구」, 『인문사회 21』11,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조성운, 「동학과 동학농민운동의 관계: 포접제와 관련하여」, 『역사와 교육』19, 역사와교육학회(구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2014; 박맹수, 「동학계 신종교의 사회운동사」, 『한국종교』38,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5; 김양식, 「동학농민군의 저항문화와 상징」, 『역사연구』35, 역사학연구소, 2018; 백승중, 『동학에서 미래를 배운다』, 들녘, 2019 등 다수가 있다.

仁培는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활동했고, 경상도 출신인 李相玉은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활동했다. 강원도 출신인 崔孟淳은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서울 출신인 洪珞寬은 전라도 지역에서, 경기도 출신인 徐章玉은 충청·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다.⁶⁾

<표1> 출신지와 활동지가 다른 동학농민군 지도자들(5명)

번호	이름	출신지	활동지
1	金仁培(1870~1894)	전라도	경상도
2	徐章玉(1852~1900)	경기도/충청도	충청·전라도
3	李相玉(李尙玉, 1868~1912)	경상도	경기·충청도
4	崔孟淳(1852~1894)	강원도	경상도
5	洪珞寬(1850~1918)	서울(한양)	전라도

김인배(1870~1894)는 전라북도 금구현(김제군 봉남면 화봉리)에서 태어나 동향 출신 김덕명과 함께 고부 무장봉기부터 참여했다. 이후 영호대접주가 되어 순천·광양·하동·진주로 진출하여 영호남 일대를 통할하며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894년 12월 7일 효수되었다.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과 경상남도를 오가면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장옥(徐仁周, 一海, 1852~1900)은 경기도 수원 출신 혹은 충청도 청주 출신이라고 한다.⁷⁾ 그는 최제우가 남원 은적암에 은둔하는 동안 만난 童僧으로 1888년 동학에 입교하였다. 전라도의 孫華仲·金開南·金德明·全琫準 등을 제자로 거느린 동학농민군 세력을 구축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900년 청주에서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이상옥(李尙玉, 1868~1912)은 경상도 상주 출신으로 충청도 충주에서 동학농민군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1898년 한성에 수감되었던 인물이다. 수감 당시 경기도 이천에 거주했다고 한다.⁸⁾ 그 뒤 손병희와 함께 일본으로 망명하여 포교활동을 벌였다. 그는 1904년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한 進歩會를 조직하고 12월 一進會로 통합하여 13도 총회장으로 취임한 李容九로,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이다.

최맹순(1852~1894)은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옹기 장수로 변장한 관동수접주였다. 1894년 3월 경상도 예천군 소야에서 접소를 설치하고 활동하다가⁹⁾ 1894년 11월 21일 문경 벌천에서 체포되어 다음날 처형되었다.¹⁰⁾ 그의 아들인 崔汗杰(?~1894)은 아버지 최맹순과 활동하다가

6) 이이화, 「지도부는 이렇게 형성되고 통합하였다」,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편), 서경문화사, 1997, 14쪽.

7) 「判決宣告書原本」 1899.08.16.(양 1899.09.20.)에서는 서장옥이 충북 청주 출신으로 나온다.

8) 「경기재판소 판사 김영덕(金永億) 질품서 1898년 5월 1일 제1호」, 『司法稟報』.

9) 반재원, 『甲午斥邪錄』.

10) 벌천은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벌천계곡을 말하는 듯하다. 이 계곡 하류에는 지방문화재 제227호인 封山標石이 있다.

같은 날 체포되고, 같은 날 함께 처형되었다.¹¹⁾

홍낙관(1850~1918)은 손화중包에서 광대부대의 대장이었던 인물이며, 호적에는 洪鍾謹으로 기재되어 있다.¹²⁾ “손화중이 전라우도 지방의 백정·재인·역부·대장장이·승려 등 평상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을 모아서 별도 한 부대를 만들었다.”¹³⁾ 이들 가운데 동학농민군 우두머리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홍낙관이었다. 그는 자칭 大成首接主라고 하였다.¹⁴⁾ 아버지는 洪孟哲(1830~1894)인데, 그는 先鋒隊長으로 활동하였다.¹⁵⁾ 동생 洪應觀·洪桂觀(~1910), 從弟 洪汗觀은 각각 접주로 활동하였다.¹⁶⁾ 그들은 茂長·新村 등에서 일어났고 백산·황룡·완주 등의 전투에서 활약하였으며, 고부·고창·무장·남평 등 읍의 군기를 취하였다. 또 旗에는 ‘大成脫劫 北海回運’이라고 썼다.¹⁷⁾ 홍맹철과 그의 아들 홍낙관·홍계관은 동학농민혁명 후인 1898년 고부·흥덕·무장·고창 일대 영학당 활동에도 참여했다.

본문에서 출신지와 활동지가 달랐던 동학농민군 지도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포접조직 아래에서 교류하여 토대를 형성하고 다시 동학의 영향력을 키운 상태에서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학사상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옹기장수처럼 변장하여 다니면서 동학을 퍼뜨렸으리라 짐작된다.

2. 각 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한 접주들

1) 도를 넘나들었던 접주들

동학농민군 지도부에는 접주들도 포함된다. 출신지를 넘어서 다른 도에서 활동한 지도부도 있었듯이, 각 도를 넘나들며 활동한 접주들도 많다. 원래 접주는 각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와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들의 앞에서 무리를 만들어 지도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동학조직 내 접주는 교구(포교소)인 接所의 책임자를 칭한다. 이들은 각 접소의 동학도들을 관할하고 신입 도인에 대한 講道 등 포교활동을 주로 담당하였다. 따라서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면서 각 지역을 넘나들었다. 도를 넘나들면서 활동한 접주들을 정리하여 보면 <표2>와 같다.

11) 신영우, 「갑오농민전쟁과 영남 보수 세력의 대응」, 연세대 박사논문, 1992.

12) 손태도, 「동학농민혁명과 광대집단의 활동: 홍낙관, 홍계관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53, 2017 참조. 손태도는 홍맹철과 그의 아들 홍낙관·홍계관을 전라도 고창인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이화는 홍낙관이 서울 사람이고 홍계관·홍동관과 형제간으로 추측하였다(이이화, 「동학 인물 열전 17 홍낙관(1850~?)」, 《한계례》 1994년 1월 4일자 9면 참조).

13) 황현 저, 김증익 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231쪽(손태도, 「동학농민혁명과 광대집단의 활동: 홍낙관, 홍계관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53, 2017, 233쪽 재인용).

14) 규장각 소장, 『牒報』(奎26300), 1895, 3면. 홍낙관의 이름이 洪樂觀으로 표기되었다.

15) 규장각 소장, 『牒報』(奎26300), 1895, 3면.

16) 손태도, 「동학농민혁명과 광대집단의 활동: 홍낙관, 홍계관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53, 2017 참조 ; 규장각 소장, 『牒報』(奎26300), 1895, 3면. 홍계관의 이름은 洪季觀으로 표기되었다.

17) 규장각 소장, 『牒報』(奎26300), 1895, 3면 ; 손태도, 「동학농민혁명과 광대집단의 활동: 홍낙관, 홍계관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53, 2017, 234쪽.

<표2> 활동지역(도)과 접주(총 29명)

활동지역(도)	활동접주(명)	활동지역(도)	활동접주(명)	활동지역(도)	활동접주(명)
충청, 전라	13	전라, 경상	4	강원, 충청	1
충청, 경상	7	경기, 충청	3	강원, 경기	1

<표2>에서 살펴보았듯이 道를 넘나들며 활동한 접주의 수는 총 29명이다. 충청도와 전라도를 종횡무진하면서 활동한 접주가 13명이고, 다음으로 충청도와 경상도를 넘나들며 활동한 접주가 7명이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다니면서 활동한 접주가 4명이다. 이처럼 下三道에서 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한 접주는 24명으로, 약 82.7%를 차지하였다. 접주의 인원이 많은 지역부터 살펴보자.

2) 충청·전라도를 넘나들며 활동한 접주

도를 넘나들며 활동한 접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접주가 활동했던 곳은 충청·전라도이다. 이곳에서 활약한 접주 13명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활약한 접주들(13명)

번호	이름	직함	활동지_충청, 전라
1	高德賢	접주	옥천(충청), 금산(전라)
2	高遠行	접사	옥천(충청), 금산(전라)
3	金基成	접주	전주·삼례(전라), 논산(충청)
4	金元叔(~1894)	여산부사, 대접주	여산(전라), 공주·논산(충청)
5	朴致卿	대접주	여산(전라), 공주·논산(충청)
6	徐永道	접주	전주·삼례(전라), 논산(충청)
7	宋昌烈	접주	삼례(전라), 논산(충청)
8	安奎馥	湖左都接主	보성(전라), 청주(충청)
9	劉壽德(劉水德)	접주	흥성(충청), 광양·전주(전라)
10	李寬奉	접주	영동·옥천(충청), 금산(전라)
11	李判石	접주	영동·옥천(충청), 금산(전라)
12	張吳鎭(1871~1949)	접주	논산(충청), 영광·장성·금구(전라)
13	趙在璧	접주	황간(충청), 진산(전라)

고덕현(접주), 고원행(접사) 등은 高敬一과 함께 충청도 옥천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전라도 금산을 공격하였다.¹⁸⁾ 1895년 1월 9일 충청도 옥천 오정동에서 붙잡혀 처형되었다.¹⁹⁾

18) 당시 금산은 전라도에 속하였으나 1963년 1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충남으로 편입되었다(법률 제 1172호).

충청도 옥천과 전라도 금산(현 충북 옥천)의 거리는 28.9km이다.

김기성(접주)은 閔泳軫, 具昌根과 함께 1894년 5월 전라도 전주에서 집강소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0월 논산·삼례전투에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다.²⁰⁾ 김기성과 유사하게 활동한 인물들이 많은데, 宋德仁 등과 함께 활동한 송창렬(접주)을 들 수 있다. 송창렬은 전주에서 활동하지 않았을 뿐 집강소 활동이나 논산·삼례전투 참여 등 김기성과 유사한 활동양상을 보인다.²¹⁾ 전주와 삼례의 거리는 13.5km이고, 삼례와 논산의 거리는 35.5km이다. 전주에서 삼례를 거쳐 논산까지 이르는 거리는 약 49km다.

김원숙(~1894)은 여산부사 겸 대접주로, 박치경은 대접주로서 金京三 등과 함께 1894년 전라도 여산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고 집강소 활동을 펼쳤다. 11월 충청도 공주 및 논산에서 경군과 전투 중 동학농민군 지도부와의 충돌로 사망하였다.²²⁾ 공주와 논산의 거리는 37.7km이고, 논산과 여산의 거리는 15.6km이다. 전라도 여산과 충청도 논산의 거리보다 충청도 내 논산과 공주의 거리가 더 멀다.

서영도는 접주로서 1894년 4월 전주 점령에 참여하였다. 5월 그는 집강소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0월 충청도 논산, 전라도 삼례전투에 참여하였다.²³⁾ 전주와 삼례의 거리는 13.5km이고, 삼례와 논산의 거리는 35.5km이다. 전주에서 삼례를 거쳐 논산까지 거리는 약 49km다. 김기성의 활동과는 달리 그는 4월 전주 점령부터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으며, 그곳에서 집강소 활동을 전개하다가 논산·삼례전투에도 함께 하였다.

안규복은 湖左都接主로서 전라도 보성에서 활동하였다. 1894년 10월 그는 김개남과 함께 충청도 청주를 공격하다가 12월 22일 전라도 낙안에서 수성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되었다.²⁴⁾ 보성과 청주의 거리는 273.6km이다. 이것도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를 다닌다면 301.5km이다. 보성에서 활동하던 그는 김개남과 함께 300km가 떨어진 청주를 공격하였다가 다시 순천의 낙안으로 와서 잡혔다.

1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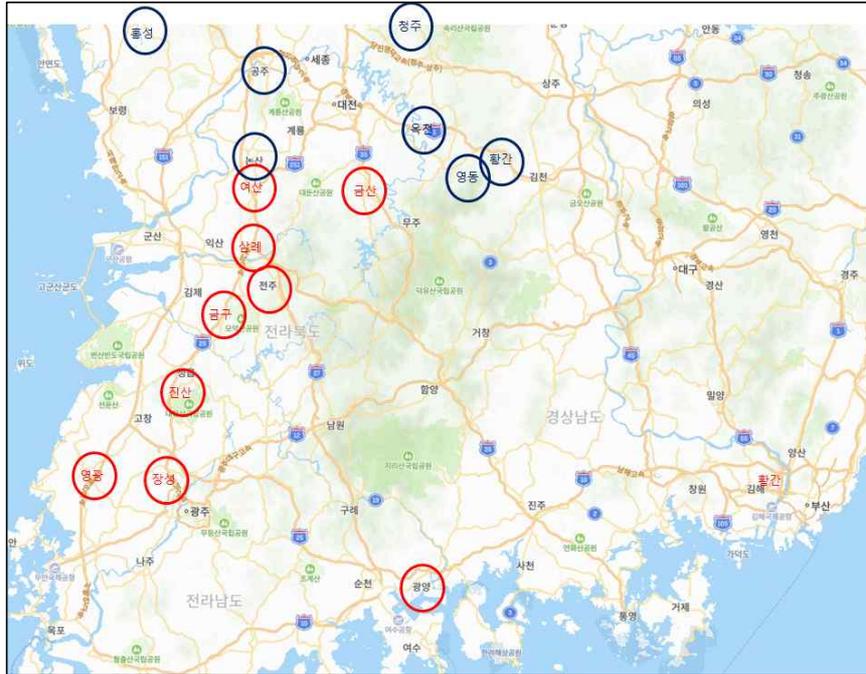
2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21) 「檄文」, 『東學史(草稿本)』; 「第二編 海月神師」, 『天道教書』.

2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2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2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접주들 활동지역(파란색은 충청도, 빨간색은 전라도)

유수덕(劉水德)은 접주로서 1894년 전라도 광양에서 동학농민군에 들어가 전주 점령에 참여하였다. 충청도 홍성 전투에서 패한 뒤 체포되어 전라도 조성으로 압송되었다가 죽임을 당하였다.²⁵⁾ 전라남도 광양에서 전라북도 전주까지 거리는 136.5km이다. 1894년 4월 전주 점령을 위해 먼 길을 마다치 않았다. 전주에서 홍성까지 거리는 141.6km, 홍성에서 전라도 조성(보성군 조성면)까지 거리는 299km에 이른다. 접주 가운데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인물이다.

이관석(접주), 이관봉(접주) 등은 충청도 영동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전라도 금산을 공격하였으며, 1895년 1월 9일 충청도 옥천 오정동에서 붙잡혀 처형되었다.²⁶⁾ 영동과 금산의 거리는 38.6km이고, 금산과 옥천의 거리는 28.6km이다. 영동에서 금산을 거쳐 옥천까지 거리는 67.2km였다.

장호진(1871~1949)은 1894년 영광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 전 시기에 걸쳐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전라도 장성과 금구는 물론 충청도 논산에서 활동한 인물이다.²⁷⁾ 전라도 영광접주로 활동하던 장호진은 장성과 금구에서도 활동하였는데, 영광에서 장성과 금구를 거쳐 논산까지 거리는 약 166.4km이다.

조재벽(趙 敬菴)은 충청도 황간 출신 접주로서, 1894년 1월 옥천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으며,²⁸⁾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진산에서 동학농민군을 일으킨 기록도 있다.²⁹⁾ 10월 해월

2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2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2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28) 「第十一章 甲午敎厄(1894.01.05)」, 『侍天敎宗釋史 第二編 下』.

최시형이 황간을 경유해서 상주로 옮겨갈 때 문암(청주시 흥덕구 문암동)의 거처를 소개한 인물이요, 1897년 4월 제자로서 최시형과 함께 한 기록이 남아 있다.³⁰⁾ 황간에서 진산(정읍시 진산)까지 163.6km, 황간에서 옥천까지 거리는 45.9km이다. 황간과 문암의 거리는 약 89.7km다.

3) 충청·경상도를 넘나들며 활동한 접주

충청·전라도 다음으로 많은 접주들이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활동하였다. 총 7명이 검색되어 이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활동한 접주들(7명)

번호	이름	직함	활동지_충청, 경상
1	權秉憲	접주	상주(경상), 보은·청주(충청)
2	金民伊(~1894)	접주	보은(충청), 상주(경상)
3	金子仙(金子先, ~1894)	대접주	청주·공주(충청), 상주(경상)
4	金顯榮(1849~?)	대접주	상주(경상), 보은(충청)
5	元性八(~1894)	지도자	보은(충청), 상주(경상)
6	李公益	접주	보은(충청), 상주(경상)
7	鄭千汝	접주	보은(충청), 상주(경상)

권병덕은 1886년 봄 입도하였다.³¹⁾ 1893년 2월 교조신원운동에 교인으로 참여하였다.³²⁾ 접주로서 1894년 10월 청주에 포를 일으킨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³³⁾ 경상도 상주, 충청도 보은·청주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³⁴⁾

金民伊(~1894, 접주), 元性八(~1894, 동학농민군 지도자) 등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1월 19일 충청도 보은에서 체포되었고 20일 경상도 상주에서 총살되었다.³⁵⁾ 金子仙(金子先, ~1894)은 대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1894년 10월 17일 충청도 청주에서 일본군에게 패한 후 충청도 공주 함락을 시도하였다. 11월 18일 경상도 상주에서 체포되어 같은 달 19일 총살되었다.³⁶⁾

金顯榮(1849~?)은 상주 및 영남 북서부의 동학조직을 관할하는 최고 지도자인 대접주로서

29) 『甲午東學亂』.
 30) 「第二編 海月神師」, 『本教歷史』.
 31) 「第八章 遺蹟刊布」, 『侍天教宗釋史 第一編』.
 32) 「第十章 爲師訟冤」, 『侍天教宗釋史 第二編 下』; 「第十一章爲先師伸冤伏閣上疏」, 『東學道宗釋史 第二編』.
 33) 「第二編 海月神師」, 『天道教書』.
 3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3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3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아들 金奎培(1874~1945)와 동생 金顯東(1850~1894), 김현양과 함께 상주읍성을 점령하였다. 이후에는 충청도 보은전투 등에도 참여하였다.³⁷⁾ 李公益(접주), 鄭千汝(접주) 등은 1894년 충청도 보은에서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경상도 상주에서 체포되었다.³⁸⁾

이들의 활동지역은 경상도에서는 상주, 충청도에서는 보은, 청주, 공주이다. 상주와 보은의 거리는 50.1km, 보은과 청주의 거리는 38.9km, 청주와 공주의 거리는 57.6km이다. 보은 종곡 전투에 상주 동학농민군이 대거 참여했듯이 가까운 거리로 인하여 드나들이 잦았던 곳으로 파악된다. 또 경상도 북부지역은 충청도와 밀접한 상황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 전라·경상도를 넘나들며 활동한 접주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활동한 접주들은 총 4명인데, 이를 정리하면 <표5>와 같다. 이들은 전라도와 가까운 경상도 남부지역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고, 활동한 접주 4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5>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활동한 접주들(4명)

번호	이름	직함	활동지_전라, 경상
1	高光臣(1857~1894)	영호도회소 접주	광양(전라), 하동(경상)
2	金以甲(~1894)	도접주	순천(전라), 하동(경상)
3	趙升鉉(1870~1948)	접주	고부·전주·순천(전라), 하동·진주(경상)
4	黃斗化(~1894)	접주	순천(전라), 양산(경상)

高光臣(1857~1894)은 1894년 전라도 광양의 영호도회소 농민군의 접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광양 옥곡에서 경상도 하동의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비촌에서 처형당하였다.³⁹⁾ 金以甲(~1894)은 도접주로서 전라도 순천, 경상도 하동에서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였다가 붙잡혀서 1894년 12월 처형되었다.⁴⁰⁾

趙升鉉(1870~1948)은 매형인 영호대접주 김인배와 함께 고부봉기부터 참여하였고, 전주 입성 후, 순천·하동·진주 등 영호남을 아우르면서 활약한 인물이다.⁴¹⁾ 黃斗化(~1894)는 接主로서 경상도 양산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순천에서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였다.⁴²⁾

3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3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3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4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4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5) 기타

이처럼 하삼도에서 종횡무진 활동한 접주들은 24명으로 82.7%를 차지하였다. 이들을 제외하고도 경기·충청(3명), 경기·강원(1명), 강원·충청(1명)을 다니면서 활동한 접주들도 있었다. 이들을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 그 외 지역에서 활동한 접주들(5명)

번호	이름	직함	활동지
1	朴公善(朴公先, ~1894)	접주	안성(경기), 보은(충청)
2	安教善	도접주	수원(경기), 아산(충청)
3	李致五	접주	양성(경기), 평택(충청)
4	申澤雨	접주	원주(강원), 음죽(경기)
5	李元八 (李關東, 1845~1900)	關東大接主	평창(강원), 보은(충청), 체포(전라)

朴公善(~1894, 朴公先)은 접주로서 경기도 안성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0월 충청도 보은에서 체포되어 총살되었다.⁴³⁾ 安教善(도접주)은 충청도 아산에서 활동하였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1894년 12월 경기도 수원 남별원에서 처형되었다.⁴⁴⁾

李致五是 경기도 양성 출신의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1894년 11월 23일 충청도 평택에서 처형되었다.⁴⁵⁾ 申澤雨는 접주로서 1894년 강원도 원주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1898년 1월 경기도 음죽에서 붙잡힌 그는 서울로 압송되어 고문을 받았다.⁴⁶⁾

李元八(李關東, 1845~1900)은 1894년 6월 강원도 평창에서 동학에 입도하였고, 8월 關東大接主로서 충청도 보은에서 최시형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1900년 전라도에서 체포되었고 4월 처형되었다.⁴⁷⁾

Ⅲ. 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지역별 분류)

4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4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4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4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4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1. 2곳 이상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2장에서 지역을 넘나들었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지역별 양상을 일부 살필 수 있었다. 지도부의 분포가 실제 동학농민군의 지역별 양상과 직결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동학농민군의 지역별 양상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홈페이지에는 동학의 주요인물인 최제우, 최시형, 손병희, 박인호 등을 소개하고, 동학농민혁명 5대 장군으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최경선을 소개하였다. 그 뒤를 이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81명의 이름, 참여내용, 참여지역, 출생과 사망 연월일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가운데 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한 사람들의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81명 가운데 참여지역이 2곳 이상인 인물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총 176명(4.8%)과 관련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7> 2곳 이상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한성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황해도	합 계
한성	-	-	-	-	1	-	-	-	1
강원도	-	-	2	-	-	4	-	-	7
					1				
경기도	-	2	-	-	-	13	-	1	16
경상도	-	-	-	-	43	24	-	-	67
전라도	1	(1)	-	43	-	86	-	-	131
충청도	-	4(1)	13	24	86	-	-	-	127
평안도	-	-	-	-	-	-	-	1	1
황해도	-	-	1	-	-	-	1	-	2
총 계									352

<표7>에서 알 수 있듯이 전라도·충청도·경상도에 활동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로줄과 세로줄에 모든 도가 표시되기 때문에 가로줄이든 세로줄이든 2개 도 이상에서 활동한 인물의 숫자는 동일하게 잡힌다. 그러므로 총 352명이 통계에 잡힌 것이다. 때문에 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176명이 된다.

2. 지역별 분류

1) 강원도

이 표를 각 도 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강원도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은 총 7명으로, 지역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의 위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표8> 강원도와 다른 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한성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황해도	합 계
강원도	-	-	2	-	-	4	-	-	7
					1				

강원·충청·전라도 3곳을 중흥무진 활동한 인물은 李元八(李關東, 1845~1900)이고,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활동한 인물로는 沈相賢, 李圭夏, 李重亢(1873~1948), 吳昌燮 등이며,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활동한 인물로는 申澤雨, 林淳灝 등이다.

이들이 활동한 강원도는 평창·양구·원주·홍천이고, 충청도는 보은·충주이며, 경기도는 음죽·여주 등이다. 이 활동지역은 설악산·치악산·월악산·속리산 등 깊고 험준한 산지와 연결되어 원거리이동에도 용이했다.

2)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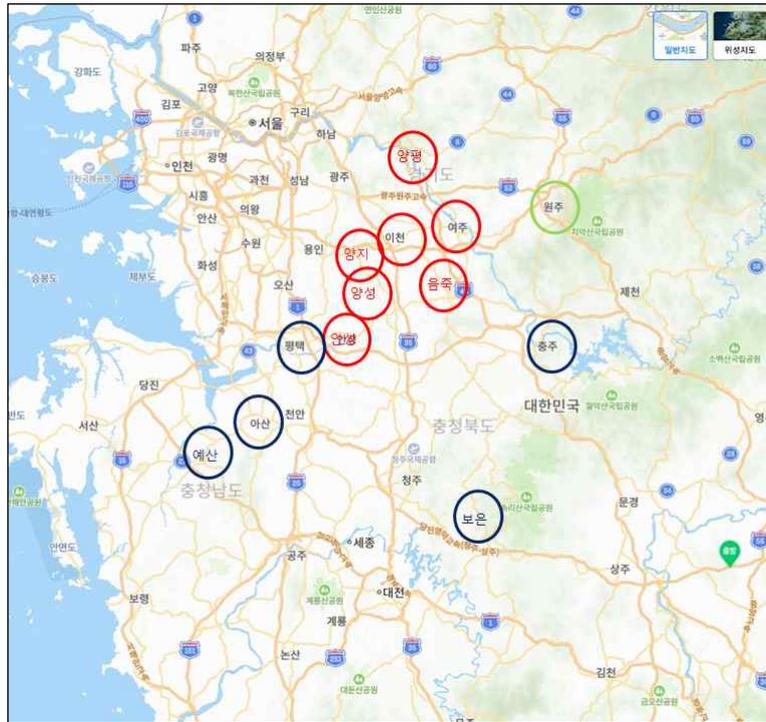
경기도와 다른 지역에서 중흥무진 활동한 사람은 총 16명으로,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위치와 관련된 듯하며 접경한 충청도와 교류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9> 경기도와 다른 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한성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황해도	합 계
경기도	-	2	-	-	-	13	-	1	16

경기·강원도에서 활동한 인물로는 앞에서 살폈던 申澤雨, 林淳灝 등이고, 경기·충청도에서 활동한 인물로는 高在堂(~1894), 權聖佐, 金今用, 金石才, 徐壽榮(徐水榮), 元石萬, 趙仁伊, 金汝正(1867~1894), 朴公善(朴公先, ~1894), 安教善, 李秉仁, 李致五, 洪淳玉(1868~1965) 등이며, 경기·황해도에서 활동한 인물은 成在植(成載植)이다.

이들이 활동한 경기도는 이천·음죽·양지·여주·고양·안성·수원·양성·양평이고, 강원도는 원주, 충청도는 음죽·보은·아산·예산·평택·충주이며, 황해도는 해주이다. 이지역을 지도로 나타내면 다음 지도와 같다.



경기(붉은색),강원(연두색),충청도(파란색)

3) 경상도

경상도와 다른 지역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은 총 67명이다. 역시 지리상 경계를 접하고 있는 곳과 교류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활동한 42명은 대부분 경상도 남부와 관련이 되며,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활동한 24명은 경상도 북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표10> 경상도와 다른 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한성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황해도	합 계
경상도	-	-	-	-	43	24	-	-	67

① 경상도·전라도(43명)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활동하는 인물로는 姜柄昊, 高光臣(1857~1894), 高百俊, 高汝眞, 高濟烈, 郭子允, 金洛鉉, 金斗演, 金斗熙(1860~1895), 金商奎(?~1894), 金相吉(~1894), 金聖敏, 金聖瑞, 金溶昊, 金以甲(~1894), 金在俊, 金鐘一, 金鐘초, 金春瑞, 文쌀順(?~1894), 文永瑞,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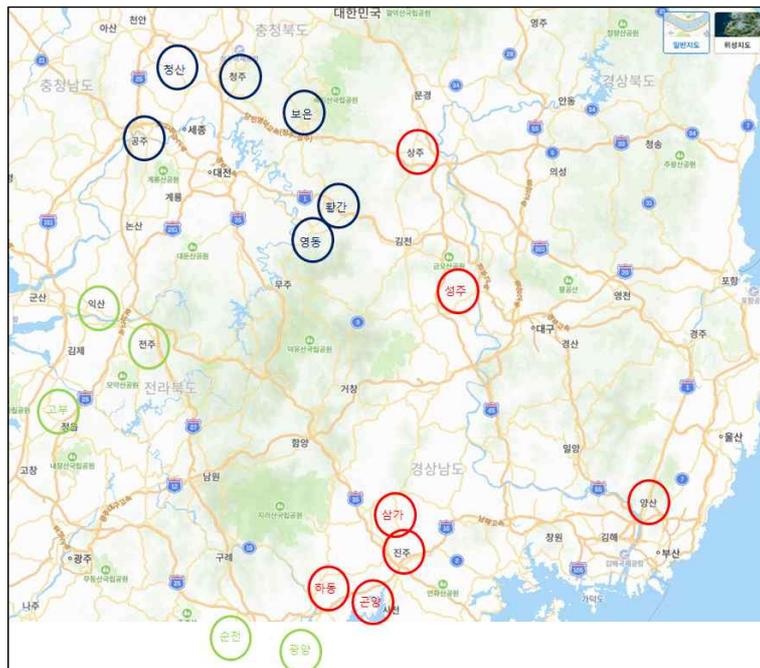
有衡, 朴桂憲, 朴汶淳, 朴凡伊, 朴비浩, 朴섬禧, 徐進欽, 孫永吾, 孫永俊, 宋來文, 安信五, 梁云永, 禹子和, 李洛衡, 李溶植, 李正奎, 林在石, 趙升鉉(1870~1948), 張鶴用, 鄭洪淳, 洪濟九, 黃斗化(~1894) 등이다.

② 경상도·충청도(24명)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활동한 인물로는 權秉憲, 金慶學, 金奎培(1874~1945), 金民伊(~1894), 金士文, 金順汝(~1894), 金有成, 金子仙(金子先,~1894), 金顯東(1850~1894), 金顯榮(1849~?), 金興業, 南眞甲(~1894), 朴基俊, 申允石, 安小斗劫, 元性八(~1894), 尹景五(~1894), 李公益, 李尙信, 張汝振(~1894), 全明叔(~1894), 鄭千汝, 池尙勳, 崔仁叔(~1894) 등이다.

이 가운데 권병덕, 김민이, 원성팔, 김자선, 김현영, 이공익, 정천여 등은 경상도와 충청도를 넘나들며 활동했던 접주였다.

이들이 활동한 경상도는 하동·삼가·진주·곤양·양산·상주·성주이고, 전라도는 광양·익산·순천·고부·전주이며, 충청도는 보은·청주·황간·영동·청산·공주 등이다. 이 지역을 지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충청도(파란색), 경상도(붉은색), 전라도(연두색)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상도 북부지역은 충청도와, 경상도 남부지역은 전라도와 가깝기 때문에 동학농민군들도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전라도-충청도-경상도 북부지역으로 이어지면서 동학농민군들이 움직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전라도 익산

· 전주·고부나, 경상도 양산처럼 뚝 떨어진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전라도

전라도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은 130명으로, 역시 지역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상도 및 충청도와 교류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 활동했다고 표시된 1명은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활약한 이원팔을 말한다. 또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표11> 전라도와 다른 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한성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황해도	합 계
전라도	1	(1)	-	43	-	86	-	-	131

① 전라도·한성

전라도와 한성에서 활동한 인물인 申禎燁은 內官 출신으로, 1890년 12월 한성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 서장옥과 함께 체포되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1894년 7월 2일 풀려난 그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1895년 3월 杖 100, 流 3000리의 처벌을 받았다.⁴⁸⁾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활동하는 42명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② 전라도·충청도(85명)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활동한 인물로는 姜明善(~1894), 姜士元(~1895), 權億圭(權順九), 高敬一, 金京三, 高德文, 高德賢(접주), 高秉燁, 高遠行(접사), 具昌根, 金古味(포수), 金哲仲(접사), 金太平(省察), 金敬洙(1865~1932), 金基成(접주), 金官之(~1894), 金萬業(~1894), 金潘巖, 金成九(~1894), 金永光, 金云樵(~1895), 金元叔(~1894), 金正運, 金昌洙, 金海龍(~1894), 羅邦煥(1838~1894), 閔泳一(1857~1920), 閔泳軫, 閔忠植, 朴泳準, 朴永鎮, 朴元直(~1895), 朴秋浩(省察), 朴致卿(대접주), 朴鎬年, 裴順安, 昔今同, 蘇眞甲(~1894), 孫如玉(1860~1894), 孫華仲(1861~1895), 宋德仁, 宋東學, 宋秉燁, 宋柱晟(1863~1924), 宋昌烈(접주), 徐永道, 申鉉基, 安奎馥, 安承煥, 嚴二敬(1875~1985), 嚴興三(1860~1899), 柳達洙, 劉壽德(劉水德), 尹道淳(1860~1930), 尹日炳, 吳德順, 吳應元(~1895), 吳準明, 吳知泳, 李寬奉(접주), 李大哲(성찰), 李鳳安, 李守喜(李秀希, ~1894), 李五龍(포군), 李淵夏, 李栽憲(1868~1944), 李昌敦, 李昌雲, 李判石(접주), 張命用(성찰), 張永植, 張昊鎮(1871~1949), 全

4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琿準(1854~1895), 鄭允瑞(~1894), 鄭容業, 鄭判成, 趙在璧, 趙學先, 崔得用(~1894), 崔晚植(1859~1895), 崔時澈(1870~1894), 崔載愼(1829~1895), 崔平執(1872~?), 崔漢植(1861~1903), 崔興植(1850~1903), 黃凡秀 등 총 85명이다.

이 가운데 高敬一, 高德賢, 高遠行, 金元叔, 金基成, 朴致卿, 徐永道, 宋昌烈, 安奎馥, 劉壽德(劉水德), 李判石, 李寬奉, 張昊鎭, 趙在璧 등은 앞서 살폈듯이 충청도와 전라도를 넘나들며 활동한 접주들이었다.

이들이 활동한 전라도는 광양·순천·익산·전주, 경상도는 곤양·삼가·양산·진주·하동 등이다. 전라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곳은 경상도 남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라도는 고부·고산·금구·금산·김제·나주·낙안·무안·무장·부안·삼례·여산·익산·임실·임피·장성·전주·조성·진산·함열 등이고, 충청도는 공주·논산·보은·서천·영동·옥천·은진·웅포·천안·청주·한산·홍산·홍성·황간 등이다.

5) 충청도

강원도·전라도·충청도 3곳에서 활동한 1명(이원팔), 강원도·충청도에서 활동한 4명, 경기도·충청도에서 활동한 13명, 경상도·충청도에서 활동한 24명, 전라도·충청도에서 활동한 85명을 말하면 모두 127명이다.

<표12> 충청도와 다른 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한성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황해도	합 계
충청도	-	4(1)	13	24	86	-	-	-	127

이들의 명단은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를 정리할 때 다루었다. 그들 가운데 126명이다. 전라도 다음으로 충청도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핀 여러 지도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6) 황해도·평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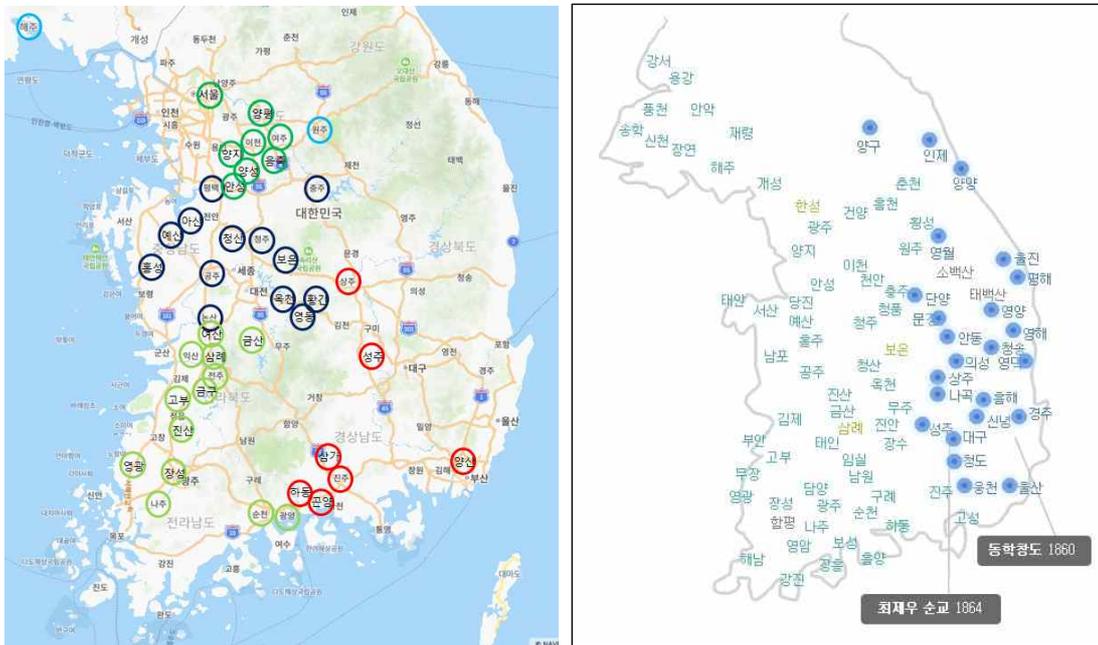
황해도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은 2명이다. 황해도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계한 접한 곳과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교류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북한 지역으로 현재 발굴이 좀 더 진행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표13> 황해도·평안도와 다른 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한성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황해도	합 계
황해도	-	-	1	-	-	-	1	-	2

황해도와 경기도에서 활동한 인물은 앞서서도 살폈던 成在植(成載植)이다.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활동한 인물은 황찬수 등이다. 黃贊洙는 평안도 영유 출신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전선을 절단하려다가 1894년 10월 황해도에서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되었다.⁴⁹⁾ 성재식과 황찬수의 활동은 경기도·황해도·평안도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해주며, 경기도와 황해도-평안도로 이어지는 연결선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앞으로 연구할 과제로 남겨야 할 듯하다.

道 단위를 넘나들었던 인물들의 활동지역을 정리하여 지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 단위를 넘나들었던 인물들의 활동

초기 동학 중심 도시(기념재단)

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 단위의 지역을 넘나들었던 인물들의 활동지역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과 일치한다. 한양·경기와 가까운 강원도는 원주,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가 도 단위 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한 동학농민군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전체를 보면 서쪽 지역이 동쪽 지역보다 도 단위 지역을 넘나든 동학농민군이 훨씬 더 많았음을 확인할

4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수도 있었다. 그리고 도 내에서 군현 단위에서 넘나들었던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살핀다면 훨씬 더 많은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비교할 수 있는 지도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초기 동학 중심도시를 가지고 왔다. 둥근 점이 그려져 있는 곳이 초기 동학의 중심도시였다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또 도 단위를 넘나들었던 인물들의 활동지역을 살펴보면 강원도-황해도-평안도는 물론, 서울·경기-충청-전라-경상도에 넓게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맺음말 : 지역화합과 민족통일

사회통합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사회, 특히 문화적 다양성의 맥락 속에서 함께 어울리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겨안는 다층적 개념으로 사회통합의 5가지 차원(Runnymede Trust)이 필요하다.⁵⁰⁾ 그 다섯 가지 차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물질적 조건이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고용, 소득, 건강, 교육, 주택 등에서의 불평등 해소가 필수적이다. 공동체 내에서 관계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경제적 곤궁, 부채, 근심, 낮은 자존감, 나쁜 건강 상태, 빈약한 기술, 나쁜 생활 조건 등이 지속될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본적 삶의 필수조건들은 강한 사회적 결속과 통합의 토대이고 사회발전의 중요 척도이다.

둘째, 소극적 수동 관계(passive relationships)이다. 공포로부터 사회질서, 안전, 그리고 자유, 또는 소극적 관계는 통합의 기본요체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존중은 평화·안전과 함께 조화롭고 안정적인 사회의 특징이다.

셋째, 긍정적 활동적 관계(active relationships)이다. 공동체들과 개인들 사이의 네트워크, 교류, 적극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접촉과 연결은 사람들과 조직들에게 상호지 지, 정보, 신뢰, 신용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를 위한 잠재적 자원들이다.

넷째, 포용(inclusion)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주요 제도 속으로의 통합의 폭이나 범위를 의미한다. 도시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친밀감), 사람들 사이의 공유한 공동의 경험, 정체성 그리고 가치 등은 통합과 포용의 중요한 요인이다.

다섯째, 사회적 평등(social equality)이다. 기회나 물질적 환경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나 불균등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 건강, 삶의 질, 혹은 미래 삶의 기회 등에 있어서의 공정성 수준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교류가 있어야 한다. 지역적으로 본다

50)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pcnc11/220987707292>).

면, 교류는 지역화합의 시작이고 민족통일의 端初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 확산의 시작은 동학사상의 충청·전라도 전파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충청·전라도의 영향을 받은 경상도도 동학농민혁명에 동참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이처럼 교류는 지역화합의 시작이다. 또 나아가 현재의 과제 가운데 하나인 민족통일의 단초가 될 것이다.

정읍-고창-전주-부안-군산을 잇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벨트 지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입장이 달라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하였다.⁵¹⁾ 전라도 내 시군의 입장이 달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보다는 다원화되지 않은 시기였겠지만, 지금으로부터 127년 전인 1894년 동학농민군은 道를 넘나들면서 활동하였음을 본문에서 확인하였다.

현재와 같은 교통이 있어 빠르게 다니지도 못했던 127년 동학농민군은 道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펼쳤다. 교유관계나 포접제 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역교류와 화합이 없었다면 이러한 활동을 펼치기 힘들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동학농민군의 이러한 활동은 지역교류·지역화합의 사례이며, 나아가 남북 간 지역교류·지역화합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민족통일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51) 전주 KBS, 2020년 8월 14일 보도(이수진 기자_elpis1004@kbs.co.kr).

[주제발표 3]

동학농민혁명과 한국사회의 미래가치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차 례

- I. 머리말
- II.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해석의 흐름
- III. 동학농민혁명의 내포적 가치와 지향
- IV. 맺음말 : 동학농민혁명의 미래가치-공존(共存)

I. 머리말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역사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이에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가치로 동학농민혁명을 해석 및 평가해 왔다. 이는 주로 ‘반봉건, 반외세, 민주, 자주, 평등, 자유, 인권, 인간존중, 평화, 자치, 민권, 민주주의, 나눔과 배려’ 등으로,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승해야 할 개념이자 가치들이다. 동학농민혁명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가치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있다. 현재 우리는 앞으로의 한국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에는 미래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을 바탕으로, 선언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담긴 미래가치를 개념화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동학농민혁명의 인식 과정과 해석 등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와 지향까지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해석의 흐름

동학농민혁명은 처음에는 동학란으로 불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인식도 점차 바뀌게 되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사관에 입각하여 인식이 변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과 함께 가치와 의미까지도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박은식은 「갑오동학당의 대풍운」(『한국독립운동지혈사』, 1919)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원인은 신분 문제에 있고 동학농민군의 요구는 신분타파였으며 그 성과는 신분제도의 해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평민혁명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동학농민혁명의 주체를 동학당으로 보면서도 동학당이 그와 같은 싸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농민들의 의식과 사회적 요구에 동학이 부합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황의돈은 「민중적 구호의 제일성인 갑오의 혁신운동」(『개벽』 1922년 4.5월호)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루터의 종교혁명, 불란서의 자유혁명 등과 비교하면서 ‘사천 년래 우리 기록상에 유일 무이한 민중적 운동인 갑오혁신의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분적 차별로 말미암은 사회정치적 억압을 당시의 가장 주된 사회적 모순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는 동학농민혁명의 주체로 동학당과 전봉준을 들고 있으며,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동학은 조선 말기 근본적 개혁이 필요할 때 ‘그의 개혁적 요구의 결정으로 또는 사회적 혁신의 선구로 동학의 신종교가 화현’되었으며 전봉준은 자유와 평등을 열망하다가 자유의 정신, 평등의 주의로 비밀결사가 된 평민단체 곧 동학당이 자신의 용무지(用武地)임을 각오하고 이에 참가하였다.” 저자는 전봉준을 동학도로 보면서도 그가 이미 혁명의식을 갖고 동학에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는 지적을 최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오지영은 『동학사 초고본』(1926)이라는 자료를 남겼다. 여기에서 그는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불평등 부자유의 세상을 고쳐 대평등 대자유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다’라고 정의하였다. 즉, 오지영은 동학농민혁명이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와 지향을 가졌다고 평가한 것이다.

장도빈은 『갑오동학란과 전봉준』(1926)에서 ‘봉준이 그 큰 계획을 실현하려고 밤낮으로 계획한 결과 하나의 묘안을 생각해 냈다. 그것은 동학당에 투입함이었다. 당시 동학당이 점점 비밀리에 결사를 완성하여 평등의 주의, 혁명의 사상으로 평민계급의 일대 단체가 되거늘 봉준이 그것을 보고 어두운 중에 환희를 금하지 못하여 그 단체가 자기의 생각과 가까움을 깨닫고 이에 동학당에 투신하여 자기의 이상을 이루기로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계급적 악사회를 타파하려는 정신이 일반 민중의 심리에 투입되어 사회상 대변천을 이루어 점점 계급을 타파하고 평민적으로 진화한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어쨌든지 조선의 혁명적 사위(事爲)는 대개 동학

란에서 발인한 바가 다대함을 알 것이다'라고 하여 동학을 동학농민혁명의 주체로 보면서도 동학의 종교적 측면보다는 자유와 평등의 사회개혁사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상기는 『동학과 동학란』(1931)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란'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운동의 성격은 민중운동으로 명백히 규정하였다. '동학란은 단순히 복수의 충동에서 나온 민요도 아니거니와 교문 본위의 운동도 물론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지도 원리도 있고 방침과 목표도 갖추어져 있는 말하자면 조직적으로 나타난 일대 민중운동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동학농민혁명을 단순한 수탈에 대한 즉자적인 저항이나 종교운동이 아니라 사회개혁의 일정한 목표와 조직을 가진 민중운동으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그는 동학사상이 '최시형 때 이르러 일층 이론화되어 인내천 주의가 확립되고 사인여사천(事人如事天)의 논리로서 인류 평등주의 이론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보았으며, 이 사상의 발명이야말로 불란서 혁명에서 루소의 민약설과 같이 당시 극단의 계급제도에 희생되어 있던 일반 교도의 사이에 반항정신이 더욱 온양케 되었으며 이 정신이 드디어 갑오동학란의 지도정신에 열지 않은 관계를 가짐에 이르렀을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동학의 인내천사상 즉, 평등사상이 동학농민혁명에 미친 영향을 프랑스의 계몽사상이 프랑스 혁명에 미친 영향과 비교하고 있다. 그는 동학사상을 근대적 사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더 나아가 민중이 동학 교문과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동학의 교리가 내포하는 평등사상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사회경제사학 계열의 계봉우는 『동학당폭동』(1932)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대중의 계급투쟁'이며 '외국 세력까지 구축하려는 투쟁'이라고 하여, 오늘날의 반봉건 반제투쟁이라는 농민전쟁에 대한 성격 규정과 동일한 파악을 하고 있다. 그는 농민전쟁을 '폭동의 배태기, 분만기, 장성기'라는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고부민란에서 시작한 무장에서의 1차 농민혁명의 선언, 집강소단계, 2차 농민혁명의 전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돈화는 『천도교창건사』(1933)에서 '도인이 각 군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전일 토호가 민산에 누장한 자를 굴이하며 민재를 환급케하며 수재에게 장수하였던 원민을 석방케 하며 노예를 해방하며 반상의 구별을 철폐하는 등 실로 기백년 민폐인 비정유속을 일체 개혁하니'라고 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동기로 '첫째,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도인의 새 세상에 대한 희망, 둘째, 동학의 자유 평등사상으로 인한 계급의식의 발전, 셋째, 관리의 압박'을 들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효과에 대해서는 '첫째, 개화사상의 타개, 둘째, 민중운동의 효시, 셋째, 봉건계급의 타파'를 들고 있다. 종교적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혁명에 드러나는 민중운동의 성격과 계급투쟁의 성격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사회경제사학 계열의 이청원은 『조선역사독본』(1937)에서 당시의 조선 혁명의 성격을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인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소탕하는 민족혁명'이라고 보고, 그 사회적 내용으로 토지혁명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농민군의 활동 가운데서도 '무장한 동학당원

에 의해서 조선의 남부는 점령되어 토지기록은 소멸되었다’, ‘그들이 토지로부터 중세적 희벽을 청소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려 준다’라고 하여 봉건적 생산관계로서의 토지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동학농민혁명을 반봉건투쟁의 발전 선상에서 뿐 아니라, 일본과의 불평등조약 이후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반제투쟁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일본의 조선 침략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역시 사회경제사학계열인 전석담은 「이조봉건사회의 총결로서의 동학농민란」(『조선경제사』, 1949)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어지럽고 급박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내정의 부패로 말미암아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민란이 동학의 조직과 합전되어 일어난 일대 농민전쟁이었다. …… 그 종교적 외피에도 불구하고 봉건전제를 반대하는 농민폭동 …… 막연하게나 자유와 평등의 구호를 들고 나온 민주개혁을 위한 대중투쟁’이라고 성격 규정하였다. 그가 동학농민혁명의 주체를 ‘농민군’, ‘동학농민군’으로 지칭하고 그 성격을 ‘농민전쟁’으로 규정한 점이나, 최제우를 루소에 비교한 김상기를 비판하면서 동학이 농민계급의 반봉건 이데올로기로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또한 ‘토지혁명’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 점 등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사학의 흐름을 계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재일사학자인 박경식은 『개국과 갑오농민전쟁』(1953)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반 침략적 성격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는 농민항쟁에서 농민혁명으로 발전하게 된 성격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불평등한 강화조약에 결과로서 외국 자본주의의 침입에 의한 상품시장, 원료 식량공급지로서의 반식민지화, 다시 여기에 수반된 국내 봉건세력의 착취와 매국적 행위에 대한 민족의 위기를 구하려는 국민적인 총궐기이다’라고 하며 개항 이후에 외국 자본의 침입으로 인한 민족적 위기에 대응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반 식민지화에 대항하는 민족운동으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이에 결부된 봉건세력의 착취와 매국적 행위에 반대하는 반봉건운동으로도 규정하였다.

재일사학인 강재언은 「조선에 있어서의 봉건제의 해체와 농민전쟁」(『역사학연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에 대해 ‘갑오농민전쟁은 농민을 주체로 한 혁명세력이 척양척왜로써 외국 세력의 침략에 반대하고 보국안민으로서 철저한 폐정의 개혁을 요구하며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을 저지하는 봉건적 수탈과 지배계급의 매국행위에 의한 민족적 위기로부터 민족과 자기의 해방을 쟁취하려고 한 반식민지 반봉건투쟁이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는 ‘갑오농민전쟁은 바로 동학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농민을 주체로 하는 동학당 하층부가 권력에 실력으로 대결하려는 혁명 진영을 형성하여, 몰락 양반의 이데올로기인 동학당 지도층의 종교적 개량주의 노선을 극복해감으로써 전개된다’라고 하였다. 동학 내부의 노선 대립과 관련하여 동학교도가 비생산계급으로서 몰락 양반과 생산계급으로서의 농민, 빈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교도의 계급적 기반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구한 점은 이후의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김용섭은 「동학란 연구론-성격문제를 중심으로」(『역사교육』, 1958)에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연구방향을 ‘첫째, 부패한 봉건적 지배층에 대한 반봉건운동, 둘째, 일본 자본주의 세력의 침투와 농촌 경제의 파탄에 대항하는 반식민지화 운동, 셋째, 동학이라는 민족 종교의 계몽성, 종교성과 비지역성에 의해서 농민층이 광범위하게 집결됨으로써 전개된 농민전쟁’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조선후기 이래의 사회 발전의 산물로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 발전에 따른 사회구성의 변화가 모순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민중의 의식적 주체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바로 이 점이 운동의 조건과 전망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농민전쟁의 민족운동로서의 측면도 조선후기의 사회 발전이 외래 자본의 침투에 의하여 어떤 변화를 겪고 있었는지를 해명함으로써, 이전의 민중운동의 추진력과 관련하여 파악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김용섭은 이어서 「전봉준공초의 분석」(『사학연구』, 1958)에서 ‘요컨대 동학혁명을 사회개혁 운동으로 파악하려 할 때 전봉준에 의하는 한 종래의 혁명의 추진력으로 생각되어 온 조선시대 말기의 구제운동으로서의 동학에 대해서는 혁명에 있어서 그 포조직을 제공하고 농민층의 동원을 용이케 하였다는 표면적인 역할, 종적인 위치 외에는 다른 의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혁명은 동학의 원리와는 별개로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한 농민층의 사회의식이 전봉준의 지도 이념에 결합됨으로써 추진된 것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북한의 역사학자인 오길보는 「갑오농민전쟁과 동학」(『역사과학』, 1959)에서 종교적 외피론의 창조적 적용을 강조하였다. 고립 분산적인 농민항쟁이 대규모의 농민전쟁으로 발전한 데에는 바로 전봉준을 비롯한 양심적, 선진적 사상을 지닌 유생양반 지식인들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농민군의 활동과 농민군이 발표한 격문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전봉준을 동학의 접주로 보는 것이 기와의 견해였으나 그를 동학의 접주로 볼 만한 확고한 근거가 없는 까닭에 동학도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1960년 이후에 동학농민혁명을 갑오농민전쟁이라고 규정하였으나, 그 이후 이러한 역사인식의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용덕은 「사상 및 실학-북학사상과 동학」(1963)에서 반봉건 반제국주의 농민전쟁으로서의 동학란이야말로 우리의 자주적 근대화의 길,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그 힘을 동학사상에 두었다. ‘동학사상은 가장 철저한 평등사상이며 봉건제의 전면적 전복을 뜻하는 혁명사상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는 「동학사사연구」(『중앙대논문집』, 1964)에서 ‘동학사상에는 반봉건적 평등주의라는 민주적이며 근대적인 면이 있는 동시에, 양구를 물리치는데 있어서, 만인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새 세상의 개벽에 있어서 모두 현대의 합리주의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조화력 신앙이 관류하고 있는 것이다. 동학혁명은 그 평등주의, 혁명주의, 민족주의로 말미암아 모든 잡다한 전근대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자주적인 근대화운동이

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우근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1971)에서 '동학 농민군의 제1차 봉기는 단적으로 말해서 그 이전에 자주 일어났던 일반적인 민란과 흔히 잔반 신분에 의해서 일어났던 병란이 동시에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규정하였다.

정창렬은 「동학과 농민전쟁」(『한국사연구입문』, 1981)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서구의 농민전쟁, 부르주아 혁명 등과 비교하여 위상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후진 종속사회'의 근대화 형태를 상정하고 그 가운데서 농민전쟁의 위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근대 상을 전망하는 것으로,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도달점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근대 인식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것이다. 이 글에서 그는 농민전쟁과 같은 민족민중운동을 통한 근대 민족형성, 민족국가의 수립은 서구와 다른 '후진 종속사회'의 근대화 형태를 보고 "농민전쟁의 전개에서 민중의 민족으로서의 결집이 어는 정도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뒤에 좀더 발전하여 그 결집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내용은 '농민적 길에 의한 근대화' '반봉건주의, 반식민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근대화'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동학사상의 사회의식」(『한국학논집』(1986)에서 동학사상과 '민란민의 정치의식'이 결합하여 농민전쟁 당시 농민계층의 정치의식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또 동학사상과 민란민의 정치의식은 조선의 이데올로기적 대민지배의 양 측면, 즉 '도덕적 가치의 통괄적 구현체'로서의 국가를 내세우는 측면과 '민유방본 이념의 구현체'로서 국가를 내세우는 측면을 각각 부정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이 양자가 서로 결합되어 농민전쟁에 있어 농민계층의 정치의식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조경달 「갑오농민전쟁 지도자 전봉준」(『조선사총』, 1983)에서 농민군의 지향은 부농층이 지향한 부르주아적 발전이 아니라 반봉건주의와 반식민주의 그리고 동시에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신용하는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1993)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갑오개혁과 결합하여 근대적 신체제를 수립한 것으로 설정하고 "19세기 한국 역사에서의 구체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운동에 의하여 붕괴되고 이것이 닦아 놓은 길 위에서 근대적 신체제의 수립은 개화파의 갑오경장이라는 '시민적 근대 개혁'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운동과 개화파의 시민적 개혁의 결합'에 의해 19세기말 한국의 근대 사회체제가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가 농민군 주체 분석의 범주로 신분개념을 사용했다는 점과 집강소를 농민 통치기관으로 보고 그 통치권의 행사를 다방면으로 살피고 있는 점 등은 그동안 역사학계에서 농민군의 지향과 활동을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았던 점과 비교할 때 사회정치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¹⁾

1) 이상 역사학자들의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해석의 흐름은 김선경, 「농민전쟁 100년, 인식의 흐름」(『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 1994)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배항섭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교과서 서술 방향의 새로운 모색」(2012)²⁾에서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의 생각과 행동은 오늘날에도 되새겨 볼 만한 중요한 가치들을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되새기고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면, 현대사회의 모든 병폐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명적 대안에 대한 고민들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세상을 갈아엎고 싶은’ 원망을 가진 사람들도 가득 찬 세상, 그들에 의해 모두가 고통 받는 ‘난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동학농민혁명에서 농민군들이 보여준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현재를 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자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동학농민군의 꿈과 노력은 세계사적으로 근대가 가진 파괴적 측면과 한계가 강조되면서 근대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문명적 대안이 요청되는 현실, 특히 글로벌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양극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갈등과 대립이 커다란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더 없이 중요한 자산이므로 세계사적 차원에서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이이화는 『이이화의 동학농민혁명사』(2019)³⁾에서 “봉건모순에는 불평등한 신분제도와 불균형한 토지제도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신분 차별과 일부 특권층의 토지 소유 및 농업생산의 독점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였다. 이런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제도를 타파하려는 민중 봉기는 역사의 추진 동력이 되었다. 여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이를 개혁하지 않고는 평등과 인권을 추구하는 근대를 지향할 수 없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인간 평등을 추구하고 자주 국가를 건설하려는 용트림이었다. 민중은 국가 권력으로 자행되는 국가 폭력에 맞서 목숨을 바쳤다. 이들 주체는 농업사회의 생산대중인 농민을 비롯해 노비, 백정 등 천민집단이었다. 그들은 부당한 지배를 받으며 그들을 옥죄고 있는 울가미에서 빠져나가려 저항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답게 사는 권리를 쟁취했다. 그리하여 ‘양반과 상놈’이라는 봉건적 신분제도는 차츰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져갔고 불균형의 토지 독점은 타파의 제일 목표로 떠올라 민중의식을 고양시켰다. …… 일본의 개입과 청일전쟁으로 국가 자주성의 지위가 짓밟혔고,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개편되는 결과가 빚어졌으며,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제국주의 국가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고, 남북분단의 원인도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농민혁명 세력의 저항에 앞장섰다. 비록 수많은 농민군이 우수한 근대 무기 앞에 죽어갔지만 동학농민혁명이 던지는 의미는 저항적 민족주의 또는 생존적 민족주의로 지금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2) 배항섭,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교과서 서술 방향의 새로운 모색」, 『역사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 어떻게 할 것인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대회자료집, 2011.

3) 이이화, 『이이화의 동학농민혁명사』, 2019.

<표1> 연구자들의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해석

연구자	명칭	해석	비고
박은식(1919)	갑오동학당	신분타파, 평민혁명	
황의돈(1922)	갑오혁신운동	자유와 평등의 주의로 비밀결사가 평민단체가 곧 동학당(전봉준)	
오지영(1926)	동학	불평등 부자유의 세상을 고쳐 대평등 대자유의 세상을 만들고자 함	천도교
김상기(1931)	동학란	사회개혁의 일정한 목표와 조직을 가진 민중운동, 동학사상은 평등사상을 내포한 근대사상	
계봉우(1932)	동학당폭동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대중의 계급투쟁, 외국 세력까지 구축하려는 투쟁(반봉건 반제투쟁)	사회경제사학
이돈화(1933)	동학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만중운동의 성격과 계급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천도교
이청원(1937)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소탕하는 민족혁명, 토지혁명	사회경제사학
전석담(1949)	동학농민란	자유와 평등의 구호를 들고 나온 민주개혁을 위한 대중투쟁, 토지혁명	사회경제사학
박경식(1953)	갑오농민전쟁	반식민지화에 대항하는 민족운동, 봉건세력의 착취와 매국적 행위에 반대하는 반봉건운동	재일
강재언	갑오농민전쟁	반식민지 반봉건투쟁	재일
김용섭(1958)	동학란	부패한 봉건적 지배층에 대한 반봉건운동, 반식민지화운동, 농민층이 광범위하게 집결됨으로써 전개된 농민전쟁	
오길보(1959)	갑오농민전쟁	분산적인 농민항쟁이 대규모의 농민전쟁으로 발전	북한
김용덕(1963)	동학란	평등주의, 혁명주의, 민족주의로 입각한 자주적인 근대화운동	
정창렬(1981)	동학농민전쟁	농민적 길에 의한 근대화, 반봉건주의, 반식민지화를 충족시키는 근대화	
조경달(1983)	갑오농민전쟁	반봉건주의와 빈식민주의	
신용하(1993)	동학농민혁명운동	동학농민혁명운동과 개화파의 시민적 개혁(갑오개혁)의 결합에 의해 19세기말 한국근대사회체제 수립	
배향섭(2012)	동학농민전쟁	나눔과 배려의 정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동학농민군의 노력은 새로운 문명적 대안이자 자산	
이이화(2019)	동학농민혁명	인간 평등 추구, 자주국가 건설, 저항적 민족주의, 생존적 민족주의	

Ⅲ. 동학농민혁명의 내포적 가치와 지향

이상에서 연구자들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동학농민혁명 직후 동학란으로 인식된 이 사건은 점차 갑오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 등으로 역사발전에서 이바지하였다는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하였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해석은 초기에는 반봉건 민주화와 반외세 자주화 관점에서 해석되었고, 이후에는 나눔과 배려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의된 가치 또는 개념은 ‘자유, 평등, 민주, 개혁, 자주, 민족’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동학농민혁명에서 추출해야 할 미래가치

는 무엇일까? 필자는 여기서 동학농민혁명이 내포하고 있는 공존(共存)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존의 가치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에 깊숙이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고 향후 미래에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매우 의미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공존이라는 가치가 중요한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점이 공존이라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다 함께 잘사는 세상’과 대동사상(大同思想)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다.’라고 할 수 있다. 짧고 평이한 문장이지만 동학농민군이 지향한 정신을 응축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인다. 다함께 잘 사는 세상. 이는 우리 역사에서 뿌리를 찾아가 보면 대동사상으로 연결된다. 대동사상은 공자가 집대성한 『예기(禮記)』에 나오는 개념으로 공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예기』 「예운(禮運)」 대동장(大同章)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大道가 행하여지자, 천하를 공으로 생각하고 어질고 능한 인물을 선택하여 (천자의 지위를) 전하였으며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을 닦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홀로 자기의 어버이만을 어버이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노인은 여생을 잘 마칠 수 있게 하며, 장년은 쓰일 곳이 있게 하며, 어린이는 성장할 수 있게 하며,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와 자식 없는 늙은이와 폐질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다 부양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남자는 자기의 직분이 있고, 여자는 돌아갈 자기의 가정이 있다. 재물이 땅에 버려지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사사로이 저장할 필요가 없으며, 노동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간사한 꾀는 막혀 일어나지 않았으며, 절도나 난적이 생기지 않아 바깥문을 닫는 일이 없었다. 이것을 일컬어 大同이라 한다.⁴⁾

『예기』 「예운편」 대동장에 표현된 대동세상은 이후 공자의 대동사상을 시대정신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모든 유학자들의 공통된 지향이자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이, 최한기, 박은식 등이 이러한 대동사상을 중요한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동사상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즉, 다함께 잘사는 세상과 그 케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차별이 없는 세상, 모든 구성원이 공존하는 세상, 다시 말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란 궁극적으로 공자가 이상향으로 삼았던 이 대동사회와 그 지향이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4) “大道之行也，天下爲公。選賢與能，講信脩睦，故人不獨親其親，不獨子其子。使老有所終，壯有所用，幼有所長，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男有分，女有歸。貨，惡其棄於地也，不必藏於己。力，惡其不出於身也，不必爲己。是故謀閉而不興，盜竊亂賊而不作。故外戶而不閉，是謂大同。” 『禮記』，「禮運」。 107자로 以下 大同章이라 한다.

2. 동학농민혁명과 공존(共存)의 가치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그리고 이때 농민군이 세웠던 각종 격문을 통해 동학농민군이 추구하고 지향했던 궁극적 가치가 공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무장기포와 공존(共存)

다음은 무장에서 기포하며 읽었던 포고문 전문이다.

<무장현에서 동학인포고문을 베껴 올리다(茂長縣贍上東學人布告文)>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과 부자의 관계는 인륜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는 곧으며,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효를 행한 다음에야 가정과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며, 끝없는 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어질고 효성이 깊고 자애로우며 신명하시고 총애하시어서, 어질고 곧은 신하들이 잘 도와 다스리게 한다면, 곧 요순의 정치와 한나라의 문제와 경제의 치세를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바랄 수 있다.

오늘날 신하된 자는 보국(輔國)은 생각지 아니하고, 녹봉과 벼슬자리만을 도둑질하며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첨하는 말을 일삼아 총성스럽게 간하는 선비를 일컬어 ‘요언(妖言)’이라고 하고 정직한 사람을 일컬어 ‘비도(匪徒)’라고 한다. 안으로는 보국의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을 침학하는 관리가 많아져, 백성들의 마음은 나날이 더욱더 변해갔다. 안으로는 즐겨 생업을 할 수 없고, 밖으로는 보호하고 베풀어줄 대책이 없다. 학정은 날로 더 심해가고 원성은 서로 이어져, 군신간의 의리와 부자간의 윤리, 상하간의 분수가 드디어 무너져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관자(管子)가 말하기를, “사유(四維)가 펼쳐지지 않으면 국가는 곧 망한다”고 하였는데, 오늘날의 형세가 옛날보다 심한 것이 있다. 공경이하로부터 방백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처한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몸을 살찌우고 집안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을 꾀하고 있다.

관료를 선발하는 것을 돈을 벌어들이는 길로 여겨서 과거를 보는 시험장을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모두 만들었으며, 수많은 재물과 뇌물들은 국가의 창고에 바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사사로이 차지하여 국가에는 부채가 쌓여도 값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교만과 사치와 음란과 안일에 빠져 두려워하거나 거리까지 않으며, 전국을 짓밟고 으깨어 만민은 도탄에 빠져 있다. 수령방백의 탐학함이 참으로 그러하니 어찌 백성이 곤궁하지 않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그 근본이 다치게 되면 곧 나라는 망한다. 그런데도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방책을 생각지 아니하고, 밖으로 고향에 집을 마련하여, 오직 혼자만 온전하기 위한 방도를 도모하고 다만 녹봉과 벼슬자리만 도적질하니, 어찌 옳게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초야의 유민(遺民)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을 것을 갈아먹고 임금이 준 옷을 입고 있으니, 국가가 위험에 처하여 망하게 된 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전국이 마음을 같이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 보국안민으로써 죽고살기를 맹세하였으니, 오늘의 광경은 비록 놀랄 일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 움직이지 말고 각기 본업을 편안히 여기며 태평세월을 함께 밟고 모두 임금의 덕화를 기린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수록(隨錄)』)

무장포고문에는 당시 기포에 참여했던 농민군들의 이념 및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

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방백수령(方伯守令)부터 중앙의 공경대부(公卿大夫)에 이르기까지 조선 지배층이 저지른 부패에 대해 총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비판할 것

둘째, 부패로 인해 조선이라는 국가가 처한 존망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촉구할 것

셋째, 기포에 참여하는 농민군 스스로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나서는 주체임을 자각할 것 등이다.

즉, 당시 농민군들이 봉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다움’이 100여 년 전 당시에는 목숨 걸고 싸우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였기에 농민군은 싸웠다. 결국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재산, 생업, 가족 그리고 가장 소중한 목숨도 버리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당시 농민군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셈이다. 무장포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학농민군의 궁극적 목표가 나뿐만 아니라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봉기를 일으켰다. 이것을 축약하여 한 단어로 개념화한다면 그것은 바로 ‘공존(共存)’이라고 할 수 있다.

2) 백산봉기와 공존(共存)

다음으로 백산 창의문과 12개조 기율에도 공존의 가치는 내포되어 있다. 농민군은 다음 내용의 격문을 백산에서 선포하였다.

우리가 의(義)를 들어 이에 이른 것은 그 본뜻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가운데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의 위에도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쫓고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의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의 밑에 굴욕을 받는 소리(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동학사』, 오지영)

이 격문은 오지영의 『동학사』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실제 농민군이 발표한 격문이 맞는지, 그 사실 여부에 대한 학계 및 연구자 등의 충분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격문의 내용만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농민의 군대를 조직하고 농민 군대의 활동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이 격문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국가와 지배세력을 바로잡고 탐학한 관리를 처단하며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봉기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당시 농민군이 지향했던 바와 일치한다. 더욱이 이와 함께 발표한 4대 명의도 농민군의 행동 강령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

첫째,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마라.
둘째,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셋째,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다.
넷째, 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 권귀(權貴)를 모두 없앤다.(『동학사』, 오지영)

위 4대 명의에서 농민군이 왜 봉기했는지, 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외세를 축출하며 탐관오리를 제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격문에 드러난 동학농민군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다음의 12개조 기율은 농민군 군사행동의 기준이다.

1. 항복하는 자는 대접한다.
2.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3. 탐학한 자는 추방한다.
4. 순종하는 자에게는 경복한다.
5. 도주하는 자는 쫓지 않는다.
6. 굶주린 자는 먹인다.
7. 간사하고 교활한 자는 그치게 한다.
8. 빈한한 자는 진휼한다.
9. 불충한 자는 제거한다.
10. 거역하는 자는 효유한다.
11. 병든 자에게는 약을 준다.
12. 불효자는 죽인다.(『동학사』, 오지영)

위 12개조 기율의 내용을 보면 ‘항복하는 자는 대접하고, 곤궁한 자는 구제하며, 굶주린 자는 먹이고, 빈한한 자는 진휼한다’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농민군의 행동준칙으로 세운 것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 규율까지도 결국 이웃을, 사회를,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다. 혁명으로 혼란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지만 그 사회 속에서도 약하고 가난한 자를 먼저 돕는 것을 우선시하는 규율이 바로 동학농민군의 정신인 것이다. 이는 농민군들이 봉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들은 단순히 정부를 전복(顛覆)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 민중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농민군의 사상은 백산대회에서 세운 격문 등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동학농민군이 지향했던 바는 바로 ‘공존(共存)’과 ‘상생(相生)’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더불어 서로 돕고 북돋우며 다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 그 사회를 만들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하여 농민군들이 일어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3) 전주화약과 공존(共存)

전주화약에서 우리는 공존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과 초토사 홍계훈은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철수하고 홍계훈은 농민군의 신변을 보장하며 폐정개혁안을 임금께 올린다’는 조건으로 서로 타협을 맺었다. 이를 ‘전주화약(全州和約)’이라고 한다. 전주화약을 맺은 농민군은 5월 8일 아침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지문을 홍계훈에게 올린 뒤 전주성의 동·북문을 열고 전주성을 빠져 나왔다. 서둘러 전주화약을 맺어야 했던 주요 이유는 청나라와 일본군대가 이미 조선에 주둔해 있다는 외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청·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는 것은 농민군의 입장에서,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또 당시 민중들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일본군이 조선의 요청도 없이 조선 땅에 일방적으로 주둔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다는 명분을 들어 조선에 주둔하기 시작하였고, 조선 정부의 철병 요구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었다. 때문에 양자 모두에게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농민군을 철수시키고 전주성을 회복해야만 했다. 이에 농민군과 조선 정부는 협력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농민군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농민군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바로 당시 ‘조선’이라는 공동체였다는 점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던 전주성을 내준 것이다. 만약 그러한 관점을 견지하지 않았다면 굳이 전주성을 내주고 물러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농민군의 선택 속에는 자신들 뿐만 아니라 조선이라는 공동체가 모두 다 잘 살아 존재하기를 바라는 ‘공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농민들은 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4) 폐정개혁안과 공존(共存)

동학농민군들은 조선사회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일어섰다. 농민들은 가족과 이웃 등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보다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일어났다. 그들이 지향하였던 바는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중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고부봉기, 무장기포, 백산대회, 황토현전투, 황룡전투, 전주성 점령’ 등의 과정을 거치며 농민군들의 역량은 증대되었고, 농민의식도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은 자신이 추구했던 바를 개혁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전투에 나가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 27개조’이다. 전주화약 과정에서 정리되었던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은 집강소 단계에서 구체화되어 그 실질적인 안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은 전주화약에서 초토사 홍계훈을 통해 왕에게 보고할 것을 약속받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봉준 판결 선고서에서 폐정개혁안 27개 조항 중 일부 조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지영의 『동학사』에서도 폐정개혁안 12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구체적인 조항은 전봉준 판결 선고서의 27개 조항에서도 자세히 드러난다. 그러나 실제로 제시되었다고 알려진 조항은 다음 14개 조항이다.

1. 전운소(轉運所)를 혁파(革罷)할 것
2. 국결(國結)을 더하지 말 것
3. 보부상인들의 작폐(作弊)를 금할 것
4. 도내 환전(還錢)은 舊감사가 거두어 갔으니 민간에 다시 징수하지 말 것
5. 대동미를 상납한 기간에 각 포구 잠상(潛商, 외국상인과 매판 상인들)의 미곡 무역을 금할 것
6. 동포전(洞布錢)은 매호(每戶) 봄가을로 2량(兩)씩 정할 것
7. 탐관오리들을 아울러 파면시켜 내쫓을 것
8. 위로 임금을 옹폐하고 관작을 팔아 국권을 조롱하는 자들을 아울러 축출할 것
9. 관장이 된 자는 해경(該境)내에 입장(入葬)할 수 없으며 또 논을 거래하지 말 것
10. 전세(田稅)는 전례에 따를 것
11. 연호(煙戶) 잡역을 줄여 없앨 것
12. 포구의 어염세(漁鹽稅)는 혁파할 것
13. 보세(漕稅)와 관답(官答)은 시행하지 말 것
14. 각 고을에 원이 내려와 백성이 산지(山地)에 근표(勤標)하고 투장(偷葬)하지 말 것

나머지 13개 조항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동학농민군이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15. 균전어사(均田御史)를 혁파할 것
16. 각읍시정(市井) 각 물건에의 분전수세(分錢收稅)와 도고명색(都賈名色)을 혁파할 것
17. 백지(白地)징세와 사전(私田)진결(陳結)을 거두지 말 것
18. 대원군을 국정에 간여토록 함으로써 민심을 바라는바대로 할 것
19. 진고(賑庫)를 혁파할 것
20. 전보국(電報局)이 민간에 대해 폐해가 크니 혁파할 것
21. 각읍 관아에 필요로 하는 물종(物種)은 시가(時價)에 따라 사서 쓰도록 할 것
22. 각읍 아전 자리를 돈으로 임명하지 말고 쓸만한 사람을 택할 것
23. 각읍 이숙들이 천금(千金)을 축냈으면 그 자를 처형하고 친족에게 징수치 말 것
24. 오래된 사채를 관장이 끼고 억지로 거두는 것을 모두 금단할 것
25. 동학교도를 무고히 살육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동학과 관련돼 가두어진 이는 일일이 신원할 것
26. 경영병저리료미(京營兵邸吏料米)는 과거의 예에 따라 삭감할 것
27. 각국 상인들이 포구에서 장사하고 있으니 도성(都城) 시장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아무 곳에 서나 함부로 행상하는 일을 금하도록 할 것

위에서 확인된 것처럼, 전주화약에서 농민군이 양호초토사 홍계훈에게 제시한 27개 조항의 폐정개혁안은 당시 백성들이 겪었던 지배층의 각종 수탈, 탐학, 부정부패에 대한 개혁을 요구

하는 것이었다. 즉 대부분 당시 조선 사회에 만연해 있던 삼정(三政)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27개 조항 중 절반에 가까운 13개 조항이 이와 관련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 외에도 폐정개혁안에는 ‘도고(都賈) 혁파’와 ‘분전수세의 철폐’ 등 상인들의 생활에 관련되는 내용, 아전들에 대한 불만, 동학에 대한 탄압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동학농민혁명에는 농민들은 물론 상인, 아전 층까지 참여했음을 짐작케 한다. 동학농민군은 어느 한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 조선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피지배계층의 전반적인 요구를 대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은 탐관오리의 축출, 민씨 정권의 퇴진과 대원군의 섭정(攝政)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조선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폐정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전봉준 등의 농민군 지도부는 이러한 자신들의 폐정개혁 요구를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양호초토사 홍계훈에게 제시하였고 결국 승낙을 받아내었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수록된 12개조의 폐정개혁안이 그동안에는 전주화약 단계에서 제시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전주화약 당시에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집강소 시기의 폐정개혁 내용을 종합하여 나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27조 폐정개혁안 내용과는 질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12개조에는 조선사회의 봉건질서 해체까지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도인(道人)과 정부(政府)와 사이에는 숙혐(宿嫌)을 탕척(蕩滌)하고 서정(庶政)을 협력(協力)할 사(事)
2. 탐관오리(貪官汚吏)는 그 죄목(罪目)을 사득(查得)하여 일일엄징(一一嚴懲)할 사(事)
3. 횡포(橫暴)한 부호배(富豪輩)는 엄징할 사(事)
4. 불량(不良)한 유림(儒林)과 양반배(兩班輩)는 징습(懲習)할 사(事)
5. 노비문서(奴婢文書)는 소거(燒祛)할 사(事)
6.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待遇)는 개선(改善)하고 백정(白丁) 두상(頭上)에 평양립(平壤笠)은 탈거(脫去)할 사(事)
7. 청춘과부(青春寡婦)는 개가(改嫁)를 허(許)할 사(事)
8. 무명잡세(無名雜稅)는 일병물시(一幷勿施)할 사(事)
9. 관리채용(官吏採用)은 지벌(地閥)을 타파(打破)하고 인재(人才)를 등용(登用)할 사(事)
10. 왜(倭)와 간통(奸通)하는 자(者)는 엄징(嚴懲)할 사(事)
11. 공사채(公私債)를 물론(勿論)하고 기왕(己往)의 것은 병물시(幷勿施)할 사(事)
12. 토지(土地)는 평균(平均)으로 분작(分作)케 할 사(事)

위 12개조의 개혁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노비문서 소각, 천민에 대한 차별 금지, 토지 균등’ 등의 조항은 농민군들이 평등을 넘어서서 조선사회의 봉건체제 변혁 및 해체까지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폐정개혁안은 조선정부와 동학농민군의 공존을 위한 것이며, 공존의 가치 위에서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요구조건을 조선정부가 들

어쭙으로써 조선정부와 동학농민군은 공존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조선이라는 국가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5) 집강소와 공존(共存)

동학농민군과 조선 정부 사이에 맺은 전주화약에서 결정된 것은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하고 자진 해산하여 각자 고향에 돌아가는 것’, 그리고 ‘가장 하부조직인 면·리 등에 집강과 같은 조직을 두고 폐정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농민군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을 김학진으로부터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자신들이 요청한 그대로 폐정개혁안이 시행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김학진도 농민군들에게 자신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하여 농민군들이 면·리 집강을 맡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개혁을 꿈꾸었던 농민군에게 이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비록 전주화약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기는 했으나 이는 임시변통 식 형식적인 방안이라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방행정의 핵심은 군·현이었기 때문에 농민군은 김학진이 제시한 면·리가 아닌 군·현에 집강을 설치하길 원했던 것이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폐정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농민군은 지도부에 김학진과의 회담을 제의하였고, 전봉준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봉준과 김학진은 7월 6일 전주에서 다시 회담을 가졌다. 회담을 통해 전봉준과 김학진은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다. 바로 관민상화(官民相和)의 원칙을 이끌어 낸 것이다. 양자는 정부와 농민군이 협력하여 전라도 내를 안정시키고 치안 질서를 바로잡을 것에 의견을 모았다.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전라도 각 군·현에 집강소를 전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김학진이 농민군의 지배력을 합법적인 수준에서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민군은 집강소의 설치 및 운영을 나라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대단한 성과이다. 또한 김학진은 전라도 일대의 일정한 치안권과 자치권을 전봉준에게 위임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가 혼란한 이때에 김학진은 전봉준과의 합의를 통해 전라도 내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마침내 농민군과 관이 협력하여 치안질서를 바로잡고 전라도 내의 안정을 추구하는 타협적인 집강소 체제가 성립되었다.

집강소의 설치와 운영은 동학농민군이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공존’을 실행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조선정부도 인정해 준 역사적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국가에 대항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개혁을 요구하였던 동학농민군이 조선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군이라는 자발적인 조직이 행정력을 기반으로 한 행정적 절차와 사회적 개혁을 추진해나간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자 가치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전개되는 민주주의의 그리고 지방자치의 효시를 바로 농민군의 집강소에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농민군의 집강소 설치와 운영은 빼놓을 수 없는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성과인 만

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6) 남·북접 연합과 공존(共存)

전봉준 등 지도부를 비롯한 농민군들은 9월부터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한 2차 봉기를 준비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주하게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였지만 재봉기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와 함께 동학 제2대 교주 최시형이 이끄는 충청도 일대 농민군의 합류를 끝까지 기다렸다. 최시형은 1차 봉기 때 전라도가 중심인 남접의 무장활동에 동의하지 않았고, 재봉기를 준비할 당시에도 기포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군을 상대해야 하는 전봉준의 입장에서는 북상의 진격로에 있는 최시형 휘하 북접의 충청도 등 동학교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던 최시형은 동학교도에 대한 관군과 민보군의 침탈이 계속되고 자신의 휘하에서도 봉기 요청이 쇄도하자, 마침내 봉기를 요청하는 손병희 등에게 “전봉준과 협력하고 스승의 억울함을 신원하며 우리 도의 큰 뜻을 실현하라”라는 명을 내려 봉기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였다. 최시형은 북접농민군을 지휘하는 총령(統領)으로 손병희를 지명하였다. 최시형의 명령이 전달되자 특히 충청도의 거의 대부분 지역의 농민들도 봉기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9월에 일어난 재봉기는 충청도 전역이 동학농민혁명의 주 현장이 되었다. 최시형의 명령에 따라 집결한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 농민군은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 농민군 주력에 합류하였다. 전봉준이 이끄는 전라우도 농민군 4,000여명도 전라 각지의 무기고를 탈취하여 무장력을 강화한 뒤 추수가 거의 끝날 무렵에 다시 북상하기 시작하였다. 삼례를 출발한 이들은 10월 12일에 논산에 도착하였고, 최시형에게 지휘권을 넘겨받아 손병희가 이끌었던 동학농민군도 보은을 출발하여 15일경에 논산에 합류하였다. 이로써, 남·북접 연합군이 완성되었으며 이전까지 갈등하였던 이른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의 사회개혁과 최시형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의 동학교단이 공존하여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3. 동학농민혁명의 내포적 개념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생성된 상징적 개념이 있다. 먼저 동학사상적 측면에서 생성된 개념인 사인여천(事人如天), 인시즉천(人是則天), 유무상자(有無相資) 등을 들 수 있다. 사인여천(事人如天)은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뜻이다. 인시즉천(人是則天)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이다. 유무상자(有無相資)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나눈다는 뜻이다. 이러한 동학사상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공존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존중 그리고 공생즉, 공존의 가치로 설명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생성된 개념은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 광제창생(廣濟蒼生), 관민협치(官民協治)’ 등이 있다. 보국안민(輔國安民)은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뜻이며, 제폭구민(除暴救民)은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다. 광제창생(廣濟蒼生)은 널리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며, 관민협치(官民協治)은 관과 민이 함께 다스린다는 뜻이다. 이러한 개념 역시 모두 궁극적으로는 공존의 가치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이 내포한 개념을 통해 확인된 동학농민혁명의 지향은 헌법 전문에서 확인되는 대한민국 지향점과 그 방향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제시된 가치와 개념은 ‘민주개혁, 평화적통일, 정의·인도의 동포애, 민족의 단결, 사회적 폐습과 불의타파, 자율과 조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기회균등,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안전과 자유, 행복추구’ 등이다. 이러한 가치는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에서 생성된 개념인 ‘사인여천, 인시즉천, 유무상자, 보국안민, 제폭구민, 광제창생, 관민협치’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들이다.

<표2>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헌법정신

동학농민혁명의 지향	대한민국 헌법(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여천(事人如天) :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존중, 행복추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 인시즉천(人是則天) : 사람이 곧 하늘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존중, 행복추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 유무상자(有無相資) :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인도와 동포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 보국안민(輔國安民) :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개혁, 민족의 단결, 평화적 통일 ○ 제폭구민(除暴救民) :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폐습과 불의타파, 행복추구 ○ 광제창생(廣濟蒼生) : 널리 백성을 구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기회균등 ○ 관민협치(官民協治) : 관과 민이 함께 다스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개혁, 안전과 자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 자율과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개혁 ○ 평화적 통일 ○ 정의 인도의 동포애 ○ 민족의 단결 ○ 사회적 폐습과 불의타파 ○ 자율과 조화 ○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 기회균등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 안전과 자유 ○ 행복추구

□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호, 1987.10.29.) 전문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IV. 맺음말 : 동학농민혁명의 미래가치 - 공존(共存)

이상에서 연구자들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동학농민혁명 직후 동학란으로 인식된 이 사건은 점차 갑오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 등으로 변화하며 역사발전 전에 이바지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초기에는 반봉건 민주화와 반외세 자주화 관점에서 해석되었고, 이후에는 나눔과 배려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고자 하는 데까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의된 가치 또는 개념은 바로 ‘자유, 평등, 민주, 개혁, 자주, 민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동학농민혁명에서 추출해야 할 미래가치는 무엇일까? 필자는 동학농민혁명이 내포하고 있는 ‘공존(共存)’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다’라고 할 수 있다. 다함께 잘 사는 세상. 이는 우리 역사에서 뿌리를 찾아보면 대동사상으로 연결된다. 대동사상은 공자가 집대성한 『예기』에 나오는 개념으로 공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동사상은 동학농민혁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그리고 이때 농민군이 세웠던 각종 격문을 통해 동학농민군이 추구하고 지향했던 궁극적 가치가 공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장포고문에는 당시 기포에 참여했던 농민군들의 이념 및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당시 농민군들이 봉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한 명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무장포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동학농민군의 궁극적 목표는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봉기를 일으킨 것이다. 이것을 축약하여 개념화한다면 바로 ‘공존(共存)’이라고 할 수 있다.

백산봉기에서 동학농민군은 12개조 규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행복하는 자는 대접하고, 곤궁한 자는 구제하며, 굶주린 자는 먹이고, 빈한한 자는 진흙한다’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농민군의 행동준칙으로 세운 것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 규율까지도 결국 ‘이웃을, 사회를,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다. 혁명으로 혼란의 사회가 도래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 사회 속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를 먼저 돕는 것을 우선시하는 규율이 바로 동학농민군의 정신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정부를 전복(顛覆)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 민중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일어난 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동학농민군이 지향했던 바는 바로 ‘공존(共存)’과 ‘상생(相生)’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이 전주화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이라는 공동체를 보전하고자 했던 것이

다. 이러한 농민군의 선택은 바로 그들이 지향한 가치가 바로 조선이라는 공동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조선 모두가 다 잘 살아 존재하기를 바라는, 공존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폐정개혁안의 제시 역시 조선정부와 동학농민군의 공존을 위한 것이며, 공존의 가치 위에서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요구조건을 조선정부가 들어줌으로써 조선정부와 동학농민군은 공존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조선이라는 국가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집강소의 설치와 운영은 동학농민군이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공존을 실행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조선정부가 인정해 준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국가에 대항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개혁을 요구하였던 동학농민군이 조선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실이기 때문이다. 이후 전개되는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자치의 효시를 바로 농민군의 집강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2차 봉기과정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의 사회개혁과 최시형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의 동학교단이 연합하여 서울로 진격한 것은 공존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생성된 상징적 개념인 사인여천(事人如天), 인시즉천(人是則天), 유무상자(有無相資),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 광제창생(廣濟蒼生), 관민협치(官民協治) 역시 모두 궁극적으로 공존의 가치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대혁명의 핵심적 가치는 ‘자유, 평등, 박애’이며,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다. 그렇다면 동학농민혁명의 핵심적 가치는 무엇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 바로 ‘공존(共存)’이다. 이러한 공존의 가치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에 깊숙이 그리고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써 매우 의미 있는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이 내포하고 있는 이 공존의 가치는 앞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핵심적 가치라고 생각된다. 공존하지 않으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논의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진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선경, 「농민전쟁 100년, 인식의 흐름」, 역사문제연구소 천팔백구십사년 농민전쟁연구반 엮음, 『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 서울: 거름, 1994.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민족운동으로 꽃피우다』,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
- 배항섭,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교과서 서술 방향의 새로운 모색」, 『역사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대회자료집, 2011.
- 신유훈, 『禮記 「禮運」篇의 大同思想 研究』,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4.
- 유바다,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에 대한 시민혁명적 관점의 분석」, 『동학학보』 58집, 2021.
- 이이화, 『이이화의 동학농민혁명사』, 파주: 교유서가-교유당, 2019.

[주제발표 4]

동학의 생명사상과 한살림

임채도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차 례

- I. 머리말
- II. 동학과 한살림의 만남: 장일순과 김지하
- III. 「한살림선언」과 동학
- IV. 맺음말 : 한살림과 밥의 철학

I. 머리말

이 글은 한살림 역사와 철학에서 동학사상이 미친 영향과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살림을 정초하는데 큰 영향을 준 생명사상가 장일순과 김지하의 동학론, 그리고 「한살림선언」(1989)에 나타난 동학의 핵심 개념과 한살림의 수용 논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정된 지면이나 현재 한살림운동의 ‘밥’운동에 대한 소개도 덧붙인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20세기 초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배, 한국전쟁과 분단, 그리고 오랜 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져왔다. 이 역사 속에서 한국 민중은 용감하게 압제와 불의에 저항했고 공동체와 나눔의 생활방식은 저항의 근원적 힘이였다. 한살림의 기원은 죽임과 불의에 항거하는 오랜 역사의 연장선에 서 있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한국의 ‘근대화’과정은 맹목적인 물질만능, 성장 지상주의를 낳았고 그 결과 도시에서는 절대다수가 빈곤과 소외로 고통 받고, 농촌에서는 화학농업으로 인해 농민의 80%가 농약남용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이에 1960~1980년대까지 군부독재에 저항해온 장일순, 김지하, 박재일, 최혜성, 김영원, 이순로, 김민기 등 일단의 저항적 지식인, 문인, 농민운동가들은 이 ‘죽임’의 상황이 도래한 원인을 성찰

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1988년 6월 25일 ‘한살림연구회 준비모임’이 결성되었고 5차례의 토론을 거쳐 1989년 1월 ‘한살림모임 창립준비위원회’로 전환한 후 11차례의 공부모임과 4차례의 토론회를 다시 열었고 1989년 10월 29일 대전에서 ‘한살림모임’을 창립하면서 80여 쪽, 4만 5천여 자에 달하는 「한살림선언」을 발표하였다.

「한살림선언」의 정초자들은 20세기 중후반 서구 사회의 신과학운동과 체계이론, 녹색운동의 성취에 주목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모두 근대의 기계적 산업문명을 옹호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늘날 산업문명은 “합리성과 능률성을 표방하고 성장을 추구하면서 더욱더 거대화, 거대화, 중앙집권화되어 가고 있지만 (중략) 결국 기계문명은 생명의 부정이며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며, 그것은 곧 전 인류의 죽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전환적 각성은 한국사회가 걸어온 역사적 특수성은 물론, 인류사회가 직면한 문명위기 극복이라는 보편적 문제인식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살림선언」은 탈근대의 출로를 한국의 전통사상인 동학에서 찾고 있다.

동학사상은 19세기 말 일본제국주의와 열강의 침략 아래 핍박받던 조선(한국) 민중들이 ‘반외세’, ‘반봉건’, ‘평등세상 실현’의 기치를 내걸고 제국주의와 봉건권력에 항거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적 기반이다. 1860년 조선왕조의 말기에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는 세상만물 모두가 우주생명(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귀중한 존재이며, 자연 질서에 합일된 삶을 추구(侍天主造化定)해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또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과 무기물까지 공경하고 하늘처럼 섬기라(敬天 敬人 敬物)라는 해월 최시형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 교리나 도덕률이 아니라 동서양을 뛰어넘어 새롭게 다시 열리는 대동세상(開闢)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었다.

한살림은 동학사상을 종교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사상, 생명운동으로 승화시켰다. 특히 동학사상에서는 우주와 사람과 물질, 자연과 인간과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바로 협동과 공생의 관계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한살림은 이러한 동학의 정신에서 자신의 사회적, 윤리적, 실천적 기초를 마련했던 것이다.

1986년 12월 서울의 변두리에서 작은 쌀가게로 시작한 ‘한살림운동’은 1989년 「한살림선언」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2,200여 명의 한살림 농업생산자들과 120여 개의 가공생산지에서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 가공하고 있다. 또 전국 226개의 도시 한살림매장에는 매일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품이 공급되고 하루에 도시 소비자 수만 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2014년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은 한살림이 ‘세계에서 가장 인상 깊고 성공적인 유기농업 관련 단체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돈독한 관계와 미래세대를 위한 기여 등에서 일관된 원칙을 유지’해왔다고 평가하며 제4회 국제유기농업상(One World Award)을 시상했다. 2021년 현재 한살림은 조합원 75만 명의 세계적 비영리 협동조합법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살림선언」은

영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로 번역되어 보급되고 있다.

II. 동학과 한살림의 만남 : 장일순과 김지하

동학과 한살림의 만남에 무위당 장일순과 김지하를 빼놓을 수 없다. 장일순(1928~1994)은 원주 태생으로 학업과 옥고, 징집 등으로 일시 서울과 거제도에서 머문 것을 제외하면 평생을 원주에서 살며 활동한 생명사상가이다. 장일순의 사상을 한 마디로 말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한학을 배웠으며, 열 두 살에 천주교 영세를 받았고, 대학에서 미학과 철학을 전공했으며, 노자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무위당(無爲堂), 조 한 알(一粟子)이라 했다. 전호근은 장일순의 철학을 ‘좁쌀 철학’이라 하며, ‘하나가 전체’라는 화엄불교의 세계관(一微塵中 含十方 十方日宇宙)과 일치하고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와 맞먹는다고 이야기한 맹자의 정의론과 상통하고,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에게 ‘엎드려, 기어’를 강조하는 점에서 노장의 철학과 이어져 있다고 한바 있다.¹⁾

장일순과 동학의 인연은 어릴 적 원주 집 앞에 있던 천도교 포교당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장일순 스스로 수운과 해월을 알게 된 것이 1946년 무렵이라고 말한 바 있다.²⁾ 1946년은 그가 경성공업전문대학에 재학 중 ‘국대안(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 반대투쟁에 나서며 동맹휴업 주동자로 제적되어 이듬해 복적 될 때까지 약간의 곡절이 있었던 시기이다. 장일순은 이즈음 다섯 살 연상의 이웃 형님 오창세로부터 동학에 대해 소개를 받았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장일순은 징집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통역병으로 근무했고 제대 후에는 대학생활을 접고 원주에서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지역 교육운동가로 활동했다. 그리고 4.19 이후 두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낙선하고 1970년대 중후반까지 그는 신탁운동과 지역사회개발운동에 전념했다. 유신과 민청학련의 칼바람이 불던 시기에도 장일순은 은인자중하고 있었으며 이때까지는 동학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글로 남긴 것이 별로 없다. 다만 이 시기 동안 장일순이 『동경대전』과 해월문집 등 동학 관련한 책을 항상 가까이 했다는 것은 주변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장일순에 스며든 동학이 그의 말과 글에서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1977년경이었다. 당시 시대상황과 사회운동에 대한 그의 생각의 전회는 ‘생명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종래의 운동방향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깨닫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1) 전호근, 『한국철학사』, 메멘토, 2015, 800~801쪽.

2) 김삼웅, 『장일순 평전』, 두레, 2019, 185쪽.

물론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당연히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를 막론하고 이 산업사회가 자연을 약탈하고 파괴시키며 생산해낸 그 결과를 공평하게 나눠먹자고 투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오늘날의 핵문제, 공해문제, 자원 보존문제 등등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 이 세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³⁾

장일순을 은둔의 사상가, 김지하의 정신적 스승라고 부르며 그의 사상적 영성적 면모를 강조하는 흐름도 있지만, 그의 생애 전체를 볼 때, 그는 한 시도 현실과 실천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글을 써서 남기지 않은 이유 또한 오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한다. 다만, 장일순이 생명으로의 근본적 전회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억압과 착취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투쟁이 이데올로기나 거대 담론을 통해 상대를 적대하고 무찌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깨달음은 관념을 쌓아 도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삶, 현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참여를 통해 이룬 것이었다. 그가 한살림운동을 제안하게 된 배경도 마찬가지였다.

한살림운동은 몇 십 년 동안 생각해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70년대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반독재운동을 계속 하다보니까 종전의 맑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가지고는 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악순환이 계속 되겠더라 말입니다. 농약, 비료를 마구 뿌리고 도시산업화를 꾀하는 것을 보니 이 강토 전체가 황폐화 되겠더라구요. 환경도 살고 우리도 살자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군요. 6.3사태 이후에 원주에서 농촌운동을 하려고 한 박재일 씨와 77년부터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공동체 내지는 농토를 살리고 먹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하고 얘기했어요. 김지하가 옥중에서 ‘선생님, 방향을 바꾸지 않으셨어요?’하더군요. 그래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깐 ‘아, 눈치 보면 알지요. 들어오는 쪽지도 그렇고...’하는 겁니다. ‘그래, 바꿨다. 종전의 이데올로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선생님, 저도 생명운동 아닙니까.’ ‘맞다. 그 방향으로 가야된다.’ ‘그렇게 하면 대중들이 먹지 않을 텐데요.’ ‘안 먹어도 던져라. 너는 글재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밥>이니 <南>이니, 모든 게 그 때부터 나가기 시작한 거지. 그런 것은 생명운동의 시작이었던 말입니다.⁴⁾

장일순이 가진 현장성, 민중성은 특히 동학의 해월 사상과 쉽게 융화될 수 있었다. 동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주로 수운 최제우(1824~1864)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바 해월 최시

3) 장일순,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2002, 103쪽.

4) 위의 책, 123쪽. 장일순은 또 다른 대담에서 1980년 김지하 출옥시 나는 대화를 자세히 설명한다. “난 사실은 77년서부터 결정적으로 바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네. 땅이 죽어가고 생산을 하는 농사꾼들이 농약중독에 의해서 쓰러져가고, 이렇게 됐을 적에는 근본적인 문제서부터 다시 봐야지. 산업사회에 있어서 이윤을 공평분배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만 가지고는 풀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나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인간만의 공생이 아니라 자연과도 공생을 하는 시대가 이제 바로 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지.” (위의 책, 160쪽) 이와 같이 장일순에게서 생명이란 관념적 도피가 아니라 죽어가는 농민의 생명, 말라가는 땅의 생명이라는 구체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형(1827~1898)에 관한 연구는 1920년대 이후 천도교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오다가, 1980년 이후 평등적 여성관과 근대적 인간관을 조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 생태계 문제와 여성, 영성과 관련한 활발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⁵⁾ 장일순은 그전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월의 삶과 철학에서 자신의 윤택된 삶과의 동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해월 최시형은 평생에 걸쳐 관으로부터 쫓기면서, 피신하기 위해 이사한 횃수도 30여 차례, 혼자서 몇 달씩 피신한 횃수도 40회가 넘는다. 그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나들면서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편찬하고 「內修道文」, 「理氣大全」 등 30여 종의 법설을 남겼다.⁶⁾ 해월의 설법은 말뿐만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평시라도 낮잠을 자거나 또는 공수무료하게 있는 법이 없고 반듯이 짚신을 삼았으며 노끈을 꼬았으니 만약 노끈을 꼬다가 일감이 다하고 보면 꼬았던 노끈을 다시 풀어 꼬았다”고 전해질 정도다.⁷⁾

장일순은 해월 최시형에 대해 “해월 선생께서는 37년이란 세월을 언제나 농민들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시는 동안 남녀 공히, 아이들까지도 지극히 섬기는 모범적인 삶을 사셨지요...(중략)... 그분은 미물에서부터 근원에 이르기까지 수미일관한 속에서 사신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매일 염송하시면서 말이지요.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미 말씀 다 하신 거지요. 그 이상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라고 말했다.⁸⁾

특히 장일순이 해월 사상에서 중요한 모티프(motif)로 드는 것은 ‘향아설위(向我設位)’, ‘이천식천(以天食天)’의 가르침이다. 그는 향아설위가 종래의 모든 종교에 대한 대혁명이라고 평가한다.

전 우주에 편재해 있는 생명, 한울님,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절 하느냐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또 성서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을 들먹이니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어디 따로 있느냐, 모두가 내 형제자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서부터 있는 자로다.’ 이러니까 그 무리들이 ‘나이가 이제 서른 살 된 사람이 아브라함 이전서부터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하고 따지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영원하신 생명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이니까 아브라함 이전서부터 있는 것일 수밖에. 해월이 말하는 ‘향아설위’에서 나(我)는 현상적인 나이면서 또 그 안에 있는 진짜 나는 한울님 아(我)란 말이야.⁹⁾

5) 김용휘, 「해월의 마음의 철학」, 동학학회 편저, 『해월 최시형의 사상과 갑진개화운동』, 모시는사람들, 2003, 112쪽.

6) 박맹수,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모시는사람들, 2011, 80~81쪽.

7) 『천도교 창건사』 포덕 26년조에 나오는 일화이다. 표영삼, 「해월신사의 피신과 최보따리 일화」, 모심과살림연구소 편, 『해월 생명사상』, 모시는사람들, 2005, 70쪽 재인용.

8) 장일순, 앞의 책, 178쪽.

9) 위의 책, 180쪽.

‘이천식천’에 대해서 그는 생명을 섬긴다는 것은 大小, 善惡, 勝敗의 구분과 경계를 초월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는 말씀이지. 천주교에서는 의식을 딱 하고서는 축성을 한 다음에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건 풀이로 보아서 한참 모자라는 거지. 해월 이야기로는 하늘이 하늘을 기르는 거니까 뭐 기도 드리고 말고도 없이, 이미 하늘이야. 그런데, 우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락 하나가 안 되잖아요. 나락이 작다고 해서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지. 그러니 생명운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소 개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크고 작은 것을 초월해야 하고, 선악을 초월해야 하겠지.¹⁰⁾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이 집권하던 시기에 장일순은 울분에 찬 젊은이들에게 ‘저이가 위험한 사람이야. 우리가 저 사람(전두환)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줘야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살인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며 장일순을 회색분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두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위의 의미에서 다시 이해하면 전두환이 저지른 살행의 악업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전두환을 비난하면서 내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미움과 폭력의 마음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생명을 파괴하는 악인에 대해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가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 된다는 뜻이다. ‘저 놈 나쁜 놈이야’라며 비난하고 보복의 폭력을 가하면 순간적인 복수의 쾌감은 느낄지언정 나도 똑같이 그와 같은 반열에 서게 되는 이치이다.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나와 타자 모두가 존귀한 생명이라는 것, 그 생명을 짓밟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두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나를,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고 살인자와 싸우면서 살인자를 닮아가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인 것이다. 전두환과 싸우면서 전두환을 닮아가기보다 더 큰 생명의 질서를 세상에 구현하는, 차원이 다른 목표를 가지고 투쟁을 해야 한다는 잠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장일순, 앞의 책, 180쪽.



<사진1> 장일순과 김지하
 [출처]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와 같이 장일순과 해월의 관계는 1백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생명과 부활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본격적인 한살림 생명운동의 출발로 이어지는 데는 또 한 사람의 역할이 있었다.

앞서, 인용문에서 장일순은 김지하와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70년대 후반 김지하가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에 갇혔을 때 전달했던 ‘쪽지’를 언급한 바 있다. 김지하가 당시 감옥에 있을 때 원주의 장일순은 민주화운동가 김정남을 통해 세세한 법정 투쟁방향과 대응 논리, 생명운동으로의 전회에 관한 생각 등을 깨알같이 적은 ‘쪽지’를 몰래 전달했다. 그만큼 장일순의 김지하에 대한 애정과 정성은 지극했다고 한다. 장일순은 김지하가 1980년 출옥한 다음 생명운동으로의 전회를 정리하여 세상에 알릴 것을 권유했고 김지하는 1981년경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후에 사실상 「한살림선언」의 뼈대가 되었다. 장일순의 생명사상은 1980년대 김지하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그 폭과 깊이를 더했다. 1980년대 중반 ‘한살림모임’이 만들어지고 김지하는 이 모임을 통해 한살림 사상과 운동의 기초를 닦는데 깊이 관여했다. 김지하는 한살림의 역사에서 빠트릴 수 없는 인물인데, 그는 한살림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970년대 원주에서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을 중심으로 김영주 씨, 박재일 씨, 이경국 씨,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분들과 제가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역의 농민과 광산근로자를 중심으로 협동운동을 조직했던 일이 있습니다. 특히 협업운동과 신용협동조합운동에 힘을 많이 쏟았지요. 그러다가 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1980년에 제가 출옥한 후, 그동안 추진해 오던 1970년대 협동운동을 평가한 결과 실험운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이념적 토대가 취약했던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명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며 분열시키고 죽이는 삶의 질서에 대항하여 살아 있는 생명으로서의 인간의 생명을 회복하는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¹¹⁾

1989년 10월 「한살림선언」이 발표된 직후 마련된 대담 석상에서 김지하는 우리 시대 동학의 의미에 대해 밝혔다. 그는 우주적 차원의 종교와 윤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여기에 부응하는 사상이 동학이라고 단언했다. ‘사람이 한울님이고 우주생명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 무생물까지도 우주생명을 모시고 있다는 동학의 시천주(侍天主)사상은 자연과 인간과 사회의 커다란 울타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바로 공생(共生)과 협동(協同)의 관계이며 이것을 은혜와 되갚음의 원리(反哺之理)로 설명함으로써 가장 발달한 고등종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¹²⁾

김지하는 동학이 한살림의 중요한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살림을 통한 ‘동학의 새로운 부활’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었다. 「한살림선언」이 발표된 직후 가진 ‘한살림모임 실행위원 간담회’(1989년 12월 16일)에서 김지하는 ‘한살림 활동의 구체화를 위하여’라는 이름의 발제문을 발표했다. 그는 「한살림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생명 세상을 여는 새로운 사회실천운동, 생활문화운동, 생활수양활동으로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이 발제에서 김지하는 식고(食告), 심고(心告)의 생활수행을 통해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신령한 우주생명으로 알고 한울처럼 공경한다’, ‘수심정기(修心正氣)를 생활화한다’는 등 한살림을 생활문화, 사회적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나아가 자기 수행과 수양활동으로 심화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삶의 세계관,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인간 영성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개벽인간’이 등장해야 한다는 새로운 문명의 요청 앞에서 생산양식이나 소비양식 등 일체의 삶의 양식을 새롭게 창조, 전개함으로써 참다운 의미에서 통일운동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Ⅲ. 「한살림선언」과 동학

「한살림선언」¹³⁾은 1960~80년대 한국 사회운동의 전통과 유기적 지식인들의 결합이 낳은 시대 성찰이자 생명운동 선언이다. <선언>의 내용은 크게 ‘문명위기론’, ‘생명론’, ‘한살림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언>의 정초자들은 세계사의 흐름과 신과학의 성과, 유럽 녹색사상과 비

11) 한살림모임 편, 무크지 『한살림』, 영진문화사, 1990, 46쪽.

12) 위의 책, 58쪽.

13) 한살림모임, 1989. 『한살림선언』, 모심과살림연구소(2019년 개정판). 아래 관련 내용도 이를 참고할 것.

판사회이론, 협동조합론을 흡수하며 당대 위기의 진원지로 계급과 이데올로기 갈등이 아니라 산업문명과 서구철학의 근본적 한계를 지목했다. 그리고 이 한계는 동양사상, 특히 동학의 생명사상에 기초한 새로운 생명의 세계관,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에 기반한 한살림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밝혔다.

첫째, 「한살림선언」은 핵과 전쟁, 빈곤과 환경파괴 등 죽임의 문명이 가져온 총체적 위기인식, 시대 성찰에서 시작한다. <선언>은 관념과 물질의 위기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기 - 핵위협과 공포, 자연환경의 파괴, 자원고갈과 인구폭발, 문명병의 만연과 정신분열적 사회현상,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악순환, 중앙집권화된 기술관료체제에 의한 통제와 지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위기 - 를 진단하고 있다. 또 위기의 본질은 좌우이념이나 저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문명의 근저에 도사린 반인간적, 반사회적, 반생태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즉, 데카르트, 뉴턴, 존 로크 등 서구의 근대철학과 사회사상은 인간과 물질을 고립되고 단절된 원자적 존재로 파악하고 자연, 사회, 우주를 기계론적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와 감성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인간을 사회와 자연으로부터 격리시켜서 인간이 사회와 자연 속에서 이웃 사람과 다른 생명들과 협동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망각케 했다는 것이다.

<선언>은 이 위기를 대립물의 갈등이 아니라 삼라만상 생명의 그물 속에서 이웃하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지속불가능한 죽임의 문명에서 서로 살리는 생명살림으로의 사상적 전환이야말로 시대의 요청이라 밝혔다.

둘째, 「한살림선언」은 개개인과 류적 존재로서의 인간, 자연이 모두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의 부분이자 전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뉴턴 이래 고전역학에서의 기계적, 개체론적, 환원주의적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생명의 복잡계가 서구의 신과학과 체계이론을 통해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의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신과학에서 생명은 자기를 스스로 조직화하는 체계이다. 생명의 활동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동시에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물질, 에너지, 정보를 주고받는 신진대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갱신을 하는 개방체계인 것이다. 나아가 생명은 단순한 자기갱신이 아니라 거시적인 생명과 공진화하면서 자기를 초월하고 동시에 자기를 조직화하는 창조적 활동으로 이어진다.

<선언>은 일리아 프리고진 Ilya Prigogine 등 신과학과 녹색사상에서 생명의 이념과 이론의 전거를 확인하는 한편,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사상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동학의 생명사상에서 생명의 가치관, 사회적·윤리적·생태적 기초를 발견한다.

동양 전통사상에서는 우주의 궁극적 실재를 초월적인 신으로 보지 않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활동 속에서 자신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보편적 一者, 즉 우주의 생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언>은 이러한 관점에서 동양 전통사상 중 힌두교, 불교, 중국의 주역사상, 노장사상

과 함께 우리 민족의 ‘한’사상과 풍류도, 동학의 생명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선언>은 동학을 수천 년 간 우리 민족의 마음에 이어져온 ‘한’ 사상이 민족의 암울한 전환기에 인내천 사상으로 다시 현현하게 된 것으로 본다. 또 한울님은 수운과 해월 선생의 깨달음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수천년간 형성되어 맥락을 이어온 한울님의 상(象)과 다르지 않으며, 우리 전통사상에서의 ‘한’, ‘길(道)’, ‘태극(太極)’, ‘기(氣)’의 또다른 이름으로 보고 있다. <선언>은 동학사상의 핵심을 하늘과 사람과 물건이 다같이 ‘한생명’이라는 우주적인 자각에서 시작해서 우주의 생명을 모시고(侍天) 키워 살림으로써(養天) 모든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체천(體天)의 도를 설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은 「한살림선언」에 기술된 생명론의 주요 내용이다.

- ① 사람은 물건과 더불어 다같이 공경해야 할 한울이다. (敬天, 敬人, 敬物)
- ② 사람은 자기 안에 한울을 모시고 있다.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 ③ 사람은 마땅히 한울을 길러야 한다. (侍天 養天, 以天食天)
- ④ ‘한 그릇의 밥’은 우주의 열매요 자연의 젖이다. ((萬事知 食一碗, 反哺之理, 向我設位)
- ⑤ 사람은 한울을 체현해야 한다. (十母天)
- ⑥ 개벽은 창조적 진화이다. (後天開闢, 無爲而化)
- ⑦ 불연기연(不然其然)은 창조적 진화의 논리이다. (不然其然)

시천주造化정(侍天主造化定), 삼경(三敬)사상, 이천식천(以天食天), 만사지식일완(萬事知 食一碗), 향아설위(向我設位), 후천개벽(後天開闢), 십무천(十母天), 불연기연(不然其然) 등은 동학사상의 주요 개념들은 결국,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의 생명이 얼마나 크고 무궁한가를 알 때 모든 생명과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한살림의 생명선언은 동학의 생명사상에서 생명의 본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사회적, 윤리적 실천의 기초를 마련한 셈이다.

한살림은 그 세계관에서는 물질, 생명, 정신이 역동적인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우주생명에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인간, 자연, 우주 모두가 동요를 통해 새로운 질서로 자기를 조직하는 생명이라는 점을 감지하고 있는 새로운 과학에서 그 이론적인 전거典據를 찾고 있다. 한편 한살림은 가치관에서는 한민족의 오랜 전통과 맥을 이어오고 있는 동학의 생명사상에서 그 사회적, 윤리적, 생태적 기초를 발견하고 있다. 동학은 물질과 사람이 다 같이 우주생명인 한울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거룩한 생명임을 깨닫고 이들을 ‘님’으로 섬기면서侍 키우는養 사회적,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을 자기 안에 통일하면서 모든 생명과 공진화해 가는 한울을 이 세상에 체현시켜야 할 책임이 바로 시천과 양천의 주체인 인간에게 있음을 동학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¹⁴⁾

셋째, 한살림에서 “한”은 하나 혹은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살림”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

14) 한살림모임, 1989. 『한살림선언』, 모심과살림연구소(2019년 개정판), 90쪽.

린다 혹은 모든 생명체들이 공생하며 살아가는 활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한살림은 낱알의 생명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며 하나의 큰 생명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요컨대 한살림운동은 생명과 자유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총체적 시대전환운동이라 할 수 있다. 「한살림선언」의 마지막 구성부분은 생명의 세계관에 기초해 새로운 생활양식(life-style)을 실현해 나가는 한살림운동의 정체성, 운동 방향과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한살림선언」이 말하는 생명의 세계관은 세 가지의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첫째 모든 생명이 하나의 우주생명에 합일되어 있고 우주생명이 나의 몸과 마음에 모셔져 있다는 깨달음이다. 인간 개체는 우주생명 전체와 떨어져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허위의 욕망을 버리고 더불어 공생하는 참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구라는 자연 생태계는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과 무기물들이 순환과 평형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인간은 의식적 존재로서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각성이다. 셋째,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이기적 욕망의 분별없는 추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며, 이웃과 협동함으로써 개체의 자율과 전체의 공생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각성이다.

<선언>은 이러한 각성에 기초하여 삶의 인식, 가치, 양식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지향하는 ‘생활문화운동’과 ‘사회실천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이 싸움은 생명의 투쟁인바, ‘인위적 폭력으로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류진화의 도정에서 새롭게 도래할 문명을 준비하는 창조적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후천개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끝으로 <선언>에서는 민족통일이 단순히 분단의 극복만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 개인과 공동체, 자연과 인간’을 다시 통일시키는 과정이며, 한살림은 전우주, 전생태계, 전인류를 생각하면서 민족통일을 위한 실천활동을 수행하고,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면서 생태적 균형, 사회정의, 자아실현의 길을 찾아가는, 생명의 이념과 활동을 펼쳐나가는 운동임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한살림선언」은 한살림을 생명의 이념과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선언>은 현재의 위기를 생명의 위기로 규정하고 생명과 자연, 사회에 대한 총체적 각성과 실천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운동의 세계관과 그 실천적, 사회 윤리적 준거를 수운과 해월의 동학사상에서 발견한다. 「한살림선언」에 동참한 사람들은 동학이 가진 혁명성이 거대한 이념이나 특출한 과학기술, 위대한 사상가의 예지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실천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협동과 연대에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명의 세계관 확립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		
자기실현 위한 〈생활수양활동〉	새로운 가치·양식을 지향하는 〈생활문화활동〉	생명의 질서를 실현하는 〈사회실천활동〉
새 세상을 창조하는 생명의 통일		
<p>민족통일은 인류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민족의 역할을 인식하는데서 출발 “전정한 통일운동은 우리 민족의 통일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류, 전생태계, 전우주생명과의 통일을 지향하는 생명운동”</p>		

<그림1> 한살림의 이념과 활동

IV. 맺음말 : 한살림과 밥의 철학

「한살림선언」이 발표되기 전(1988년 9월) 장일순은 한살림운동이 지녀야 할 마음(가치)으로 자애, 검약, 겸손 세 가지를 들었다. “겸손의 토대 위에서 세상을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자, 알뜰함으로 세상의 누구도 굶주리지 않게 하고, 자애 속에서 잘못된 사람조차 안식처를 찾도록 하자는 게 한살림 정신”이라고 하고, 이러한 진리를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 속에서 펼쳐 나가고자 하는 것이 한살림의 뜻이라고 말했다.

한살림은 지난 30여 년간 ‘밥 한 그릇’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밥을 살리는 운동을 해왔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이를 잇고 관계를 엮어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한사람에게로 다가가는 역임의 구체적인 매개로 ‘밥’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는 사람이 하늘이고, 밥이 하늘이라는 동학의 깨달음을 담은 것이며 동시에 밥에 질료 이상의 가치 즉, 생명의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서 밥을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허구의 공동체주의를 극복한 선언이자, 쌀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자본주의나 지배의 도구로 활용해온 사회주의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¹⁵⁾

밥은 생명을 살리는 자양분이자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밑거름으로, 밥을 기르고, 만들고, 먹고, 먹이고, 나누면서 서로에게 밥이 되는 과정을 통해 밥의 생명성이 실현된다. 최근 생존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내 밥(그릇)’부터 먼저 챙기려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방식은 결국 공멸(共滅)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밥이 되어준 너에게 감

15) 한살림30년비전위원회, 『한살림 새로운 30년의 비전을 묻다』, 한 살림연합, 2017, 99~101쪽.

사하며, 나도 이제는 누군가의 밥이 되고 싶다’는 서원(誓願)을 담아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살리는 ‘밥’ 운동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내 안에 모셔진 거룩한 생명을 느끼고, 내가 딛고 사는 땅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지역의 이웃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생태계에 책임지는 한살림운동은 결국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나부터 시작’하는데서 이루어진다. 내가 먼저 밥이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더욱 살맛나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바야흐로 전환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한살림은 누구를 위한, 어떤 방향으로의 전환인가라는 큰 물음 앞에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동고동락(同苦同樂)의 나눔을 제안한다.

[주제발표 5]

동학농민혁명과 생명평화

— 우는 사람들과 상처입는 자연 그리고 고통받는 동물들* —

최은희

작가, 동학시정감시단

차례

- I. 머리말 : 동학과 소설-지금 여기의 동학
- II. 상두산 석산과 동학
- III. 동학과 세월호
- IV. 동학과 고통받는 동물들
- V. 동학과 우는 사람들 그리고 신음하는 천지자연
- VI. 페이스북과 동학

I. 동학과 소설 : 지금 여기의 동학

개념 - 춤추는 꽃들의 연대기를 시작하며

마침내 배가 포구를 떠납니다.

7년 동안 내 손으로 또다닥또다닥 만든 배가 강물로 나아갑니다.

첫 시작은 2014년 3월 해월 선생의 아들 최동희가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고려혁명당을 만들고 무장투쟁을 했던 이야기를 동학다큐소설로 써보라는 권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학의 역사

* 애초 주최측으로부터 요청받은 발표주제는 「동학농민혁명과 생명평화: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존중을 중심으로」였다. 그러나 최근 필자가 동학 생명평화운동을 실천하면서 느낀 소회를 진솔하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부제를 「우는 사람들과 상처입는 자연 그리고 고통받는 동물들」이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 주최측의 양해를 구한다.

를 공부하며 김개남 대접주에 대한 슬픔과 감탄을 느꼈지요.

개남은 부수는 자였습니다. 낡은 세계를 크게 허물어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개벽’에 대한 그 ‘거침없는 용기’가 저를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양반들과 임금 일본 제국주의가 개남을 두려워한 까닭이었고, 울부짖는 이들과 깨어있는 이들이 개남을 사랑한 까닭이었습니다.

개남이 이루고자 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또 미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남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쓰려는 김개남의 이야기는 한 영웅호걸의 일대기가 아닙니다. 김개남과 함께 더 큰 사랑과 용기 아름다움으로 살다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별에 한송이 꽃처럼 우연히 태어나 제멋대로 피었다가 홀연히 떠나는 존재입니다. 울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춤추는 사람들의 하나됨(連帶)과 역사(年代). 그래서 춤추는 꽃들의 연대기입니다. 김개남을 쓰고 최동희를 쓰게 될 때까지 조언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사진1.2 해월선생님의 두 아들 최동희와 최동호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최은희 동학소설

개남 開南
- 춤추는 꽃들의 연대기 -



최은희 작가
해마다출판사 대표

2장 병어리 처녀

"만석이 이부지. 손네 편이를 품에 안고 지면 웅간네가 나 지할 소리로 부른다. '주문외고 개시우?'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한말중이 저의 은근한 소리로 부르는건가. 앉아서 눈을 감고 있던 덕보영감은 마음이 흩어지면서도 속으로 외고있는 시헌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그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대 갈 개남정 머리가 잘 기억이 안난다. 진짜개남이었는지. 아무래도 세대가 배가 풀려오는 것 같은디." 뜬금없는 웅간네의 말에 덕보영감은 눈이 번쩍 뜨인다. "오대 조용히 말라씨요, 저쪽 방에 다 둘러 보게." "말씀이?" "배를 볼게 산일이 열매남지 않은 것 같아 라우, 혼인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남세스라에서 왔말로." "참말이여?" "이니 곧게 처녀 총각이 꼭 혼인해야 예가 생기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천석이 할 똥 똥때 남원에서 술하니 있던 온것도 사실이고." 웅간네가 말을 놓았다. 하지만 곧 폭풍찬속을 터뜨린다. "참말로 무슨 체체가 어찌 김할 할 줄도 모르고 똥 똥이름 줄도 모르고, 말이 똥 줄도 모르고, 머스리 본 늙은 시예미가 똥똥이 이고 똥네 우물가기도 우세스라에서, 일말민 신내어면 바말가여." 덕보영감이 뇌도 그랬다. 남원에서 왔다든 병어리 처녀는 손이 가래막 반죽처럼 된 것이 호미 안된 활래 방망이 한면 잡아본 적 없는 만반진 귀수 같았다. 똥똥이름 이고 나고다가 아가씨는 한이름 캐프린 뒤 웅간네는 머스리째 우물가에 내보내지 않았다. "저대갓고 이런 꼴꼬인 꼴짜기에서 어찌 살말가, 병어리니 똥똥이름 수도 없고." 한숨을 훌훌 내린다. 그러나 다행한 일 이닌가, 이들을 낳으면 천석이 살아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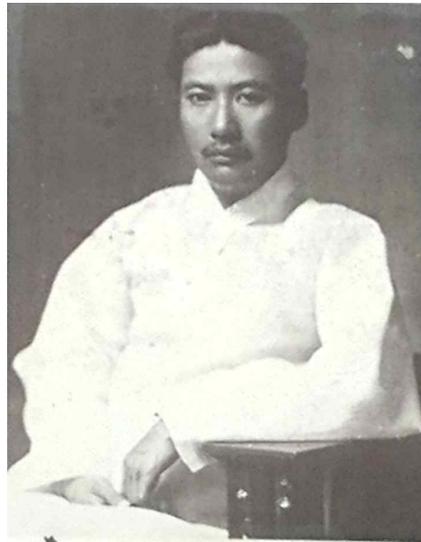
뜻하더라도 대가 끊이지는 않을 터였다. "나가서는 똥소의 허물말어." 덕보 영감은 다시 눈을 감는다. 손안의 영주를 굴리며 다시 속으로 주문을 시작한다. 시헌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시헌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참말로 내 일중에 내가 역할하는 건다 누한데 말말말디여. 똥네 여편네들이 내삭똥이네 우삭똥이네 우물가에서 일말이름 똥을 만인디. 참말로 똥겉똥에 쫓 구어먹듯 끼 똥똥 혼사똥 올린다고 똥 때 일어번어 아라는다." 줄줄거리던 웅간네는 덕보영감의 말이 없지 배후으로 돌아누웠다. **쭈똥 쭈똥.** 병어리 우는 쭈똥에 소리가 똥산 육내똥에서 들린다. 멀리 상두산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쭈똥체가 답하듯 또 울었다. 쭈똥 쭈똥. 자기가 했더니 아직 할 말이 더 남았는지 웅간네가 다시 돌아누웠다. "천석이가 실랑산에 싸우려 가지 정날 새벽에 일어오. 저 쪽 방에서 머라라라 작은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로도 나고해서 내가 살짝이 배에 귀를 댔는디.. 시상..". "웅간네가 말을 또 끊었다. 참지못해 덕보영감이 혼다. "됐는디?" "아니 곧게 살은 내가 살짝이 나가 똥똥으로 뜰어다녔는디....." "됐는디?" "시상에 처녀는 파맛어게 이똥똥이 이똥똥고 두루있고 우리 천석이는 일음같은 똥똥에 똥똥치모양 있어어말게요." "재복진지 일어났것?" "똥 소리라디여? 혼인한지 사똥똥똥 똥똥다 제가 말로 쏘아치고 새벽에 우는 똥은 모가지똥 비똥고 싶은 때가 바로 그 때인디." 덕보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다. 웅간네가 후막 일어나 않는다. "살마 똥속에 똥의 자식을 똥고 시침은 기 생년은 아니제지?" 덕보영감은 똥똥 혀를 차고 똥똥을 연다. "차려라 기생이년 냐지, 양반집 금지옥엽 똥을 똥학군들이 견똥에서 똥어갔다고 남원에서 똥똥이름 똥고 똥이제면 어찌해. 똥이년 양반똥을 똥보였으니 장삼죄인이라고 똥을 똥똥우고 똥색을 똥이 똥똥이름 똥을 하면 웅간네도 나도 죽은 똥속, 똥이는 또 누님 똥으로 똥똥똥 첫인가?" 나똥 똥을 주는지 똥똥지려는 똥이름 똥다 이며 웅간네가 기억이 하고 싶은 똥을 했다. "나는 어찌 저 병어리 처녀가 열 네 머스리 갈지가 살아라우, 참말로 개복인지 새복인



지. 천석이 늙은 새색시 데려온지 사똥만에 왜 똥똥이 똥똥고 죽어라 온 실랑산으로 가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만석이 보고잡소, 돈 많이 벌면 우리 어머 배단우에 기와다에 콩부리고 살게 해준다고 했던 우리 큰 아들.. 우리 분이 예하는 똥똥똥을 해도 그의 잘하고 도둑똥에 받아잡도 그의 잘했는디.. 씨를 농의 난리는 왜 일어나서 우리 만석이가 그리 쉼만 쉼도 시상을 뜨고... 똥이예미는 친정으로 뜨고.. 새부터보 눈물 바람이다. "은전에는 눈이 있어 제 발도 죽을 자리 찾아 간 것을 누굴 탓해?" 할인을 말며 쉼인 덕보영감이 번쩍 소리를 지른다. **머라에 서니 김랑한 말하늘에 똥 똥이 번쩍이다.** 세상사가 어찌되었든 저 밤하늘은 영롱하기 그지없다. "머라보 저 갈일이 똥은 저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은 끝말보다 작대여. 우리 모두는 영망말한 시상의에 눈에 안보이는 비똥이나 한가지라고 흥사포남은 늘 그려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양인 천민 나누는 것은 하늘이 보기에 가당치 않은 일어라고." 태인관이 관노비였던 할아버지는 시포의 당똥똥을 들고 떠다나던 관노비였다. 폭경에 다녀왔는 흥사포는 말마다 똥을 보고 글을 썼는데 갈에서 막을 가는 어린 봉에게 열에 대해 말했다. 덕보라는 이름도 흥사포를 뜻 잊은 할아버지가 지어온 것이었다. "저기 우주가 우리가 똥된 고향이고 죽으면 우리는 모두 저 김랑한 하늘의 똥로 간다고. 가고 오고 그러나 죽는 것이나 태어나는 것이나 하늘이 보기에 똥 다 똑같은 것이여." 그러나 죽는 걸 연애까지나 슬해할 똥똥은

않은 일어라고, 보부상군으로 똥똥똥에 갔다가 죽은 관이를 만석이가 생각할 때마다 덕보영감은 외보어왔다. 그러나 개남정은 어찌 죽으면 안똥 사람 살아있어야 할 사람이었다. 세상이 도보 지꾸로 돌아가서는 안되지 않은가. 그랬다 한 천석이는 살아있어도 열영 집에 못 들어 올 터였다. 싸움에서 지고 죽항을 들고 화승총을 들고 오랑데 열이 풀린던 동학군 똥에 고였은 호랑이 아가리가 똥 지 오 래였다. 살아남은 사람도 일어난 눈고 똥, 부포똥에 처자식이 있는 집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살아있었다는 여치고 비도라고 잡매갔다. 똥똥똥들은 씨를 말라야한다고 양반들은 시침을 인나 똥 외치고 다녔다. **우두키니 똥을 보던 덕보영감은 아래채 두영간 앞 끝똥똥을 연다. 구똥에 똥을 지피지 않아도 똥기가 가실 때가 왔으니 이제 고향에서 혼자 지내도 똥 터였다. 다시 침수똥 음리고 주문을 읽다. 새똥마다 주문 외우는 소리로 똥색이던 똥내어지던 개남정이 처형당한 후 사망으로 사냥꾼들이 똥학도를 잡으려 다니지 주문소리가 꼭 그쳤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할 때는 주문만큼 좋은 게 없었다. 똥생각을 똥치고 온 힘은 다해 위두보보똥 치침 마음속의 똥똥똥이 가라 앉고 똥은 똥똥이 똥똥 솟구치면 똥똥이 새학 똥똥는 나무처럼 새로운 기운에 갈매었다. **주문을 오래한 도인들은 그런 말에 저절로 이상관심 고개를 끄덕이지만 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 무슨 귀신 쉼나라 까먹는 소리 나고 고개를 젓거나 손가락을 마려에 대고 똥똥 똥이라는 것이 미친놈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슬과 고기보다 이똥속의 마누라로 다 형수 주문이 더 좋다는 말은 일말도 껴 똥 필요가 없었다. 주문중에 하늘의 지극한 기운이 열게 내리던 구똥처럼 똥똥 날이 열려서 일어나는 일을 보기도 하고 앉 남을 머리 보는 이도 있다지만 덕보영감은 그런 경지에 이른 적은 없었다. 그의 똥 수**

피현날, 2012. 박종규, 한지의 재색 안 일어난 개남정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을똥때. 자기금지 원위대갈 자기금지 원위대갈. 자기금지 원위대갈 자기금지 원위대갈..... 어느 날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덕보영감은 주문을 읽다. 개남정이 살아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머스리가 아를 낳았으면 하는 마음보다, 더 앞장을 섰다. "만석이 이부지 만석이 이부지, 끈임있고 만인디, 송라도사가 오늘 내일 한디요. 웅간네의 외침에 덕보영감은 눈을 뜨고 똥똥을 열었다. 어느새 제가 떠서 마당이 똥똥었다. 우똥에 다녀온 웅간네는 똥똥이도 내리지않고 심채로 입을 머스에 개복이가 똥똥이름 내려주려고 부엌에서 나왔다. "수상군들이 어찌나 배무했는지 또 순장 치우게 생겼고요 남조선 똥똥똥을 부른똥 개남정이 살아있었다는 거짓 소문을 장남에 퍼뜨렸다고 관어에 똥라가서는..." "양 개복이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다. 허리를 숙인 웅간네 머라에서 내려주려고 잡고있던 똥똥이름 놓는가 싶더니 똥똥이름이나 똥-다져 말똥에 걸었다. "아이고똥, 참말로. 마은 감자지 상추말에 똥 번디더니, 향어라따다 다 캐먹게 생겼네." 덕보영감은 머스리가 놓는서 예가 떨어지면 관일하게 찾었는데 어떤 말 일인지 개복이는 입을 틀어막고 신 채로 똥똥똥은 눈물만 똥똥 떨어뜨렸다. "근디 나가 송라도사똥 아니? 어찌 천정어 부지 죽었다는 소리시냐 똥똥이름까지 떨어 뜨리고 나냐?" "여기 김개남이 열이 워디여?" 갈지가 들려온 큰 소리에 웅간네가 입을 다똥었다. **낮은 똥똥 너머로 우락부락한 사내가 열글을 리똥고 있었다. 그 뒤에도 똥똥이름 쓰고 단단한 똥똥똥을 큰 머라가 서너은 더 되어보였다.**



II. 상두산 석산과 동학

- 천지부모로 되살아오는 해월과 김개남

호남 좌도 대접주 동학군 총관령 김개남의 고향이자 1891년 6월 해월 선생님이 보름간 머무르시며 호남 좌우도 포덕을 하셨던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 20년 넘게 5개의 석산허가 개발로

산과 물, 바람이 오염되자 산속에 자라던 송이버섯과 전국적 낚시 명소 저수지 물고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돈 필요없다, 석산 허가 취소하고 상두산 지금실 저수지를 생태복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위의 동학하는 분들(원평 집강소, 원평 동학유족회, 원광대 동학연구소, 모심과살림 출판사, 정읍 동학시정감시단, 동학소설 작가 등)이 현수막 게시 동참과 지지 방문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지금실 마을 대책협의회 홍정용 2021년 3월

지금실 주민들에게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평온한 시골마을에 개발업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파헤쳐진 상두산을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입법하는 나라들이 만든 개발업자들의 논리를 충실히 반영한, 법 제도에 의해 상두산이 좌우로 위아래로 찢겨져도 막을 수 없었다. 산외면 주민들의 안식처이자 정읍시민들의 식수원 발원지인 상두산은 그렇게 형체를 알 수 없이 망가져 신음하고 있었다.

다이내마이트 폭발에 안방 벽체가 금이 가고, 방바닥이 흔들려 불안에 떨어도 묵묵히 농사일하며 참을 수 밖에 없었다. 발파하는 날이면 상두산 소나무는 초록을 잃고 검붉은 숲으로 변해갔다. 돌먼지가 날아와 목안이 칼칼해도 물 한모금 마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마을 안길을 질주하던 25톤 트럭을 피하려다 넘어져 발가락 2개를 잃어버린 김씨, 시골 마당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강아지 풍이가 비틀거리며 내 품에서 끝내 숨을 거두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왔다. 지난 선거 때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든다기에 지금의 정읍시장을 주저없이 선택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 여기며, 석산개발이 멈춰지리라는 기대를 했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허가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었다는 정읍시장!

지금실 주민들에게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소연도 해보고 분노도 했었지만.

2021년 3월 8일 정읍시장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538 토석채취허가 승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페이스북] 지금실 마을 대책협의회 홍정용 2021년 3월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사)김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 원평 집강소에서 상두산 석산개발 반대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바라는 의미의 현수막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실에 거주하시는 김개남 장군 직계 후손인 호영씨와 현수막 게시를 하는 내내 동학농민

혁명의 성지인 상두산 훼손과 지금실 주민들의 건강 염려를 하며, 산외면 소재지와 동곡리에 현수막 게시를 하였습니다. 강한 바람에 현수막이 찢어질세라 끈을 단단히 묶고 있는 호영씨 뒷모습이 김개남 장군을 보는 듯합니다. 호영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김개남 장군 5대손인 호영씨와 봄나들이 겸해서 상두산 지금실제 준설관련 정읍시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의장님을 뵙고 싶어 찾아갔으나 일정관계로 뵙지 못하고, 전날 밤 지금실 주민동의서 서명 자료를 첨부한 진정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지난해 석산개발 토사석 유출로 지금실제 수생태계 파괴를 고발한지 어느덧 4개월이 흘렀다. 무엇 하나 이룬 것 없지만 주민들과 친해진 것이 성과라 할 수 있을듯하다.

이제 상두산 석산개발 반대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점이다. 잠시 여유를 갖고 심신을 재충전 할 수 있도록 하자.

호영씨와 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 담당을 뵙고,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를 들러 인사를 하였다. 얼큰 칼국수로 점심을 먹고 황토현으로 차를 몰았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온통 공사중이다. 기념재단에 들러 호영씨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김개남 장군 고택터 문화재 지정과 관련 얘기를 들었다.

전시관도 둘러보고 오랜만에 맘껏 즐긴 하루였다.

[페이스북] 지금실 마을 대책협의회 홍정용 2021년 4월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 소장님 지금실 김개남 고택터 방문

김개남 장군 고택터에서 호영씨와 함께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 소장님을 뵙고, 문화재 지정에 희망 섞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지금실 주민들께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시작이 반이라 했던가! 이미 출발은 했고 문화재 지정 사업의 절반은 진행중이리라 여기며,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의 발빠른 사업계획 수립을 기대해봅니다.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될 듯합니다. 휘파람 불며 귀가 중에 어! 저건 또 뭐지?

지금실 동곡천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멸종위기종 2급 담비'가 반대편 산으로 내달린다. 차를 세우고 저 멀리 담비를 찍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눌렀다. 카메라 사진을 확인하고 내가 행동

이 굵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석산개발로 상두산 자락이 파헤쳐지고, 저수지가 오염되니 아래쪽 민가로 내려온 듯하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상두산 일대에 담비를 확인한 날이다. 자세히 확인 할 수 없지만 사진 속에 담비는 확실히 담았다.

#상두산석산개발_반대
#생태계복원_실현
#김개남장군고택터_문화재지정

정읍시가 역사, 문화를 대하는 태도

#산외면_정량리_김개남장군_생가터

생가터 소개 입간판은 뿔혀 한쪽 구석에 처박혀있다. 생가터라 소개했던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기둥, 서까래 일부만이 한쪽에 쌓여있다. 김개남 장군 5대손 호영씨의 소개로 생가터를 찾았지만 정읍시의 동학농민혁명 역사를 대하는 태도에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었다.

집 주인 하는 말에 의하면 건물 철거하려 정읍시에 문의한 바 “생가터 입간판 처분 알아서 하세요” 라고 답변했다. 한심하고 억울한 생각이 든다.

“역사는 신이요, 나라는 형이다.”

[페이스북] 2021년 3월 최은희

#생명훼손자연훼손석산반대 상두산지금실 저수지 소식입니다.

“수초없는 돌가루 저수지
물고기야 한마리라도 살아있니?”

상두산 돌가루 계곡물이 끊임없이 흘러드는 지금실 저수지... 낚시대를 든 강태공들이 사라진지 몇 해 되었습니다. 저수지로 계곡물이 흘러드는 입구에 검은 지층처럼 석분이 어른키보다 높게 쌓여있습니다. 수초의 흔적도 없습니다.

정읍시가 발표한 수질오염 토양오염 결과는 아무 문제없음으로 자난달 발표되었습니다.

토양검사는 저수지 밑바닥 토양과 물로 오염 조사 필요성이 있어 주민들이 물을 빼기 시작했습

니다. 그리고 이장님께서 어제 투망질을 해서 물고기가 살아있는지 살펴보고 해서 지금실체에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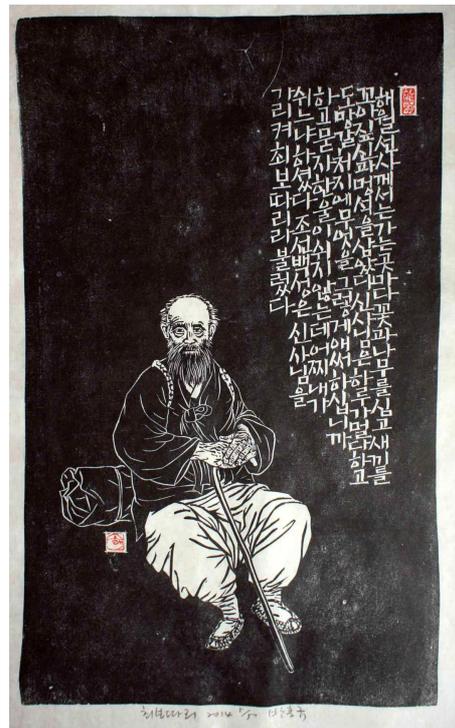
산외 젊은이들과 지금실 주민들 관심, 시민들까지 봄별 따스한 동학 대접주 김개남장군 마을에 모였습니다. 동학 해월선생님도 1891년 6월 여름 지금실에서 머무르신 적이 있지요. 지금실 저수지터는 1894년 백산으로 가기위해 임실 남원 담양 순창 진안 등의 동학도들이 모여들었던 호남 좌도김개남포의 집결지이자 훈련장이었습니다. 저수지 바로 옆은 김개남대접주의 고택 터가 있고 저수지 아래엔 묘소가 있어 동학의 유서 깊은 땅입니다. 지금도 김개남대접주의 발자취를 찾는 이들이 방문하는 곳이죠.

바닥이 드러나는 저수지를 빙 둘러 일곱 번의 투망질을 했고 일곱 마리 정도의 물고기를 건졌습니다. 작은 붕어새끼들과 금강모치 새끼들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마지막 투망질에서 36.5 cm떡붕어 한마리가 힘차게 과닥여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물뺀 저수지에서 투망질을 하면 ‘물고기가 바깥으로 가득했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안타까웠습니다. 물고기가 한마리도 안 나왔어야 시에 큰소리칠 수 있었을텐데, 이런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물고기가 아예 씨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은 늦지 않았다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생명을 훼손하는 석산 돌가루를 상두산에서 막아 사람도 물고기도 안심하고 생기발랄하게 살 수 있는 땅으로 천지부모 동학의 마을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물고기 몸의 오염 성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잡힌 물고기는 모두 아랫동네 맑고 맑은 상용저수지에 방생했습니다. 투명하고 수초 일렁이는 맑은 물로 헤엄쳐 들어간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빕니다. 그리고 물빛을 잃어버린 지금실 저수지도 옛날처럼 맑아져 물고기 반딧불이 물오리들이 소란스럽게 살 수 있는 생태계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지금실 이장님이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뺨 속에 빠지면서 무거운 추가 달린 그물을 지고 투망을 몇 번이나 던지셨던 이장님, 전주에서 달려오신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처장님, 상두산 너머에서 오신 안병권 선생님. 밥사준 강윤희 선생님 준비하신 홍정용 선생님 안사장님 익현님 왕기님 그 외 여러여러 우리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맘속으로 ‘명발당’이라고 이름 붙여본 떡붕어야~ 분진 가득했던 세상은 잊고 맑고 깨끗한 새 세상에서 자유롭게 맘껏 헤엄치며 잘 사렴)



Ⅲ. 동학과 세월호

－ 304그루 황토현 생명나무와 동화밥상 그리고 무위이화

정읍 세월호 3년 걷기

－ 2014 갑오년 세월호 을미적 을미적 병신 되면 못가리

최은희, 정읍 세월호 시민모임 [개혁신문]42호(2015년 4월호)에 게재

1. 오심 즉 여심(吾心即汝心) - 울고 있는 당신의 눈물이 내 눈에서도 흐릅니다

매화꽃 이파리 같은 눈송이를 나풀거리며 꽃샘추위가 왔다 갔습니다. 양지쪽에는 어느새 살짝 고개를 내민듯한 목련꽃 봉오리 끝이 보입니다. 머지않아 목련은 불쑥 그 부활절 계란 속살 같은 하얀 꽃망울을 사방에 꽃등처럼 매달고 봄이 부활했음을 알리겠지요. 거미처럼 까맣게 타들어간 눈으로 흰 꽃송이를 보아야 할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름을 부르며 흐느낄 것입니다. 단 며칠,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너도 꽃처럼 다시 살아와 달라고, 너의 보드라운 살과 따듯한 숨결을 한번만이라도 다시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아이를 찾아 허공에 손을 더듬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엄마들은 압니다. 그래서 세월호는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 채울 수 없는 상실은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큰 고통이어서 우리는 지금도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와 살고 싶은 간절함을 생각하면 지금도 캄캄한 한밤중에 깨어나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월호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말하지 말고 지금도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나도 슬프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끔찍하게도 지난해 봄 304명의 생명이 수장되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날이 어느새 1년이 되어 가는데 왜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을까? 왜 이상한 소문만 무성하고 진실은 오히려 개미지옥 속으로 묻히는 걸까? 배를 건져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뼈 한 조각이라도 수습하고 싶은 마음을 외면하고 왜 돈 얘기만 하는 걸까? 날마다 애통이 터집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알고 있는 엄마의 의리로 우리는 세월호 엄마들과 손잡고 눈물이 멈추는 그날까지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2. 세월호 엄마 접주

정읍 세월호 시민모임은 대표도 부서도 역할도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카페 같은 곳입니다.

모였다 또 흩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머물다 갈 곳이 있으면 떠나는 카페. 아무도 통제하지 않고 길을 정해주지도 않고 붙잡아두지도 않고 의무도 임무도 없습니다. 나비가 꽃밭에 머무르듯,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은 오래 머물고, 떠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떠나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카페. 떠났던 사람 또한 언제라도 다시 오고 오면 서로 기뻐해주는 그곳에는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처럼 오직 한 사람 항시지원팀장이 이름(직함)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5년 전 아이 하나를 데리고 정읍 철보 산골에 살러온 뜨내기. 봄에는 유기농 딸기잼을 만들고 가을에는 유기농 생강차를 만들어 팔아 1년 동안 딸과 조금씩 먹고 사는 반백수 엄마입니다. 그녀는 슬픔의 힘으로 엄마들을 모으고 반백수의 넉넉한 시간으로 사람들과 오래오래 대화하고 망사처럼 송송 뚫린 험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상한 모임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동학에서 말하는 접주나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해월 선생님 시대에 연비연비(포덕하여 얻은 신자들)로 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회의는 아줌마들의 수다처럼 시작되지만 늘 좋은 열매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줌마들처럼 일하며 말하며 뜻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들과 가까워집니다. 수다를 떨고 밥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 사이가 좋습니다. 권위와 카리스마도 귀여움의 한 조건일 뿐 아무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버리하고 실수투성이 아줌마들이고 그 점을 대놓고 깔깔대며 즐기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자발적 잡부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나누고 할 수 없는 일은 버립니다. 그러나 버려지는 일보다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숨사탕 같은 감수성을 지닌 여성들이 장군들보다 더 할 일을 다한다.”

“이름 없는 아줌마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아줌마들을 만난 것은 로또당첨보다 더한 행운입니다.”

이런 말을 30대 40대 50대 남자들이 세월호 밴드에 남발합니다. 소박한 탁자에 모두 둘러앉아 밤늦게까지 노란 리본을 만들며 따뜻한 차 한 잔에 피곤을 덜고 행복해 합니다. 저는 가끔 이 모임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3. 사인여천(事人如天) - 생명을 하늘처럼 모시고 섬기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 세월호를 차츰 잊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자식 잃은 부모들은 함께 울어줄 사람도 잃은 채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듯 외로워질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잊지 않고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광주에서는 3년 동안 날마다 걷는 1,000일 걷기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광주에 가서 하

루를 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에겐 두 발이 있어 걸을 수 있고, 사람에게 두 팔이 있는 이유는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누군가를 안아주기 위해서다.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도 함께 길 위에서 손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일단 2015년 1월 첫 주부터 1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두 시간을 3년간 걸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1월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석 달째 걷고 있습니다.

둘이서 걷는 날도 있고 스무 명이 넘는 날도 있습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우리가 만든 노란 리본을 나누어주며 세월호에서 죽어간 아이들을 잊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소식을 알리는 소식지도 만들어 읽어드리기도 하고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언제나 모시는 마음을 잊지 말자고 생각하며 걷습니다.

2월 설이 낀 주의 토요일에는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을 찾아온 제자들이 선생님의 제의로 비오는 길을 우산을 쓰고 함께 걸었습니다.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던 저는 우산을 함께 쓴 한 학생과 이야기하다 “선장이 탈출한 것도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데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물음을 받고 그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하던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질문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단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 고민을 저는 미처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즉각 대답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이야기를 서로 오래 나누다가 헤어질 때 그 질문을 해준 학생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을 못 내릴 것이 뻔하지만 서로 마음을 열고 소곤소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모두에게 탈출하라고 방송을 하고 자신도 탈출했으면 어땠을까? 그럴 경우에는 자신도 살고 사람들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에 서로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습니다. 명확한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 정의를 이야기하며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며 의견이 다른 상대를 쉽게 낙인찍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마음을 명들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질리게 합니다.

봄별이 따뜻한 호수 주위를 걷는 지난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날은 특히 휠체어를 탄 언니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린 함께 휠체어를 밀어주고 모시고 그 속도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분은 웃음꽃이 피었지만 휠체어가 제대로 갈 수 없는 길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몸보다 세상이 더 불편하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들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어때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걸기가 끝나는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수도가 터져서 걸기에 나오시지 못한 아줌마 한 분이 집으로 차를 마시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헤어지기 싫었던 우리는 20명 가까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우르르 신이 나서 몰려갔습니다.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고 처음 만난 이들도 서로 친구가 되고 아이들은 다락에 오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웃었습니다. 다들 오래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4. 유무상자(有無相資), 동귀일체(同歸一體) -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다

정읍 세월호 모임은 회비도 없고 고정적인 후원금도 없습니다. 만나면 십시일반, 사정만큼 지갑을 열어 차도 마시고 밥도 먹지요. 8월에는 팽목항에서 광화문까지 십자가를 메고 걸어 올라가는 유가족 십자가 순례단이 정읍에서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시기동 성당에서 잠자리를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두 팔을 벌린 예수님이 별이 반짝이는 여름밤에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곧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성당 마당에는 시민들이 보내온 과일 상자들이 쌓였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어진 밥상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 아버지가 말없이 손가락을 달그락거리며 저녁을 먹을 때 창문가에서 마리아가 이마를 숙이고 피에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밥은 시내 입시 미술 학원 아줌마 원장님이 자원해서 새벽에 찜통에 끓여서 차에 싣고 온 100인분의 닭죽. 새벽 4시 부터 울면서 1번 국도변을 걸어온 사람들은 9시에 길 위에 쪼그리고 앉아 부드럽게 쌀알갱이가 퍼진 닭죽을 먹었습니다. 여고생 딸을 둔 원장님은 국자로 닭죽을 떠주며 눈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120년 전 갑오동학군이 전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짙신 신고 죽창 들고 올라가던 그 길을 두 갑자 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십자가를 메고 걷는 것을 보며 저는 세월호가 여전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갑오년 그날임을 봅니다. 길가에서 옥수수를 찌서 파는 아주머니가 옥수수를 나눠 주시며 울었습니다. 성당에서는 시원한 물수건과 수박을 준비해놓고 쉬었다 가라며 부르셨습니다. 읍처럼 저주받은 재앙의 행진 길에 세상의 착한 사람은 죄다 모여 있구나. 알 수 없는 감사와 믿음이 마음에서 피어올랐습니다.

10월에는 유가족분들의 전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정읍에서는 교회와 원불교 교당, 불교 포교당 세 곳에서 동시에 유가족과 시민들이 만나 세월호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에는 시민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일어나 예정에 없는 노래, 금관의 예수를 부르셨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와서 유가족 부모님들을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떡을 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김밥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엄마들인 우리는 어떤 행사든 먹을 것을 넉넉하게 준비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아줌마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도 전에 어디에선가 옵니다. 늘 남아돌게 옵니다.

2015년 2월에는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유가족 도보 순례단이 정읍에서 1박 2일 머물러 걸으면서 시민을 만났습니다. 시민모임 엄마가 다니는 시골 교회에서 150명분의 밥을 해 와서 시내 큰 교회 식당에서 점심밥을 먹었습니다. 그 엄마가 너무 착해서 그 엄마가 밥을 해 주자고 하자 다들 모여 밥을 지어오신 것입니다.

저녁밥은 학부모 기자단 분들이 문 닫은 식당을 하루 열어 하루 내내 솥에 고아낸 소머리국밥을 끓여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소머리국밥을 먹는 것은 귀한 일이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듯 국물은 따뜻하고 고소하게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은 신광 교회의 기도실과 유아실에서 나누어 자고 일찍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해 권사님들이 교회식당에서 새벽밥을 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늘 넘쳤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고 농민 아주머니가 농사지어 내놓은 쌀은 밥이 되고 가져온 김치는 반찬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기쁘게 밥을 지어주는 얼굴은 환했습니다. 뭐든지 더 주지 못해 안달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 마른 물고기가 어떻게 오천 명을 먹이고 일곱 광주리가 남았는지, 예수님이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바꾸었는지 그 비밀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동학하면 굶어죽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몰려든, 유무상자의 정신이 무엇인지, 각자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 되는 동귀일체가 무엇인지, 하느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5. 보국안민(輔國安民) -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아 생명이 꽃처럼 피는 날을 위해

갑오년 우금치에서 패한 동학군은 전주까지 쫓겨 원평 구미란 전투에서 처참하게 지고 태인 성황산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른 뒤 해산하였습니다. 해월 선생님이 계신 임실 갈담으로 가기 위해 짚신짚도 달아난 맨발로 눈보라 치는 가파른 갈재를 넘었을 손병희와 동학군들 생각에 더 눈물 나던 장성 갈재길. 그날처럼 눈발이 날리는 산길을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함께 울어주는 이들과 숨 가쁘게 올랐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우는지 누가 제 안에 들어와 우는지 모르지만 눈물이 자꾸만 솟구쳐 나왔습니다.

저희는 정읍으로 돌아오고 그분들은 더 남쪽으로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백날 천날 가봤자 자식들이 죽은 바다만 기다리는 팽목항으로 세월호 온전히 인양하여 실종자들 수습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올미년 올해 3월이 지나도록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병신 되어 세월호가 묻히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누구든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4월 정읍에서 1,000명 시민을 모아 1,000장의 노란 현수막을 달 것입니다. 불가능한 꿈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해 보자고 합니다. 어떤 신비로운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속삭입니다.

4월이여 오라
 비스듬히 기울어진 배로 다시 오라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는 가장 먼저 달려가 우리 힘으로 구해낼 거야
 한명도 남김없이 다 구해낼 거야

울면서 울면서
 다시는 너희를 물거품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4월이여 오라

기울어진 배처럼 무너진 나라를 우리가 바로 잡을 테다

모든 생명이 꽃처럼 찬란히 피었다가

까만 씨앗으로 다시 생명이 되는 날과 함께

보라, 보라,

4월이 온다. 저만치서 온다.



피어라 이팝 304그루 생명꽃

'세월호 2주기 정읍시민 304팀이 모여서는 생명나무의 꿈'



봄날 소복소복 흰쌀밥처럼 꽃피는 이팝나무, 꽃말은 영원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생명이 가장 귀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희망으로 정읍에 이팝나무 생명꽃길이 열립니다.
'그 길을 함께 만들 304팀을 찾습니다'



일 : 2016년 4월 9일 11시
장소 :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옆
주관 : 세월호 정읍 시민모임
주최 : 세월호 2주기 정읍 준비단
신청방법 : 친구, 연인, 가족등 2명 이상 한 팀되어 신청. 신청·문의 : 010-9654-4990
♣참가비 무료 ♣약속의 의미로 이팝목걸이 드림 ♣이팝 점심 준비
후원계좌 : 농협 352-1096-7819-63(황향란)

IV. 동학과 고통받는 동물들

- 1) 내장산 소싸움 도박장 백지화를 위한 편지와 255회 1인시위
- 해월 경인 경천 경물 삼경사상

소싸움 예산을 동물복지 예산으로



동물학과 대소도박장 반대
정읍시민행동



싸움소 대신 쇠똥구리를 !!

안녕하세요?

날마다 소를 기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축산농가 정읍시민 여러분과
시민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정읍시를 만들기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정읍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내장산아래 정읍천 근처에 우권이 발행되는 소싸움장이
생긴다는 소문에 걱정이 많은 정읍시민입니다.

저는 몇해전 단풍구경을 갔다가 우연히 소싸움경기를 어린아들과 보았고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싸움을 기다리며 꼼짝못하고 묶여있는 소들의
눈망울이 너무 슬펐고 순서가 되면 끌려나가 억지로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소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벌에 밟혀 상처난 소에게 포도나고
버팅기고 버팅기다 무릎을 꿇는 소의 모습에 환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 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제 아이가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어릴시절 소에게 깔(풀)을 베어다 먹이며 소의 눈망울을
보는걸 좋아했고 송아지가 태어나면 찬바람에 추울까봐 등에 옷을
덮어주는걸 보며 자랐습니다. 겨울이면 지푸라기와 겨를 넣어 따뜻한
쇠죽을 끓여주고 새끼를 낳으면 콩도 듬뿍 넣어 먹음직스러운 영양식을
주는걸 보며 자랐습니다. 제 기억속의 소는 가족이었고 이것이 소에
대한 오래된 전통임을 저는 경험속에서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내장산 기슭에 많은 물 흐르는 정읍천변에
도박시설인 (우권을 사서 싸움에 이길만한 소에게 베틀을 해서 돈을
앞거나 따는게 가능한 소싸움 경기시행 허가권을 가진) 소싸움 경기장이
생긴다니 마음도 아프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작은 소도시 정읍시가 정읍시민을 위해 늘 고민하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사업까지 생각하고 계획하는구나!!
그런데 정말 소싸움 도박장이어야만 할까?
축산농가 농민들과 소와 정읍시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안은 없을까?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소싸움 경기장 등 축산테마파크에 총예산 113억과 연간유지비용이 3억이 넘게 들어가 2040년이면 (20년도 지난 이후입니다) 흑자로 돌아설수 있다는 용역보고서가 사실이라면 그 돈을 다르게 사용해서 더 좋은 결과, 더 멋진 미래를 가능하게 전환을 하면 어떨까?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축산테마파크에 쏟아부은 예산과 유지비용을 축산농가에 고스란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피흘리는 잔인한 소싸움장 대신 소들이 풀을 뜯고 자랄 눈을 1필지씩 (소의 마릿수에 따라 조정해야겠죠) 축사옆에 조성해주고 호밀도 뿌릴 유지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멸종으로 사라져버린 쇠똥구리가 정읍시 축산농가 풀밭운동장에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2040년이 되기전에 가능할 것입니다.

함평은 나비로 지역브랜드 이미지에 성공한 대표적 지자체입니다.

나비를 보며 자랐던 젊은 군수의 추억과 상상이 나비함평의 불멸의 지역 이미지를 만든 것입니다.

- 환경오염과 가축밀식사육으로 멸종되어 버렸던 쇠똥구리가 정읍한우 농가에 다시 부활했다!!
- 정읍의 소들은 민들레꽃 피는 호밀밭에서 자유롭게 운동하고 햇빛도 받고 풀도 듬뿍 먹고 자라 그 똥을 먹고 경단으로 굴러 앞을 낚는 쇠똥구리가 다시 되돌아온 것이다 !!!
- 쇠똥구리가 있는 정읍에 아이손을 잡고 놀러오세요
친환경 생태에서 자라는 건강한 정읍한우 안심하고 드세요 !!!

이런 신문기사들이 쏟아지고 쇠똥구리보러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정읍한우가 많이 팔리고 동학의 삼경사상 (하늘과 사람과 모든 물건까지 지극한 마음으로 모시라는)이 소를 통해 연계되며, 소싸움장이 아닌 쇠똥구리 생태목장으로, 동물학대가 아닌 동물복지의 선두에 선 정읍으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는 상상을 해봅시다. 가슴이 뛰지 않나요?

농경시대의 장터와 명절에 환호성으로 흥겨웠던 소싸움은 이제 요양원으로 가야할 옛전통입니다. 호스피스의 손길로 잘 마무리하고 이제 21세기에는 동물복지에 기반한 새로운 축산문화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 새로운 축산문화의 산파가 되어 정읍시가 축산농가도 살고 시민도 행복하고 정읍시 공무원도 보람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나요 나의 눈물이... 들리나요 나의 울음이...



◀ 소씨름 후 피에 찢고 찢는 불·물리는 싸움소. 쇠고리에 꼬가 꿰인 채 울에 바짝 묶여 앉지도 못하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 싸우기 싫어 버티는 별다른 중얼거린 소의 눈. 쇠고리에 울을 곁어 집어당겨 놓여서는 코를 보세요. 생살이 핏기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경기장으로 끌려들어갑니다.

사람이 먹고(소고기) 입는(소가죽) 소라는 고마운 동물, 그 소에게 왜 쇠고리를 걸고 먹지 싸움까지 강요해야 할까요?

현재 소싸움은 동물보호법상 학대에서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모습이 학대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농림축산부에 항의하고 동물단체에 신고해주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콜센터 1577-0954 • 경찰서 112
- 동물학대방지연합 <http://www.foranimal.or.kr> 02-488-5788
- 케어 <http://www.formcare.org> 02-313-8886
- 동물자유연대 <http://www.animal.or.kr> 02-488-5788
- (사)동물권행동 카라 <http://www.ekara.org> 02-3482-0999

-동물학대 소도박장반대 정읍시민행동-

SKT 6:41 news.v.daum.net

뉴스 사회

노컷뉴스 언론사 선택 기능

동물학대 논란..정읍시, 소싸움장 건립 백지화

전북CBS 남승현 기자
입력 2019. 07. 03. 15:54

0 5

동물권·시민단체 반발로 계획 무산
소싸움장 대신 공연장 설치로 가닥
10월쯤 정읍 소싸움대회 예정대로
유성엽 의원 낸 소싸움진흥법 반발



2)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정치인 측근 개농장 10억 보상반대

- 해월 삼경정신이 살아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짓자.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동학의 사상이 스민 아름다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라고.”

유기동물보호를 위한 국비시비가 정치인 측근 한사람의 육견업자의 보상비로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측근과 그 친구 몇몇을 위해 쓰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동물보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개고기를 팔아 남부럽지 않게 살아 10억대의 농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육견업자가 유기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인가요? 사업비는 오직 유기동물보호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유기동물센터는 유기동물을 중심에 놓고 구조와 시민들 봉사입양 활동이 편리한 지역에 지어져야 합니다.

– 정읍시 동물보호감시원의 건의 사항

1. 정읍의 브랜드 이미지는 동학이니, 동학의 삼경정신이 발현되는 정읍다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짓자. 동학으로 특화된 보호센터로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공존해야하는지를 제시하는 만형님 역할을 하자.

2. 정읍시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시민활동가와 그동안 유기견 구조입양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반려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TF팀을 꾸려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짓고 이후에도 주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자. 시민과 행정이 관민상화하는 모델을 만들어보자.

3. 유기견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에 기반한 사업이니 동물보호법 저지투쟁을 격렬하게 해온 육견업자들의 참여는 엄단하고 사업비는 사복을 채우거나 털끝하나 건드리지 말고 취지에 맞게 동물보호에 쓰여야한다.

4. 유기동물보호센터가 혐오시설이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기 위해 다양한 지혜를 모으자.

“개인적으로 저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생긴다면(이름은 플란더스개에 나오는 개의 이름인 ‘파트리슈 도서관’이라하고 싶네요) 동물들이 주인공인 책 100권을 엄선하여 기증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책도 읽고 글도 쓰는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요. 또 동물들이 주인공인 영화도 한달에 한번 상영하는 고양이 영화제도 하고 싶습니다. 동물들과 야외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보호센터 근사하지 않습니까! 꽃과 나무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상상 못했던 멋진 공간이 지역에 생기는 것이고 관심 갖고 방문하는 이도 많을 것입니다.”

5. 부지선정을 밀실에서 진행하지 말라. 육견업자들이 아닌 동물보호단체들이 유기동물센터를 보살핀다는 조건으로 센터 부지를 기증하겠다는 시민도 있으니 부지선정을 열어놓고 심사하라.

6.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이라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을 속이고, 의논 없이 선정위원으로 명명하여 부정한 부지선정의 들러리로 세우려하고, 오공리 개농장의 주인을 모른다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을 기만하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오빠라고 부르라는 성희롱을 하고, 부지선정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했던 동물보호명예감시

원에게 도와주지 않으려면 관심 끄라고 폭언을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에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현재까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전북도청에 활동보고를 하지 않는 현 축산과장을 책임을 묻고 직위해제하라.

7. 정읍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컨테이너 속 죽음의 대기소가 된 상황에서 유기동물 보호가 아니라 육견업자를 돕기 위해 오공리 개농장에 거액의 보상비를 책정하고 강행시키려하며 하루 빨리 지어져야 할 유기동물보호소를 1년이 지나도록 지연시키는 축산과를 감사하고 하루 빨리 유기동물 보호소를 건립하라.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시장님의 결단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최은희

그러나 <신문기고>

유00 시장은 조병갑이 되려는 것인가?

- 정읍시 예산 10억을 개농장 보상금으로 탕진하지말라 -

뜯장 창살 틈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져 뒹굴고 있는 강아지는 눈도 안 뜯 젓먹이였습니다. 강아지를 주워 넣어주었을 때 그 어미개가 몇 마리 강아지를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품으로 돌려준 그 강아지가 어미에게는 보호소 뜯 장에서 태어난 마지막 남은 한 마리강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타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미 개는 창살 밖으로 떨어진 어린 젓먹이 강아지가 산짐승의 먹이로 물려가는 걸 발을 동동거리고 울부짖으며 쳐다만 보았을 것입니다. 심장이 있는 이라면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기도 수도도 없는 산속 유기견 보호소 뜯 장속의 밥그릇은 똥과 사료로 범벅되어있었습니다. 더러운 물그릇은 이끼로 새파랗고 장구벌레가 우글거렸습니다. 젓먹이 어미개가 목이 말라도 물을 먹을 수 없는 처참한 지옥이 바로 1년에 9천 6백만이 지원되는 정읍시 위탁 보호소였습니다. 그곳의 상황을 담당 공무원은 익히 알고 있었다고 답할 때 우리는 정읍시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공고에 올라온 개들과 보호 중이라는 개들이 보호소라 말하는 그곳에 22마리나 없었고 추궁 끝에 개농장에 팔아넘겼다는 관리인 윤 씨의 답을 들었습니다. 개농장은 건강원을 운영하는 주인의 불법도축시설과 함께 있었고 죽어 던져진 개들과 불에 그을려 냉동창고에 쌓여있는 개들을 보는 순간 처참함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 처참한 환경을 벗어났음에도 어제 오늘도 병원에서 병으로 생명을 잃은 유기견이 있습니다. 처참한 환경에서 병을 얻어 죽은 개들의 아픔과 고통이 이후의 동물들에게는 예전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저희는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벌을 받은 사람은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읍시에서 면담요청이 와서 우리는 요구사항 11가지를 들고 유진섭 정읍 시장과 면담을 했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합의는 새로운 전환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더 진지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 감사결과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시민들의 합리적 의혹제기를 무시하고 그동안 정읍시가 거짓으로 일관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제는 부정을 바로잡고 향기공화국 향기산업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뼈아프게 점검해야 할 때이다.

..... 정읍시는 애초에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추진되고 있는 허브원 사업은 일단 중단하고 민관합동으로 조사 점검하라. 향후 사업재개와 관련해서는 대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투명하게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차후에는 불법과 특혜 시비가 불거지지 않고 합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정읍시는 냉정을 찾기 바란다. 어제 심은 벼의 머리를 오늘 잡아당긴다고 해서 벼가 빨리 자랄 수 없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뺏속에 황금알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다. 벼이삭이 여무는데에도, 거위가 알을 낳는데에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조급하게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고 싶은 정치적 의도, 부정과 특혜로 얼룩지고 오염된 사업 진행이 오히려 정읍의 아름다운 자산이 될 수 있었던 사업을 미리 망치고 있지 않은지, 정읍시장은 숙고하시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약무정읍 시무민주의 정읍 동학혁명 정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정읍시민으로서 무조건 정읍시의 정책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부정과 특혜의 땅에 조성되면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과 특혜로 조성된 라벤더 허브원, 바로잡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합니다. 정읍시의 외양간은 해마다 1조원의 예산이 새로 들어오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도 미루지 말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잡는 일에 늦은 날은 없습니다. 부당특혜 없는 공정한 절차, 투명하게 열린 시정, 시민들의 지혜를 모은 적절한 정책이야말로 우리가 모여사는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가장 향기로운 꽃송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본과 권력은 어떻게 생업과 생활 생명을 해치는가?

<고발이유서>

- 우리는 '저만 아는 거인'이 이웃에 오면서 고통에 빠져 울고 있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이웃의 손을 잡고 정읍 시정을 바로잡고자하는 시민일 뿐입니다 -

2021년 2월 9일

정읍동학시정감시단



(2) 칠보산 수처리 칠보산 훼손 파괴 반대와 주민감사 -
천년만년 아름다운 산을 파괴하는 강남 부동산

(3) 돈없고 뺨없어서 채용과 승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 부정채용 책임자 등소 <정읍시 부정채용특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 검찰고발>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국민의 봉사자로 성실의 의무를 지니는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해야 기관의 기강이 바로 서고 비리는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2020. 6. 18 ~ 7. 3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정읍시 종합감사 결과,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이 드러나 ‘기관경고’라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부정 채용된 자들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으며 채용담당 공무원은 솜방망이 처벌인 훈계를 비웃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 채용으로 불합격 처리된 피해자는 ‘실력보다 뺨이 더 쎄다’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귀한 정읍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당연히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런 자리일수록 그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유 00 시장 당선 후 정읍시 공무직은 측근, 지인, 보은을 위한 채용비리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줄을 때는 수준이라면 정규직은 승진 시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비리는 더 커지고 부패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에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직무유기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30.
동학시정감시단





VI. 페이스북과 동학 - 너와 나는 그리고 모든 것은 진정 연결되어있는가?

“지금의 나는 단 한사람의 양심이라도 호소할 수 있을 만큼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물어 본다.”

“한살림에서조차 계약직은 사람이 아닌가요? 말로 할 수 없는 낙담의 벽이 느껴졌다. 이것이 진정 생명살림의 정신이며 한살림다운 운영방식인가.”

“문제를 제기한 이의 단 한마디 마음조차 귀 기울여 들어 줄 수 없다면 진정 한살림이 맞는가? 길가에 마른 풀마저도 귀히 여기며 오가는 길마다 대화를 건네셨던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정신이 그림다.”

“한살림 생산자 조직 내에서도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가진 자는 더 많이 움켜쥐는 현상이 지속 된다는 문제제기를, 제도적으로 조정해 갈 수 있어야 한다.”

“며칠간 나의 마음은 복합적인 분노와 화로 가득했다. 온갖 차등대우를 겪고, 이를 누리지도 못한 채 한살림에 대한 상처와 분함만을 안고 떠나야 하는 이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녀는 곧바로 한살림 조합원을 탈퇴하겠다고 했다.”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치부하는 습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분단의 비극이 낳은 뿌리 깊은 분열과 적대 의식을 버려야 한다. 쉽게 내편과 니편을 가르고, 상대는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틀을 넓혀가야 한다.”

“소신에 따라 행하여 옳은 것을 바로 잡았다면 그걸로 족할 줄도 알아야 한다 싶었다. 나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걸 내 뜻대로만 이끌 수 없기에, 하늘에 의탁하며 늘 겹겹히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상사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팀장 다음으로 주요업무(인사, 급여, 회계, 연대)를 맡아 온 선임실무자인 제가, 공급(배송)팀을 오가는 배치로 일방적 인사발령을 받았습다.”

“8년간 한살림을 위해 성실히 일해 온 실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가는 이 경과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목소리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살림의 가치를 사랑하고 생활속에서 실천을 위해 애쓰고 한 살림을 고민하고 용기를 내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젊은이가 있습니다.

여기 벼랑 끝에 매달려 함께 목소리를 같이 내달라고 호소하는 한살림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한살림 조합 내에서 비정규직도 같은 인간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고 애쓴 나의 폐천은 왜 이런 위험한 고통에 빠졌을까요? 우리는 알고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거대한 조직 속에서 가장 조직적 이상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약한 개인으로 벼랑에 매달린 이 젊은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년 1월 5일

진리는 단순하고 간결하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 한 살림도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간결한 진리를 토대로 시작됐다. 한살림은 운동이라기보다는 삶의 양식이며 실천을 담보한 생명 문화의 일상화이다.

과도하고 폭력적인 육식을 줄이는 것, 땅과 생태를 살리는 방식의 농산물을 식탁에 올리는 것,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게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대전제 아래에선 너무도 단순한 상식이 된다. 이를 인간 생명의 근간인 먹거리와 농업살림을 매개로, 밥상, 생명살림으로까지 확장 되어야 한다는 간결한 연유에서 한살림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양심을 잃어버린 관념주의자들과 거창한 의식적 괴리에 사로잡힌 지식인들이 그 본질을 왜곡하면서부터 한살림운동은 또 다른 기만을 양산하게 되었다.

진리에서 떨어진 사람일수록 그럴듯하게 포장된 언어와,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꾀변을 나열하며 자기 존재의 빈곤함을 감추려 한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뽐내기 위해 예수와 석가를 시험했던 기만적 관념론자들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책 한권분량의 한살림 선언을 달달 외운다 한들, 내 옆에 울고 있는 생명의 아픔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일그러진 감수성으로 괴물화 된 인간 자화상이 만연한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서 너와 내가, 그리고 만물이 이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당파적 이익관계와 분열, 투쟁에만 매몰되는 걸 넘어,

국가의 폭력과 외면, 갈수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 받는 농부들의 시름이 깃든 현장에 함께 머물러 손잡아 줄 수 있는 감수성이다.

같은 한살림이란 이름 아래, 계약직이며 위탁직이란 이유로 각종 차별대우를 받는 동료의 분노와 소외감에 함께 분노하는 공감능력이다.

무수한 관념언어와 대의명분, 그리고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찬 공평과 정의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게 아니라, 따뜻한 눈빛과 겸손한 말로 주변 이들을 살피고 평화와 곱게 어우러지는 일상을 살고자 하는 태도이다.

그러니 이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나 역시 한살림에서 떨어져 있다는 부끄러움과 허기를 느끼는 것이다.

한살림운동의 변형과 상실은 내가 머무는 현장 안팎이 이처럼 단순하고 간결한 인간다움조차 잃어가는 형태로 사방에서 표출되고 있다.

속한 관계, 일터, 가정, 세상 한복판에서 이를 실천하고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한살림 정신의 회복이다.

1월 10일 - 한 살림에서조차 계약직은 사람이 아닌가요?

한살림은 작년 한해 순이익만 100억여를 기록했다. 협동조합 특성에 따라 이를 환원하고자 조합원감사물품, 할인쿠폰 발행, 각종 기부를 실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연말 특별상여금을 구성원에게 지급했다. 각 지역생협이 너나 할 것 없이, 한해 업무 가중으로 고생한 실무/활동가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승인했다.

우리지역도 108명의 구성원에게 특별상여금이 지급됐지만 나는 불편한 마음이 가득했다. 이번에도 역시 '계약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똑같이 고생하며 맡은 바 역할을 채워준 옆 동료가 계약직이란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유니폼 지급과 각종 복지혜택

에서도 그녀는 늘 열외였다. 그때마다 뒷선에 의견을 전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마침내, 이번엔 정식 면담을 통해 재차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계약직은 회의비 식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 외 자리’ 라는 일축이었다. 한참 논쟁을 주고받던 나는 기어코 이렇게 말했다.

“한살림에서조차 계약직은 사람이 아닌가요?”

말로 할 수 없는 낙담의 벽이 느껴졌다. 이것이 진정 생명살림의 정신이며 한살림다운 운영 방식인가.

생명살림과 인간존중을 구체적인 일상의 영역에서 살피고 적용하지 못한다면, 도리어 기만을 양산해 내는 악순환 구조에 매몰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밖으로는 기부를 하고, 일면식 없는 이들을 도운다고 선행을 하면서 정작 내부에선 구성원들을 차별하는 모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살림의 미래를 심각하게 염려하는 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싶다. 한살림 내 위탁과 계약직을 향한 모든 차별과 차등 요인을 점검하고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권면 드린다. 내부 구성원들을 포함한 73만명의 조합원들 역시 이를 너무도 당연한 한살림다움의 실현이라 지지해주실 거라 믿는다. 비상식적인 우리 사회의 단면을 한살림에서라도 바로 잡아야하지 않을까. (422개의 좋아요 155개 댓글 17회 공유)

2021년 1월 12일 폐북글이 연합이사회 방에 공유 - 카톡방 도마위에 오르다.

며칠 전 한살림 내 계약직 차별대우에 대해 쓴 나의 폐북글이 연합 이사회 카톡방에 공유됐다고 한다. 어느 분이 그곳에 글을 퍼다 날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400명 가까이 나온 동조 반응과, 65명에 달하는 압도적 찬성과 지지의 댓글도 함께 보여 줘야 한다.

그 모든 것은 송두리째 잘라진 채 나의 글만 무단으로 복사되어, 전국 이사장들이 모인 카톡방 도마 위에 올려진 것이다. 우리조직에서도 여러 의견과 반응들은 잘라진 나의 글이 공유됐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인 나도, 이에 해당되는 계약직 노동자의 의견도, 내 글에 취지에 동감하며 찬성 의견을 남긴 조합원이자 생산자와 각계각층에 속한 분들의 견해도, 모두 묵살된 것

이다.

사람과 생명을 중시하고, 단 한사람의 의견도 소중히 여기며, 누구에게나 열린 소통을 지향하는 한살림. 앞뒤 잘린 내 글이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된 채, 송두리째 목살 당한 이곳은 한살림이 아니란 말인가?

문제를 제기한 이의 단 한마디 마음조차
귀 기울여 들어 줄 수 없다면 진정 한살림이 맞는가?
길가에 마른 풀마저도 귀히 여기며 오가는 길마다
대화를 건넰었던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정신이 그림다.

2021년 1월 19일 계약직 차등대우를 없애기 위한 제안을 하다

조직 내 계약직 차등대우와 관련하여 팀 논의를 거쳐 정식으로 예산수립 회의체에 제안했다.

1인칭 회식비 포함 / 유니폼 지급/ 건강복지 적용/ 특별상여금 지급대상포함

위 4가지가 핵심 제안이다.

조직에선 단순 예산편성을 넘어 계약직에 관한 포괄적 검토와 고려를 해보자는 답변이 돌아왔다. 나는 한살림 타지역 생협 현황이 궁금해졌다. 조직규모가 가장 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생협들은 계약직에게도 정규직과 유사한 대우를 하고 있었다.

계약직과 일용직노동자 차별대우는 IMF 사태 이후 만연해진 우리사회에 부끄러운 단면이다.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불확실한 사업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임시 위탁직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한살림 역시 사업이 어려워지자 공급(배송) 실무자를 위탁업체에 맡겨 4~50대에 저임금 노동자 관리체제로 전환했다. 가장 빠르고 대대적인 변화였다.

계약직 노동자는 언제든 직장을 잃을 수 있는 불안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며 산다. 심지어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휴가나 복지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특히, 계약직 고용의 대상자로서 출산과 육아를 도맡느라 이른바 경단녀가 된 여성들이 지원하고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생명살림과 인간존중을 자랑스런 슬로건으로 내거는 한살림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기업과 다를 바 없는 경영원칙과 사고로 조직 내 노동자를 부속품처럼 소비하는 대형 유통회사로 전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타지역생협 현황을 알려준 담당자들에게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하고, 조직 내에서 계약직에

관한 논의가 생길 경우 위와 같은 목소리를 전해 달라했다. 의견에 공감하며 기꺼이 그러겠다
답해주는 한살림 동료들 덕에, 도리어 힘을 얻게 된다.

2.3 도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란 말이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의미이다.

한살림과 같은 생협은 ‘도의적’ 책임을 매우 강조하는 조직이며 기업이다. 땅과 생태를 살리는 유기농산물을 애용해 달라는 호소는, 생명살림과 인간존중의 정신을 구현해 가겠다는 ‘도의적 책임론’에 기반하고 있다. 밥상과 농업을 되살려 일터와 사회 곳곳에 생명살림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윤리적 신념을 구호로 내걸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한살림을 지탱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이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잃지 않은 분들이다.

그렇다면 타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이를 앞서 실천하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하는 게 마땅하다.

가까운 조직 내에서부터 도의적 책임을 저버리거나 묵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피고, 이를 바로 세워가기 위한 노력에 정진해야 한다. 특히, 일개 직원 보다 조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자리일수록, 도의적 책임에 대한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한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과, 조직적인 무책임은 다른 차원의 무게를 갖기 때문이다.

한살림 내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등 대우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일반 기업보다 더 큰 못매를 맞게 되는 게 당연하다. 한살림 실무조직 전반에 군대식 위계문화가 존재하고, 상사에게 옳은 말을 하면 소외를 당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돈다는 걸, 매우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조합원 100명을 대표하는 대의원 한명이 실제론 조합원 10명의 의견조차 투명히 수납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한살림 생산자 조직 내에서도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가진 자는 더 많이 움켜쥐는 현상이 지속 된다는 문제제기를, 제도적으로 조정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한살림이 한살림 답지 못하다는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납하여 점검하고, 또 바로 잡아 가는 건 무척 중요한 과정이다. 한살림은 도의적 책임을 내걸고 조합원들에게 농산물을 팔아 유지되는 조직이며, 엄연한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저버렸을 때, 조합원들

은 언제든 자본주의 사기업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생협 운영에 회의하며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반면, 이를 실천하고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욱 폭넓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수한 조합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한살림의 걸음을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기억해야 한다.

‘한살림의 주인은 조합원’이란 스스로의 고백을 지켜 가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3월 5일 - 계약직도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되다.

“한살림 내 계약직 차등대우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한달여, 마침내 만들어진 <별정직 지침안>을 받아 보았다. 계약직도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문서 하나를 마련하기까지 여러 사람이 감수한 고충은 적지 않았다. 한살림에서 작은 것 하나를 바로 잡는 것조차 이토록 힘든 일인가, 회의가 드는 순간도 있었지만, 이만하면 됐다 싶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차등대우의 당사자인 계약직 노동자는 1년 계약이 끝나는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직장을 떠나게 되었다. 사업장 규모가 커지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한명 더 늘려야 하는 조직상황이 이유였다. 계약직 노동자의 계약을 종료하고, 그 자리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계약직 노동자는 눈물을 보였고, 나를 포함한 주변인들은 지극히 '합법적'인 조직 결정에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수익규모가 커진만큼 장애인 노동자를 한명 더 책임지라’는 국가의 울타리가, 도리어 또 한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는 걸 보며, 우리나라의 구슬픈 노동현실과 법적 사각지대의 허술함을 뼈저리게 목도하고 있다. 며칠간 나의 마음은 복합적인 분노와 화로 가득했다. 온갖 차등대우를 겪고, 이를 누리지도 못한 채 한살림에 대한 상처와 분함만을 안고 떠나야 하는 이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녀는 곧바로 한살림 조합원을 탈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 마음을 정리하며 내가 시작하고 또 견고자 하는 길이 누군가를 누르고 찍어내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떠올렸다. 누군가를 살리자고 시작한 일이 또 누군가를 궁지로 내모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었다. 소신에 따라 행하여 옳은 것을 바로 잡았다면 그걸로 족할 줄도 알아야 한다 싶었다. 나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걸 내 뜻대로만 이끌 수 없기에, 하늘에 의탁하며 늘 겸허히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려 한다. 어떠한 운동, 또는 살림의 길을 향한 동력이, 분노와 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분노와 화를 정화시켜 이마저도 또 다른 살림의 동력으로 삼자. 내 마음의 비폭력적 평화와, 사람을 향한 애정이 가득할 때 비로소 향기로운 살림의 길을 내어 갈 수 있으리라, 나는 믿는다. 그 길에 함께하는 향기로운 이들이 가장 듬직한 위로가 되어 줄 것이다.”

(2021년 3월 5일) 폐친 경기도 한살림 이대0님 포스팅

3월 25일 - 지금의 나는 단 한사람의 양심에라도 호소할 수 있을 만큼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물어 본다.

“근래 용기 내는 실무자들 보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한 선배 실무자가 말했다. 그리곤 말을 덧붙였다. “문제에는 동의하면서도 방관하는 나같은 사람들 때문에, 한살림이 이런 모습인건 아닌가...마음이 아프네.”

선배의 말이 되돌아와 내 마음을 두드린다.

용기 있는 몇 사람의 행동이 불씨 되어, 또 다른 누군가의 양심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언젠가 양심의 소리를 따라 함께 할 이들이 곳곳에 있었구나 싶다.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치부하는 습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분단의 비극이 낳은 뿌리 깊은 분열과 적대 의식을 버려야 한다. 쉽게 내편과 니편을 가르고, 상대는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틀을 넓혀가야 한다.

이상과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적 인간형 일수록,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는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살겠다는 이가, 정작 자신은 누구와도 더불어 살기 어려운 존재가 되고 마는 역사의 교훈을 쓰라리게 기억해야 한다. 호기롭게 시작한 무수한 운동과 연대가 무의미하게 소멸되거나, 실패한 이유를 깊게 돌아봐야 한다. 애초에 ‘운동과 연대’란 그런 의미가 아닌지.

당장 눈앞에 우리 편 늘리는 걸 목적 삼는게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따라 흔들리는 못사람들을 함께 감동시켜 품어 안고 가는 것. ‘한살림’의 모태와 지향 또한 폭넓은 연대의 집약이 아닐까.

‘어차피 한 두 사람 해서 되겠냐’는 무기력한 체념의식을 넘어, 지금의 나는 단 한사람의 양심에라도 호소할 수 있을 만큼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물어 본다.

4월 1일 - 패썬죄 경고 압박 부당한 발령 통보

상사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팀장 다음으로 주요업무(인사, 급여, 회계, 연대)를 맡아 온 선임실무자인 제가, 공급(배송)팀을 오가는 배치로 일방적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팀원 5명 중에 지목 받은 것입니다.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계약직 차등대우 문제가 불어지고 조직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패썬죄가 적용된 발령이라 보여집니다. 상사에 반했을 때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합법적

압박이겠지요.

이 통보를 오늘 아침에 출근하여 인사발령 공고문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도 어떤 언질조차 없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조직에서 8년간 일한 이의 중대한 미래와 진로가 걸린 인사결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나 싶습니다. 공급사업팀에서 4년 반을 일하고, 업무순환제도에 따라 조직지원팀에 온지 2년 반이 되었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조직지원팀 -> 조직지원&공급(배송)으로 선택적 발령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대응을 취해 가려 합니다.

지난 8년간 겪어 왔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제보하고자 합니다. 언론사에서 취재하실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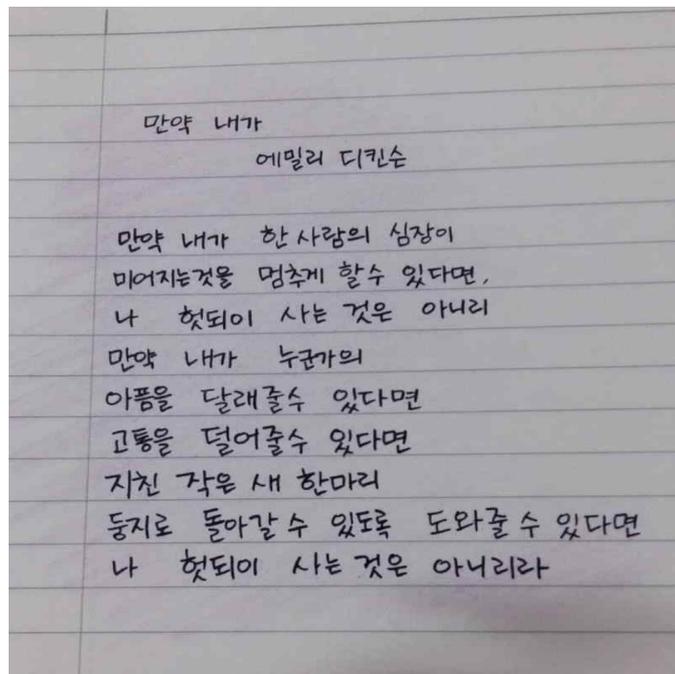
4월 9일 페이스북

이사님들에게 장문의 호소문을 보내고, 상사는 재고해보겠다는 답변을 주었지만 결국 '원칙대로'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발령에는 문제가 없으며,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압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문제제기를 하려면 호소문과 같은 메일이 아니라, 내부의 정식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내부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이사님들에게 호소문을 보냈으나, 또 다시 돌아온 건, 상사의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저와 상사에 대한 제대로 된 경위조사와 조직적인 대질심의 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기에, 이제부터 이 사안을 조합원과 내부 구성원들에게 알려 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생산자, 소비자, 타생협, 생협연대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걸음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상사로부터 공급(배송) 병행으로의 인사발령을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8년간 한살림을 위해 성실히 일해 온 실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가는 이 경과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목소리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학은 날마다 하는 것!
오늘 현재 나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동학을!!
날마다 개혁하기!!!

[주제발표 6]

‘다시개벽’의 지구사적 의미

-한국사상에 나타난 지구지역적 사고-

조성환 · 허남진

원광대학교 HK교수 · 원광대학교 연구교수

차 례

- I. 머리말: 서세동점과 지구화
- II. 지구적 패러다임의 등장
- III. 최치원에서의 ‘東’의 탄생
- IV. 홍대용에서의 우주의 전환
- V. 최제우의 지구지역학

I. 머리말 : 서세동점과 지구화

오늘날의 세계적 상황을 설명하는 대표적 개념으로 ‘지구화(globalization)’를 들 수 있다. ‘지구화’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지만, 이와 유사한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구화의 기점으로 20세기 후반을 잡지만, 산업혁명이나 프랑스 혁명, 또는 자본주의가 등장한 ‘지구적 식민화’ 시기를 지구화의 기점으로 보기도 한다. 심지어는 농경문화가 정착한 기원전 3,500-2,000년경을 최초의 지구화 시대로 규정하는 학자도 있다. 한편 15세기에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그 이후에 전개된 대항해시대(15세기~18세기)는 서세동점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지구화 현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¹⁾ 특히 동아시아에서 서세동점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온 중화질서가 붕괴되고, 서구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지구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1) Jerry H, Bentley, “Cross-Cultural Interaction and Periodization in World Histo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1, No. 3, 1996, p. 756.

‘서세동점’이라는 말이 함축하듯이, 지구화는 식민화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달리 보면 그것은 ‘지구적 의식’의 시작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구적 의식은 조선시대의 뿌리 깊은 중국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관점으로 활용되었다. 18세기의 북학과 실학자 담헌 홍대용은 『의산 문답』(1766년)에서 지구적 관점(global view)을 통해 중화주의(=중국중심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1860년에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1824~1864)는 “도는 천도(天道)이지만 학은 동학(東學)이다”고 하면서 ‘지구(천도) 지역(동학)적’ 사고로 중국중심주의와 유럽(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면서 자생적 ‘학’을 수립하고자 했다. 이들은 모두 서세동점이라는 지구사적 흐름에서 나온 조선의 ‘학’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선구적인 시도로는 신라 말기의 최치원을 들 수 있다. 그는 당시 동아시아의 보편학문인 유불도 삼교를 수용하면서 신라의 고유한 사상을 ‘풍류’라는 이름으로 정립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상의 한국사상가들에 나타난 외래사상에 대한 대응방식, 그중에서도 특히 지구적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조선 후기의 대응양상을 ‘지구지역적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글의 순서는 먼저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된 서구의 ‘지구사’와, 지구성과 지역성을 통합시킨 ‘지구지역적 사고’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이어서 신라 말의 최치원에서 이러한 사고의 원형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서학과 만난 홍대용과 최제우에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나아가서 그런 사유방식을 통해 전통적인 중심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자신들의 사유의 세계를 확장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지구적 패러다임의 등장

최근 들어 역사학계에서는 ‘지구사(Global History)’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구사 패러다임이 성장하게 된 배경 역시 1990년대 이래의 본격적인 지구화(Globalization)와 그에 따른 지구학(Global Studies)의 대두이다. 유럽중심주의의 극복을 위한 기획인 ‘지구사’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민족이나 국가에서 지구 전체(지구성)로 확장시킨 개념이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구가 구형의 행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세계’는 지구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의 나라들로 한정되었다. 그래서 사마천(司馬遷)이나 헤로도토스(Herodotos)의 역사 서술은 ‘세계사’로 분류되지 ‘지구사’로 볼 수는 없다.²⁾

지구사는 지구적 관점에 입각해서 모든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탈중심적인 학문적 모색이다. 한국의 대표적 지구사학자인 조지형은 오늘날 세계사는 유럽중심주의와 중국 중심주의

2) 조지형, 「지구사란 무엇인가?」, 『서양사론』 92, 2007, 300-301쪽.

그리고 자민족중심주의가 기묘하게 혼합되어 왜곡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구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지구사는 다양한 학제적 연구방법을 통해 지구성과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역사적 동력을 살펴보는 것”, “인류의 존재 조건으로의 지구성(Globality), 하나의 역사 단위로서의 지구, 지구적·지역적 상호연관성과 상호의존성, 역사 행위자의 지구적·지역적 층위 혹은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며, 유럽중심주의와 모더니티를 뛰어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이고 말한다.³⁾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인도 출신의 지구사가(地球史家) 디페시 차크라바르티(Depesh Chakrabarty)는 유럽의 역사적 위치를 상대화시켜 ‘유럽을 지방화하기’를 주창하였다. ‘유럽을 지방화하기’란 유럽이라는 장소성을 부각시켜서 유럽중심주의를 해체하는 전략이다. 차크라바르티는 ‘유럽을 지방화하기’를 통해 유럽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유럽을 하나의 지역[로컬]로 위치시켰다.⁴⁾ 차크라바르티의 논지의 핵심은 “유럽의 관념들이 보편적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 어떤 보편적 타당성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특수한 지적·역사적 전통들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사상이 장소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상의 뿌리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차크라바르티에 의하며, 유럽 근대의 보편사상 역시 유럽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탄생하였다.⁵⁾ ‘유럽을 지방화하기’는 유럽이라는 장소성·지역성을 부각시켜서 유럽중심주의를 해체하는 전략인 것이다. 유럽이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가 아닌 지구적 관점에 근거한 새로운 세계사로 재구성하기 위해 지구사가 시작된 것처럼, 유럽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기획에서 출발한 방법론이 ‘유럽을 지방화하기’이다.⁶⁾

그렇다면 유럽중심주의가 내포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비유럽이라는 ‘장소’에 내재된 지역성·장소성의 특이성과 차이를 상실시켰다는 것에 있다. 여기서 장소는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의미들이 함축된 전통과 문화로 채워진 곳이다.⁷⁾ 철학자 박치완은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종종 놓치고 있는 사실은, 철학은 그것이 탄생한 ‘장소’에서 자양분을 얻는다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재지성(在地性, territoriality)이 없는 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유럽중심주의적 세계사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사가 출현한 바와 같이, 기존의 세계철학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세계철학’ 곧 ‘지구철학’을 주장한다.⁸⁾ 그에 의하며, 지역[로컬]이 살아야 서구유럽만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⁹⁾ 여기서

3) 조지형, 앞의 논문, 316-317쪽.

4) 『유럽의 지방화』 논제와 계몽주의적 보편주의 비판, 『철학과 현상학 연구』 84, 2020, 109-143쪽.

5)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유럽을 지방화하기-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김택현·안준범 옮김, 그린비, 2015, 17-18쪽.

6) 김기봉, 『글로벌 시대 한국 역사학의 해체와 재구성』, 『한국사학사학보』 32, 2015, 13쪽.

7) 위의 논문, 19-20쪽.

8) 박치완, 『철학을 장소화하기, 장소를 철학화하기!?: 지구(인문)학의 연구방법론을 제안하며』, 『지구화 시대의 인문학: 경계를 넘는 지구화의 모색』,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2021. 3, 19. 11-28쪽.

박치완은 글로벌적 관점 곧 지구지역적 관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지구화’라는 개념 안에는 ‘지구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지구적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과, 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를 ‘지구지역화(glocalization)’라고 하는데, 지구성과 지역성이 상호침투하는 변증법적 과정을 뜻한다.

글로벌(glob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이다. 지구지역화로 번역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은 영국의 사회학자 롤랜드 로버트슨(Roland Robertson)이 만든 말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토착화’를 의미하는 일본어 도차쿠카(どちゃくか)에서 비롯된 것으로, 1980년대에 비즈니스 분야에서 글로벌 상품의 현지화를 위한 마케팅론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하지만 의미론적으로 ‘지역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은 ‘상호구성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¹⁰⁾ 지구지역적 사고는 지구성과 지역성이 대등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지역적 토대를 다지면서 동시에 지구적 안목을 겸비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그래야 다양성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 때문이다.¹¹⁾ 그래서 **글로벌에서 ‘로컬’이 갖는 의미는, 지구화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저항성과 대항성을 지닌다는 것이다.**¹²⁾ 이상을 정리해 보면, 지구지역적 사고는 지구성과 지역성을 맞물려 사고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지구지역적 사고는 상호문화철학의 ‘겹침’(Überlappungen) 개념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겹침’은 철학적 전통들의 절충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동일성과 완전한 차이성을 넘어서서 **모든 개별문화의 차이를 유지하면서 공통적 진리를 지향해 나갈 때 형성되는 중층적 통합**을 의미한다. 즉 상이한 문화들 간의 소통과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로서 지구성과 지역성을 통합한 지구지역적 사고이다.¹³⁾

Ⅲ. 최치원에서의 ‘東’의 탄생

최치원이 「난랑비서문」에서 ‘풍류’의 정의로 제시한 ‘포함삼교(包含三教), 접화군생(接化群生)’은 한국사상사에서 지구지역적 사고의 원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삼교’는 ‘유교·불교·도교’를 지칭하는 말로, 당시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이라고 인정된 주류 사상의 총칭이다.

9) 박치완, 「유럽의 지방화’논제와 계몽주의적 보편주의 비판」, 『현상학과 현대철학』, 84, 2020, 126쪽

10) 위의 논문, 223쪽.

11) 박치완, 「글로벌 시대의 철학」, 『철학과 문화』 35, 2012, 220-241쪽.

12) 강수돌 외, 「로컬리티, 글로벌리즘을 재사유하다」, 『로컬리티 인문학』 3호, 2010, 16쪽.

13) Ram Adhar. Mall, Philosophie im Vergleich der Kulturen, Interkulturelle-Philosophie Eine neue Orientierung, Darmstadt 1996, S. 2.(홍경자, 「야스퍼스에서의 세계철학의 이념과 전망-세계화시대의 상호문화철학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106, 2008, 6쪽에서 재인용)

“이것을 포함한다”는 말은 어느 하나도 배제하지 않고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지금 식으로 말하면 지역성에 고착되지 않고 ‘지구적 차원’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의 표현을 빌리면 ‘세계주의’¹⁴⁾ 또는 ‘동문(同文)의식’¹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치원은 동문(同文)의식과 함께 동인(東人)의식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동인(東人), 동국(東國), 동방(東方)과 같이 ‘동(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東)’의 의미를 단순히 ‘중국의 동쪽’이 아니라, ‘해가 뜨는 곳’, ‘만물이 소생하는 곳’이라는 ‘근원’의 의미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¹⁶⁾ 그래서 그에게 있어 한반도는 중국의 주변도 아니고, 중국 또한 세계의 중심이 아닌 신라(東國) 서쪽에 위치한 ‘서국(西國)’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차크라바르티 식으로 말하면 중국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중국을 지방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접화군생’의 ‘접화’는 직역하면 “중생과 접촉해서 교화한다”로 번역될 수 있지만, ‘지구 지역적’이라는 틀로 해석해 보면, 수용한 외래 사상을 지역성에 “접목시켜 교화한다”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일종의 토착적 응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외래사상을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자기화하는 과정이 포함과 접화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구성과 지역성이 공존하게 된다. 보편적 지구성에 동참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적 특수성을 유지하지만 지구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영성은 최치원이 “고유사상의 정립과 외래사상의 수용을 서로 맞물려 생각하고 함께 다루어 자연스럽게 해결하고자 했다”¹⁷⁾고 평가하였는데, 여기에서 ‘맞물려’는 앞에서 소개한 상호문화철학의 ‘접침’ 개념과 상통한다. 여기에서 고유사상의 정립은 수용된 외래사상이 지역에 접목되는 순간에 발생한다. 세계성과 지역성이 ‘접’하는 순간에 자생사상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최치원에게도 한계는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동’이라는 지리적 중심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큰바람과 아침해는 모두 동방(東方)으로부터 나온다.”¹⁸⁾

“오상(五常)으로 방위를 나누면 동방(動方)에 짝지어진 것을 인심(仁心)이라 한다. (...)

지령(地靈)은 호생(好生)을 근본으로 삼는다.”¹⁹⁾

여기에서 최치원은 바람과 일출과 같은 자연현상은 동쪽에서 시작된다고 하면서, 음양오행론

14) 이구의, 『최고운의 삶과 문학』, 1995.

15) 최영성, 「최치원 사상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 동인(東人)의식과 동문(同文)의식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제4집, 2009.09.

16) 최영성, 위의 논문.

17) 최영성, 「고운 최치원의 동인의식」, 『고운 최치원의 철학종교사상』, 문사철, 2009.04, 43쪽.

18) 『역주 최치원전집(1)』 63쪽, 「대낭해화상비문」.

19) 『역주 최치원전집(1)』 257-258쪽, 「지증대사비문」.

에 입각해서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인심이 좋고 생명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방식은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비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일종의 ‘지리적 중심주의’로 비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치원이 외래사상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IV. 홍대용에서의 우주의 전환

최치원이 중국의 삼교를 수용하였다면, 홍대용은 서양의 천문학을 수용하면서 삼교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가 1866년에 쓴 『의산문답』에는 허자(虛子)와 실옹(實翁)을 등장시켜, 종래의 학문을 고집하여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성리학자와, 새로운 사상을 수용하여 세계가 넓어진 선각자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다. 특히 “낡은 지식에 고착된 자와는 도를 논할 수 없다”(膠舊聞者, 不可與語道)는 실옹의 말은, 새로운 지식의 수용을 거부하고 전통적 지식에 고착되어 있는 편협한 학자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홍대용은 최치원이 제창한 ‘포함삼교’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 천문학을 ‘포함’한 실옹은 ‘지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만물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땅은 물과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형체는 둥글다. 허공에 떠 있으면서 끊임없이 회전하지만, 만물은 그 표면에 붙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옹이 “땅은 둥글다”는 ‘지구(地球)’ 인식과 더불어,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회전하고 있다는 자전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물은 지구 표면에 붙어서 살고 있다는 ‘만물’의 존재방식에 대한 인식도 표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라는 함축을 읽어낼 수 있다. 즉 토마스 베리가 말하는 ‘지구공동체’적인 생각의 단초가 홍대용에게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다음과 같은 실옹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땅은 우주의 활물이다.
 흙은 피부와 살이고, 물은 정액과 피이다.
 초목은 땅의 모발이다.
 사람과 금수는 땅의 벼룩과 이와 같다.

여기에서 땅, 즉 지구는 만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묘사되고 있다.²⁰⁾ 뒤집

어 말하면 만물은 지구에 붙어살면서 지구를 구성하는 동등한 구성원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위계도 없고, 일종의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홍대용은 이러한 지구적 관점에 입각해서 새로운 우주이야기를 전개하고 인류 역사를 다시 쓴다. 최제우식으로 말하면 우주론과 인간관이 ‘다시개벽’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는데, 전통적인 중화와 오랑캐의 구분을 부정하는 ‘화이균’(華夷均) 사상이 그것이다.

하늘에서 보면 어찌 안과 밖의 구분이 있겠는가!”²¹⁾

여기에서 ‘하늘’은 의미상 ‘지구’로 바뀌 쓸 수 있다. 둥그런 지구의 관점에 보면 중심과 주변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최치원이 ‘동’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중국중심주의를 벗어나고자 했다면, 홍대용은 ‘지구’에 대한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제강점기에 홍대용을 실학자로 발굴한 민세 안재홍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담헌 홍대용이 『의산문답』에서 천문지리를 설(說)하여 천하의 제국(諸國)이 중국으로 독존(獨尊)할 수 업슴을 갈파하였고...”²²⁾

안재홍이 산 시대는 중국적 세계질서가 무너지고 서세동점에 의한 ‘지구적 의식’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서구중심주의로 경도된 것도 아니다. 그가 『의산문답』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홍대용에게서 중국중심주의도 아니고 서구중심주의도 아닌 ‘지구중심주의’의 단초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

한편 홍대용은 중국중심주의를 부정한다고 해서 최치원과 같이 ‘동’이라는 새로운 중심을 설정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홍대용에게 있어서 지구성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지역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희박함을 말해준다. 지역성에 대한 관심은 그로부터 약 100여년 뒤의 최제우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V. 최제우의 지구지역학

『의산문답』이 나오고 약 20여 년 뒤에 실학자 안정복의 『천학문답』이 저술되었다. 여기에서 ‘천학’은 ‘천주교’를 가리킨다. 「천학문답」은 자문자답의 형식을 취하면서, 유학자의 입장에서

20) 조성환·허남진, 「지구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종교-홍대용의 『의산문답』과 개벽종교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43, 2020, 108쪽.

21) 홍대용, 『의산문답』, 김태준·김효민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149쪽.

22) 「다산의 사상과 문장」, 『삼천리』 8권 4호, 1936년 4월 1일.

천주교를 비판하고 있다.

하늘을 섬긴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유학은 정통이고 천학은 이단이다.

여기에서 안정복은 서학을 하늘을 섬기는 학문이라고 일단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단이라고 배척하고 있다. 천당과 지옥과 같은 괴력난신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설령 천당이 있다고 한다면, 현세에서 선을 행하면 자연스럽게 천당에 갈 수 있는데, 지옥이 무서워서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는 극히 이기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제우는 어떨까? 최제우 역시 서학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복보다는 후한 평가를 주고 있다.

서학과 동학은 모두 천도이다.

서양인들은 도가 완성되었고 덕을 이루었다. (『동경대전』 「논학문」)

여기에서 최제우는, 마치 안정복이 그랬듯이, 동학과 서학을 모두 ‘하늘을 공경하는 천도’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동서를 아우르는 지구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안정복과 마찬가지로 서양인들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또한 몸에는 기화의 변화가 없고 학문에는 하늘님의 가르침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최제우는 안정복과는 달리, 한편으로는 서학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그가 ‘동학’이 서학이 아니라 ‘동학’인 이유로 ‘지역적 차이’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는 동에서 태어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천도이지만 학은 동학이다.

땅은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찌 동을 서라고 하겠는가!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나서 추나라에서 일으켰다.

나의 도는 여기에서 받아서 여기에서 퍼트린다.

여기에서 최제우는 서학과 유학, 그리고 동학을 비교하면서, 삼학의 탄생지가 각각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학문의 장소성과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동학은 서양도 중국도 아닌, 조선이라는 장소에 뿌리를 둔 ‘지역학’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동학은 ‘조선학,’ 달리 말하면 **조선으로부터의 ‘학’**인 것이다. 반면에 서학은 ‘서’라는 문화적·역사적 전통에서 나온 ‘서의 학’일 뿐이고, 유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보면, 최제우는 각각의 지역성과 장소성을 강조하면서도 어느 하나의 중심도 설정하

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최치원과 같이 ‘동’이라는 지역성을 근본으로 상정하지도 않고, 홍대용과 같이 지역성에 대한 소홀함도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최제우가 보편을 지향하는 학문은 반드시 자기가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에서 창조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단순히 외래사상을 흉내내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의 교류와 수용을 통해서 자기다운 사상을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보편성을 추구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제창한 ‘다시개벽’에는 이러한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즉 문명을 전환하는 방식이 ‘지역성에 뿌리를 둔 지구성의 추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